금주의 법구-〈법구경〉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거둬 성냄을 버려라.
깨달음엔 인욕이 으뜸이니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5월 2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03호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총무원장 선출제도, '직선제'도 논의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21일 임시회서 특위 구성 결의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은 조계종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다. 염화미소법으로 대표되는 '추첨제'와 함께 '직선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6월 21일 개최한 제206차 임시회에서 직선제를 논의하기 위한 '총무원장 직선 선출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총무원장 선출 관련 종헌 개정안과 종법 제정안은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중앙종회는 오후 2시 속개한 회의부터 비공개로 전환해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결과보고 △종헌개정안(총무원장선출 관련) △총무원장선출에관한법 제정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의 총무원장 선출제도 논의 결과 보고에서는 종회의원 스님들의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지역대중공사 결과로 보고된 통계자료는 부적절한 표

특위 위원장엔 태관 스님
위원은 9~11명 위촉될 듯
특위 활동후 法 성안되면
추첨제와 함께 논의 예상
'염화미소법'은 차기 이월

본과 투표자의 중복참석 문제 등으로 정확하게 설계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대중공사의 가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제대로 설계 되지 않는 통계로 인해 심각한 여론 왜곡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중공사추진위는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통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6월 22일 공의를 수용한데 대한 환영의 뜻을 담은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중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사부대중의 공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무원장 선출 직선제 특별위원회'를 구성, 입법기구로서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키로 결의함을 환영한다"면서 "특위를 통해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종회가 대중공사를 통해 나온 여론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데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하면서도 "다소 미흡한 과정이 있었지만 종단에 대한 애정으로 대중공사에 참여한 종도들의 마음과 지혜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중공사 결과 보고 후 중앙종회는 의견 조율을 위해 휴회하고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직선 선출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장에 태관 스님(호법분과위원장)이 선임됐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후보군 선출 후 추첨하는 '총무원장선출에관한법'은 직선제 선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이 같은 중앙종회의 결정에 따라 대중의 이목은 새롭게 구성된 '총무원장 직선 선출제 특별위원회'에 쏠리게 됐다. 위원 구성과 위원회 활동기간, 예산 규모 등은 의장단에게 위임한 상황이다. 현재 위원은 9~11명 선으로 구성되며, 종회의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까지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위 활동을 통해 직선제 법안이 성안될 경우, 차기 종회에서 추첨제와 직선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종헌개정안(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조항 변경) △종법제개정안(대각회특별교구법제정안, 지방종정법개정안)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후보자 복수추천 동의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중앙종회는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인 종헌 제35조를 개정하는 안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부결시켰다. 조계종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과 지방종정법 개정안은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종무보고와 종책질의 등은 서면으로 대체됐다.

또한,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로 주경 스님과 원정 스님을 복수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례위원회가 제출한 종단 표준 의례의식 동의안도 가결했다. 통과된 의례의식문은 우리말 행선축원, 신중예경 등이며, 총무원장 공포로 일선 사찰에 보급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천주교 부제들, 참선에 들다

6월 21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 대웅전. 전국 15개 교구와 수도회 부제 140여 명이 눈을 감고 고요히 참선에 들었다. 부제들은 주교회의가 6월 20~22일 개최한 '2016 가톨릭 부제들의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 일환으로 조계사를 방문,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의 법문을 듣고 명상에 들며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은 "천주교 신자들에게 등불과 감로수 같은 사제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글 · 사진= 박아름 기자**

제39대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선출

20일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학교법인 운영에 최선"

6월 21일부터 임기 시작
'이사진 사퇴' 마무리 수순



조계종 군종교구장과 호계원장을 역임한 자광 스님(반야선원 주지, 사진)이 제39대 동국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6월 20일 동국대일산병원에서 개최한 304차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 안건을 다루고 만장일치로 자광 스님을 선출했다. 앞서 이사장 직무대행 성타 스님은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자광 스님은 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사미계를 수지하고, 화엄사 · 해인사 · 건봉사 · 상원사 등에서 수행했다. 1963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8년 동국대 불교대학을 종비생 1기로 졸업했다.

1970년 군승 중위로 임관해 군승단장과 국방부 군종실장을 역임하는 등 군포교 발전에 많은 노력을 했다. 1995년 군승 대령으로 예편하고 종단 복귀 이후에도 2005년 군종특별교구장을 역임하며 군포교 진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신임 이사장 자광 스님은 "조계종 종비생 1기 출신으로 평소 애정이 많았던 동국대 이사장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인 이사와 산하 교육기관 교직원과 함께 법인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광 스님의 임기는 6월 21일부로 바로 시작되며, 법인 사무국과 함께 업무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기는 2019년 7월 20일까지다.

신임 이사장이 선출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이뤄진 '이사진 전원 사퇴'에 대한 사안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인 관계자는 "성타 스님도 당신의 거취를 1~2개월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8월 안으로는 이사진 사퇴 사안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3월 20일자로 임기 만료된 이연택 이사의 후임으로 추천된 문병호, 이은기 씨에 대해 총동창회의 의견 조율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다. 감사 선출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추천 후보가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법인으로 접수돼야 해서 차기 이사회로 이월됐다.

또한, △서울캠퍼스 이행 보증보험 가입 승인 △수익용기본재산 전세권 설정 변경승인 △경주병원 노인공공진료센터 사업 승인 등의 안건도 원안대로 처리됐다. **신성민 기자**

韓日불교 지도자들 청소년 교류 적극 협의

37차 한일불교교류회의 회향

지난해 11월 화성 용주사서 청소년 문화교류에 대한 뜻을 모은 한일불교 지도자들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류사업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한일불교)와 일한불교교류협회(회장 후지타 류조, 이하 일한불교)는 6월 15~17일 일본 닛코와 도쿄 일원에서 '제37차 한일불교문화교류회의 평간사 대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교류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사진 아래〉

한일불교 사무총장 향운 스님과 일한불교 사무총장 와타나베 신고 스님은 17일 일본 진언종 대본산 도쿄 가와사키 헤켄지에서 열린 본대회서 이 같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먼저 양측은 선언문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쿠마모토 · 오이타현의 대지진 피해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지난 제36차 용주사대회에서 공동선언한 청소년 교류사업 실천을 위해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봉행된 세계평화기원법요식서 일한불교 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양국 불교도가 한 자리에 모여 성대한 의식을 봉행하게 돼 경사스럽게 생각한다"며 "불교신앙의 다양성, 특히 포교교화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우의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불교 회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교류를 거듭할수록 의제 선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국이 지혜를 모으기 위한 만남은 선대의 뜻을 수승하게 이어받아 더 나은 불교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는 증명일 것"이라며 "이번 대회 주제인 '불교신앙의 다양성'은 시대를 읽어가는 지혜로운 대안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오늘의 대회가 후대에 유산으로 회향될 수 있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나무아미타불'에 담긴 놀라운 비밀!



염불하여 왕생하고, 왕생하여 성불하세
순수한 정토법문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여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칭명염불은 보통사람들을 위한 가장 뛰어나면서도 쉽고 빠른 수행법이다.

아미타불은 어떤 부처님이며,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어떻게 극락왕생하여 성불할 수 있는가?

혜정 법사 법문 / 정전 · 원왕생 옮김 / 국판 / 248쪽 / 값 10,000원

부처님의 가피가 가장 수승한 법화경 사경!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느니라."





우리말 (전5권)
법화경 사경
혜조 역 / 사륙배판 케이스
전체 940쪽 / 값 40,000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한문 법화경 사경 (전7권)
사륙배판 케이스 / 전체 750쪽 / 값 4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KCRP 30주년 기념식 '종교 화합' 자리로

29일 장충동 앰버서더 호텔

30주년을 맞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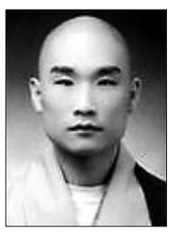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김영주, 이하 KCRP)는 6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버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서 'KCRP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2016이웃종교화합대회 개막식'을 개최한다.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총 7대 종교 수장들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위시한 내빈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30주년 기념식은 '과거(過)·현재(現)·미래(來)'를 테마로, 오프닝 영상·인사말·축사·드로잉 퍼포먼스·30주년 기념 약속의 나무 세레모니·오찬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한국종교계가 이해와 화합,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큰 뜻을 모으는 이웃종교화합대회 개막식도 함께 개최된다. 이날 개막을 시작으로 KCRP는 7~8월 각 종단 시설서 이웃종교를 체험하는 '이웃종교스테이', 9월 '전국종교인화합마당-소통으로 하나 되는 토크콘서트'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박아름 기자**

적조사 주지 탄국, 청련사 주지 혜조 임명

조계종, 6월 22일자로


탄국 스님


혜조 스님

조계종 직할교구 말사인 서울 적조사 신임주지에 탄국 스님, 강화 청련사 신임주지에 혜조 스님이 6월 22일 임명됐다.

적조사 신임주지 탄국 스님은 자승 스님을 은사로 2007년 수계(구족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총무원 호법과장을 역임했다.

청련사 신임주지 혜조 스님은 정인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구족계)했다. 삼선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청룡암 주지, 지산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대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기본교육기관 최초 '4년 단기출가'

중앙승가대, 출가문턱 낮추기 위해 교육과정 마련
정규대학과정 이수 후 출가 선택 'UNI-출가' 주목
청소년·학인 함께하는 2박 3일 'UNI-stay'도

중앙승가대가 승가 기본교육기관 중 최초로 '4년 단기출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출가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앙승가대(총장 원행)는 'UNI-출가'를 새롭게 개설했다. 'UNI-출가'는 중앙승가대서 4년간 정규대학과정을 이수하면서 출가생활을 경험하고, 졸업 후 구족계를 받거나 사회전문직업인으로 진출할 수도 있는 단기출가 제도다.

지난 6월 13일부터 모집을 시작했으며, 신청자들은 본교 내 위원회를 통해 은사를 결정한 뒤 2016년 9월부터 6개월간 행자생활을 시작한다. 행자교육은 은사 스님과 중앙승가대가 병행해 실시하는데, 향후엔 중앙승가대가 독자 운영하는 행자교육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5급 승가고시를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2017년 3월 정식 입학, 중앙승가대서 기본교육 4년을 이수하게 된다. 등록금 및 4년 학비, 기숙사비는 전액 면제다.

가장 큰 특징은 졸업 후 반드시 구족계를 수지할 필요가 없단 것이다. 즉 UNI-출가자들은 4년 간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구족계 수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중앙승가대 학인들의 졸업 후 구족계 수지가 의무화였던 것과 차별적인 것으로,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입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기존 단기출가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한 달·100일 등 실제 출가로 이어지기엔 비교적 짧은 기간이란 점을 보강, 출가자들이 예비승려 신분으로서 삶을 살며 보다 현실적으로 출가를 고민할 수 있단 점이 주요 골자다.

9월 행자 교육 시작 후
2017년 3월 정식 입학
졸업 후 구족계 수지 선택
출가부담 감소, 인재양성 기대

이와 관련 중앙승가대 교학국장 선승스님은 "동남아 불교계엔 3·4년 단위의 단기출가제도가 비교적 활성화 돼 있다"며 "4년이란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출가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하는 한편, 중앙승가대 시설과 교수진을 활용해 전문적인 행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UNI-출가가 실제 출가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불교계 인재 양성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김 교수는 "졸업생들은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더라도 종단 및 전국 사찰 종무원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출가가 '선득도-후교육'으로 이뤄지는 점을 보완, '선교육-후득도'로 변화시켜 승려들의 전문성도 함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승가대는 'UNI-stay'도 마련한다. 'UNI-stay'는 청소년과 학인 스님이 2박 3일 간 함께하며 인성을 함양하고,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 취지다. 7월 28~30일 진행되며, 참가자는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스님들과의 승가 Uni 캠퍼스 스토리'란 주제로, △스님들의 대학생활 △청소년에게 GO하다 '비정상회담' △놀이체험 'LTE급 겁나 빠른 런닝맨' △신나는 대동마당 '佛금이야~佛놀이야~' 등이 진행된다.

접수는 중앙승가대 홈페이지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해 이메일(sanghaswelfare@gmail.com)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참가비 1만원. (031)980-7715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설법으로 通하고 싶다면 오세요

BTN, '통하는 설법학교' 개강…
조계종 교육원 인증연수

7월 20일까지 선착순 30명
설법이론과 스피치실기 강의

BTN불교TV(대표 성우)는 스님들의 설법역량을 길러줄 '통(通)하는 설법학교'를 개강한다.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불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법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특강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서울 방배동 BTN스튜디오에서 마련한다.

첫 강의는 능인대학원대학교 백도수 교수가 붓다의 설법을 우리시대에 맞게 이해하고 전법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청중과 법회 성격에 따른 설법주제를 잡는 노하우도 전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월간 〈법회와 설법〉의 집필을 맡은 고명석 조계종 포교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설법의 기초가 되는 문안과 원고작성 방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김응철 교수


고명석 선임연구원


김문주 아나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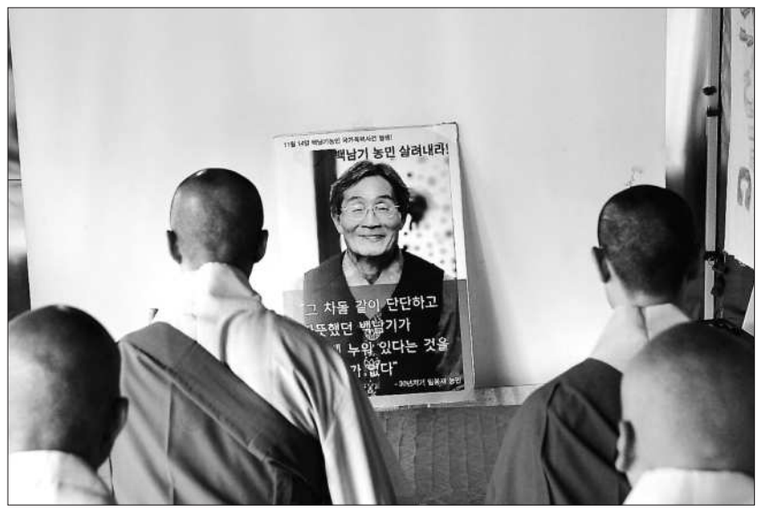

백도수 교수

설법학교의 실기는 BTN뉴스로 불자들에게 익숙한 김문주 아나운서가 맡는다. 김문주 아나운서는 불교계 행사와 포교사단 연수, 새터민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스피치랩 전문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불교TV 스튜디오에서 실습형태로 진행되는 스피치 특강은 강사와 수강생이 직접 1대 1 모니터링 형식으로 지도한다. 또한 불교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소통의 기술을 중심으로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가 강의한다.

BTN 문화포교국 관계자는 "불교TV가 불교계 대표방송의 역할 고민하던 중 설법강좌를 해달라는 스님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미디어 시대에 맞게 설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스님들에게 꼭 필요한 원고작성과 스피치 실습을 중심으로 엄선된 강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02)3270-3336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는 6월 17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후문에 위치한 백남기 대책위원회 농성장서 기도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5일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2차 민중총궐기 대회 '평화의 꽃길 기도회'에 참가한 후 백 씨의 병실을 방문한 적은 있으나, 사회노동위가 백남기 씨 농성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염불 의식을 마친 스님들은 "그동안 나서지 못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앞으로 백남기 대책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박아름 기자**

진각종, 자성동이 풋살대회 연다

8월 9일~11일까지 위덕대서… 고교생 대상 자원봉사단 모집도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위덕대서 제11회 통리원장배 자성동이·중등부 풋살대회를 연다.

풋살대회 운영위원회는 6월 21일 대전 신덕심인당서 2차 운영위원회의를 갖고 참가신청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대회에는 자성동이부 △서울교구 3팀 △대구교구 3팀 △부산교구 1팀 △대전교구 2팀 △전라교구 1팀 △경주교구 2팀 △포항교구 2팀 등 총 14팀과 중등부 서울, 대구, 부산, 대전, 경주교구 각 1팀 및 포항교구 2팀 등 총 7팀이 참가한다.

한편 비로자나청소년협회는 그간 풋살대회에 참가한 자성동이·중등부 선수들이 고교 진학 후 종단행사에 참여율이 낮다고 판단해 '풋살대회 청소년 자원봉사단' 모집을 통해 자신이 뛰던 무대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대회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풋살대회 청소년 자원봉사단'은 전국 심인당 소속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봉사단으로 선정되면 풋살대회 동안 경기장 자원봉사, 경기기록관 및 시간 관리자, 심판(부심), 이벤트 경기 진행 및 참여, 팀별 인솔담당 등을 담당한다. 봉사활동시간 제공(사전에 1365자원봉사포털 가입)의 특혜도 주어진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화엄경' 진수를 만나고 싶다면?

서울불학승가대, 지안 스님 강독 청강생 모집

8월 19일까지 학생 모집
재가자도 청강 참여 가능

한국불교 대강백 지안 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에게 〈화엄경〉 강독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조계종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오는 8월 30일 개강하는 '지안 스님의 〈화엄경〉 강설 법석'을 연찬할 청강생을 모집한다"고 6월 22일 밝혔다.

강의는 8월 30일부터 매주 화·수요일 오후 6~9시에 진행되며, 장소는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이다. 교재는 무비 스님의 〈화엄경〉현토본을 사용한다.

이번 〈화엄경〉강독은 스님뿐만 아니라 불교 공부에 목마른 재가 불자들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규학인 스님들은 등록금 50% 할인도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19일까지며,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우편과 이메일(education@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원은 "지안 스님의 〈화엄경〉 강독은 설법과 포교활동을 하는 스님들에게 꼭 필요한 공부이며, 재가자도 스님들과 공부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면서 "품격 높은 불교강의를 통해 불교사상의 진수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02)2011-1875 **신성민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눈 밝은 선지식 '간화선'을 이야기하다

6월 23일 국제학술대회 '간화선 담론' 프로그램서
진제 종정 · 수불 스님, 간화선 수행 체계 · 원리 설파

"화두의 생명은 의심이므로 챙기고 의심하고 챙기고 의심해야 한다. 의심이 크면 깨달음이 크고 의심이 작으면 깨달음도 작고, 의심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촬구를 들고 일단 의심이 일어나면, 일념만년으로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이 공부는 시작하자마자 행주와 어묵동정 가운데 24시간을 철석같이 촬구 의심만을 잡아들어서 한 생각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이 시대의 명안종사(明眼宗師)에게 간화선 수행의 요체를 듣는 법석이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종호)와 동국대 국제선센터(선원장 수불)는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7박8일에 걸쳐 동국대 서울캠퍼스 및 인제 백담사에서 '제4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2012년 제3회 대회에 이어 4년 만에 열려 간화선을 공부하는 많은 불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간화선, 마음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프로그램은 23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간화선 담론'이다.

이날 프로그램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간화선법과 수불 스님의 간화선법, 일본 임제종의 야스나가 소도 스님의 일본 간화선 수행법 등에 대한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중요한 법석이었다.

진제 스님은 동화사 유나 지환 스님이 대독한 '간화선 수행체계'를 통해 간화선을 어떻게, 왜 수행해야 하는지를 대중들에게 설파했다.

우선적으로 스님은 간화선 수행의 기본 요건은 선지식과 나 자신 그리고 화두에 대한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진제 스님은 "간화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 밝은 선지식에게서 올바른 지도를 받는 것"이라며 "수행자에게 믿음이 없으면 서원이 없고, 서원이 없으면 정진력이 약해지고 퇴굴심이 생겨 결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바른 지도를 받아 온전히 행해서 화두가 순일하고 일념이 계속되면 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와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제4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23일 열린 '간화선 담론' 프로그램의 모습.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선지식 · 자신 · 화두 믿음이 기본
일념 · 분발심으로 화두 참구해야
선지식에게 반드시 점검 '필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의심→의정→의단으로 타파돼야
기간 내에 맹렬히 참구해 끝내라
촬구들고 의심일어나면 일념 집중

믿음이 갖춰진 후에는 화두 간택을 받고 이를 참구해야 한다. 화두를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는 게 진제 스님의 조언이다. 그러면서 화두 참구에 있어 촬구를 참구할 것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1천성인의 정액상(頂額上)의 일구를 투과해야 촬구가 되고 촬구의 세계를 투과해야 최고의 진리인 향상구(向上句)의 문이 열린다"면서 "진리의 세계는 논리와 변증으로 아는 것에 아니라 오직 실참실수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화참선은 절집 스님들의 수행전유물이 아니다. 불자뿐만 아니라 종교, 사상과 국경을 떠나 누구라도 참선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간화선 수행이 인류 모두에게 소개돼 법계만유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수불 스님은 '간화선 수행의 원리와 실제'를 통해 화두 참구의 방법을 대중들에게 설했다. 스님은 대중들에게 △첫 걸음에 촬구 의심을 들 것△촬구 의심이 의정과 의단으로 익어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화두가 제대로 살펴져서 의심이 활발발하게 잡아들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힌 수불 스님은 "화두 참구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이후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첫 걸음에 촬구 의심을 잡아들이지 못하면, 간화선 공부는 실패한다. 화두참구는 일주일, 길어도 한철을 정해놓고 맹렬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불 스님은 촬구를 들고 의심이 나면 일념만년으로 집중할 것을 대중에게 주문했다. 스님은 "의심이 의정화되고 나아가 의단이 독로돼 안팎이 한 덩어리가 되면, 그 덩어리를 깨져나가길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

앞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국내학자 7명을 비롯해 마틴 버첼러(프랑스), 이시이 슈도(일본), 지미 유(미국), 서문명 · 이사룡 · 이해도(중국) 등 저명한 해외학자들이 학술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해외학자 및 외국인 40여 명은 24일부터 29일까지 백담사에 수불 스님의 지도로 간화선 집중수행을 했으며, 29, 30일에는 봉암사 적명 스님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과의 대담을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주 불교 유무형 문화 활성화 위해 총력"

제주성보문화원, 19일
창립총회 및 이사장 취임식



(사)제주성보문화원은 6월 19일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창립총회 및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됐다.

제주불교 100년의 앞날에 등불을 밝힐 제주성보문화원이 출범했다.

(사)제주성보문화원(원장 오홍식) 창립총회 및 이사장 취임식이 6월 19일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이사장 허운 스님(관음사 주지), 탄해 스님(제주불교연합회장)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영훈 · 위성곤 국회의원, 신관홍 제주도의회 길상회장 등 각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사장 취임식에서 법주 수암 스님은 법어를 통해 "성보문화원의 출범 의미는 첫째, 과거로부터 전해온 성보를 잘 가꾸고 전하는 것이고, 둘째 현 불교문화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출발"이라며 "성공의 열쇠는 도내 모든 종단들의 화합이며, 제주불심이 새 물결이 파도치도록 힘을 모아 제주불교를 중흥시키는데 있다"고 화합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오홍식 원장은 인사말에서 "제주성보문화원이 제주불교의 중흥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이자, 불교문화 전승의 산실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성보문화원과 뜻을 같이하는 불자들과 함께 전통사찰 및 유 · 무형 문화재 보존과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장 허운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찬란했던 제주불교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더 많은 문화창달을 위해 일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오늘이 자리를 함께 한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이자,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사장 취임에 앞서 창립총회에서는 제주성보문화원 이사 및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취지문 · 정관제정 · 이사 승인 및 감사 선임 · 2016년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성보문화원은 △전통 문화유산 보호 관리 계승 및 발전 △문화유전 및 전통사찰 등 답사 조사 연구 강좌 교육 △불교문화의 대중화 △지역 및 국제간의 문화교류 추진 △사회복지사업 추진 및 청소년 포교와 교화 사업 △각 사안별 부설연구소 설치 등의 사업을 펼쳐나가게 된다. 신성민 기자

"고통받는 중생 구원하는 등불 되자"

대한불교청년회, 18~19일 35차 전국불교청년대회

불교계 청년불자들이 일제의 탄압 아래서 치열하게 투쟁했던 만해 스님의 정신을 이어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사)대한불교청년회는 6월 18~19일 경남 하동 청소년수련원에서 '창립 95주년 35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350여 명의 청년불자들은 '청년 만해선언'을 통해 △대립과 상호 반목의 갈등을 통합하는 보살행 실천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시행 실천 △민족 숙원 통일성업을 위해 민족화합의 길 용맹정진 △사부대중이 평등하게 종단 꾸려나가는 씨앗 될 것 등을 결의했다.

전준호 대불청 중앙회장은 "어둠을 밝히는 길은 어려움이 생기고 불편을 감내해야 하며 고통 또한 수반되지만 서슬 퍼런 일제 탄압 속에서도 결연하게 싸웠던 만해의 후예답게 당당히 맞서자"고 강조했다.

대불청은 대회기간 동안 불청대상 시상식 · 대등놀이 한마당 등을 진행하고, 만해 스님이 은거하며 비밀결사단체 만당을 조직해 활동했던 다솔사를 참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랑의교회 사건 끝까지 진상 밝힐 것"

종자연, 21일 기자회견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6월 21일 서울시민청 태평홀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크콘서트' 본 행사에 앞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사건 경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김형남 종자연 운영위원장은 "광장 · 도로 등 공물이 특정종교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공익성이 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며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점용 관련 공익과 사익의 명백한 기준을 규명하고, 신축과정서 실체적 위법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 또 점용허가 관련 관계자들의 행위를 철저히 규명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 계획을 밝혔다.

이어 박광서 대표는 사랑의교회 사건에 대해 '종교의 권력화 문제'라 규정하고, "법과 종교가 야합하고, 종교가 권력화 되는 문제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정확히 직시, 규명해 진상을 밝힐 것"이라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평온
공개강좌

말법시대의 현성공안 만을
선정하여 라이브로 공개강좌 하다

• 제2차 공개강좌 주제 : 고통 해탈법
일시 : 2016년 8월 31일 (수) 오후 3시

• 제3차 공개강좌 주제 : 석가를 품은 53견
일시 : 2016년 10월 31일 (월) 오후 2시

• 제4차 공개강좌 주제 : 평온한 삶
일시 : 2016년 12월 30일 (금) 오후 2시

• 공 개 강 좌 장 소 : 화엄경 강원 (대구 수성구 소재)
• 참석대상 및 참가비 : 누구나, 선착순 33명 제한, 참가비 무료
• 예약신청 및 문의처 : 1899-9532 (각 회차별 예약접수 하신 분만 참석 가능 함.)

평온센터 부설 –
화엄경 강원
방장 진귀



일 주 문



내비둬 콘서트

성우 김제 금산사 주지 스님은 6월 25일 경내에서 인디음악가 '인니언 수니'를 초청해 내비둬 콘서트를 개최했다.



백범 김구 추모다례재

원경 공주 마곡사 주지 스님은 6월 26일 대광보전 앞 추모단에서 '백범 김구선생(원종 스님) 67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탄자니아학교 기자재 지원

원정 (재)한가람청소년재단 이사장 스님은 6월 20일 (재)아름다운 동행에 탄자니아 보리가람학교 기자재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美보병협회 성모리스 훈장

심산 부산 흥법사 주지 스님은 6월 20일 미국 워싱턴 알링턴국립묘지서 동양인 최초로 미 육군보병협회 '성 모리스' 훈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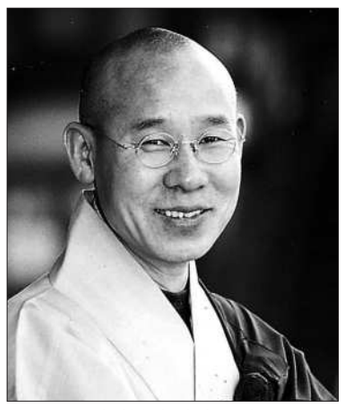


부산파라미타 사무실 개소

백명숙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은 6월 22일 부산 서면문화로 유원골든타워 1206호에서 단독 사무실을 개소했다.

제31회 不二賞 덕신 스님·주경미

분야별 상금 2000만원…
시상식 7월 5일 서울 신라호텔



실천분야 덕신 스님



연구분야 주경미 전문위원

여성불자모임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제정한 '불이상(不二賞)' 제31회 수상자로 실천분야에 좋은벗풍경소리 회장 덕신 스님, 연구분야에 주경미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이 선정됐다.

실천분야 수상자 덕신 스님은 교계 최초로 장애인 포교단체 원심회를 창립, 다양한 점자불서와 수화교재를 제작하고 한글 및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봉사 · 포교활동에 힘 쓴 점이 공로로 인정됐다. 특히 현재 좋은벗풍경소리 회장으로 활동하며 찬불가 발전과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 불교문화 발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69년 출가한 덕신 스님은 1977년 법주사 승가대, 1986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국장 · 사회국장 · 문화국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구 대륜사 주지소임을 맡고 있다. 1992년 조계종 포교대상 특별상, 2002년 세계인권선언기념 국민훈장 동백장, 2014년 제2회 불교음악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구분야 수상자 주경미 전문위원은 불사리 장엄구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불교 금속공예분야 발전에 공헌한 점이 인정됐다. 뛰어난 외국어 능력과 광범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인도와 서역, 동남아 등지를 아우르는 폭넓은 연구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외 학계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국을 넘어 세계 불교학회가 주목하고 있는 학자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이다.

주 전문위원은 1991년 서울대 공예과 금속전공 미술학사, 1995년과 2002년 동대학 고고미술사학과 미술사전공 문학석사와 박사를 각각 취득했다. 현재 부산광역시 문화재 전문위원, 충남대 시간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0만원이 각각 수여되며, 시상식은 7월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한편 불이회는 한국불교 발전과 재가불교, 여성불교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코자 1974년 창립된 모임이다. 이후 1986년 한국불교 중흥의 선구적 역군이 될 인재를 육성하고자 불이상(不二賞)을 제정, 불교발전에 기여할 유망학자와 선행 · 포교에 있어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 등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를 포함해 총 88명이 수상했다. 윤호섭 기자

"다문화시대 '중도입국자' 개념조차 몰라"

Interview

마주협 신임 상임대표 정호 스님



"수도권 내에만 약 8000명의 중도입국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과 복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입국자에 대한 개념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불교계 이주민 지원 NGO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이하 마주협)' 신임 상임대표로 선임된 정호 스님〈사진〉이 6월 20일 기자간담회서 중도입국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도입국자'는 외국서 출생 후 부모의 재혼 · 취업 등으로 함께 한국에 입국한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 및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를 일컫는다.

"성장기에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들어온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이질감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부모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 등을 알려주고,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서지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마주협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2006년 창립 후 이주노동자 인권 및 근로문제 등에 주력해왔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각 지방에 마련된 10개 이주민 법당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구체적 사업도 구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호 스님은 '불자 이주노동자를 위한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불자 이주노동자 복지센터'는 2012년 대선 당시 여당서 불교계 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하루빨리 공약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계종 사회부 측에 협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종령기구로서 편입도 추진,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이주민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한편 정호 스님의 임기는 앞으로 2년이다. 공동대표는 진오 · 도제 · 지관 · 호산 · 정문 스님이 맡고 있다. 박아름 기자

만해 詩 '알 수 없어요' 작·편곡 첫 공연

선학원, 18일 국립극장서 제2회 만해예술제

'님의 침묵' 창작안무 선봬



만해 한용운 스님의 입적 72주기를 맞아 스님의 유훈과 정신을 기리는 문화행사가 열렸다.

(재)선학원(이사장 법진)은 6월 18일 국립국장 KB청소년 하늘극장에서 '제2회 만해예술제'를 봉행했다.〈사진〉 '거짓의 시대, 만해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만해예술제는 새로이 선보인 창작 안무와 만해 시 창작곡 등으로 꾸며졌다.

이날 만해예술제에는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비롯한 재단 임원진, 장로, 지역 범행단장 스님과 각 분원장 및 신도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사장 법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님만이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라 하신 만해 스님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일련의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지러운 시대에 밝은 등불과 같았던 만해 스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의 가슴에 되새길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만해예술제는 제1부는 8개 분원 합창단이 마련한 추모합창제, 제2부는 새롭게 선보인 창작안무 등 시와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종합추모예술제로 진행됐다.

특히 한승석 중앙대 전통예술학부 교수는 음악가 정재일 씨와 함께 만해 스님의 시 '알 수 없어요'를 작곡과 편곡해 이날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입적 72주기 만해 스님 추모다례재는 오는 6월 29일 오후 4시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신성민 기자

"피해자 명예회복 끝 아니다"

법난심의위 해단, 7월부터 문체부 소속 변경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지현)는 6월 20일 서울 인사동 동덕빌딩 9층 사무처에서 해단식을 실시, 7월 1일부터 문체부 소속으로 변경된다.

법난심의위는 2008년 12월 30일 10.27법난 관련 법령이 반포되며 출범했다. 당초 활동기한이 2010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법률을 개정,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윤호섭 기자

해인사, 김영환 장군 추모재

6월 20일 대적광전서… 200여 명 참석



한국 전쟁 당시 해인사 폭격 명령을 거부하며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故 김영환 장군(1921~1954)을 기리는 호국추모재가 6월 20일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향적)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재에는 하창환 합천군수, 노병균 공군교육사령관, 최영훈 공군역사기록단장을 비롯해 공군 관계자들과,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사찰서 우주탐험 꿈꿔봐요"

불교스카우트, 용인 법륜사서 항공과학캠프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6월 18~19일 용인 법륜사에서 '항공과학캠프'를 열고 대원들의 재능을 개발하는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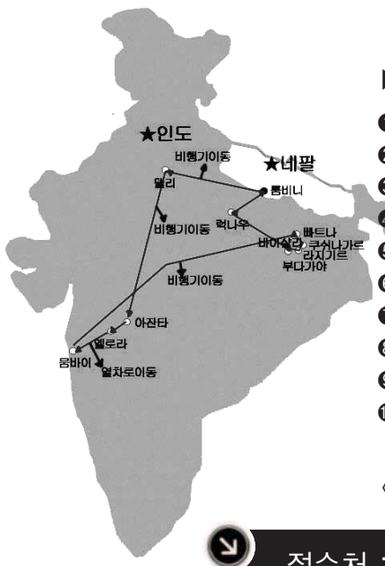
수도권 사찰 소속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항공과학캠프는 비행원리 이해 · 항공우주과학 미래 등 이론강의와 더불어 글라이더 및 에어로켓 만들기 등의 체험이 진행됐다. 윤호섭 기자

제108차 천룡사 신행기도회 동참 안내

2016년 12월 9일부터 ~ 21일까지 (13일 일정)

천룡사 신행기도회에서는 108번째로 맞이하는 신행기도를 부처님께서 탄생과 출가, 성도와 전법轉法, 열반涅槃에 드신 성지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갑니다. 108차 신행기도信行祈禱는 천룡사 주지 무등無等 스님과 함께 떠나며 인도印度 아잔타 석굴사원과 엘로라 동굴을 순례하는 거룩한 인연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천룡사 108차 신행기도회 부처님 나라 성지순례에 함께 하실 분들은 종무실로 접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행기도회 예상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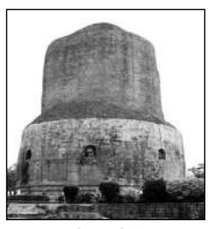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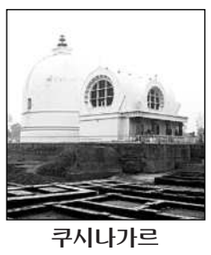
▶성지순례지◀

❶ 룸비니(부처님의 탄생지)
❷ 부다가야(깨달음을 얻으신 곳)
❸ 사르나트(처음 설법하신 곳)
❹ 쿠쉬나가르(열반에 드신 곳)
❺ 라즈기르(왕사성)
❻ 스라바스티(기원정사)
❼ 바이샬리(마지막으로 설법하신 곳)
❽ 상카시아(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신 곳)
❾ 나란다(불교 최초의 학교)
❿ 피르라화 : 카필라 바스투(사키아)족의 도읍지로 예상

〈인도 국내선 비행기 3회 이용〉


룸비니동산


사르나트


쿠시나가르


부다가야

접수처 : 천룡사 종무실 062)234-1338, 010-8932-1825

제14회 대원상(大圓賞)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에서는 설립자인 고(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창출 · 장려하기 위하여 포교대상과 콘텐츠대상으로 구분하여 제14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상세는 본원 홈페이지 및 월간 「불교문화」 공모 내용을 필히 참조 바람.]

● 포교대상

공모 부문(개인 또는 단체)
① 출가 부문
② 재가 부문

상금 : 총액 5,000만 원 이내

수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
① 출가 부문
- 3인(곳) 이내 시상
-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는데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또는 스님 중심의 단체/기관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

② 재가 부문
- 3인(곳) 이내 시상
-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

● 콘텐츠대상

※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할 내용(주제 및 소재)의 콘텐츠

공모 부문(개인 또는 단체)
① 텍스트 · 이미지 콘텐츠
② 오디오 · 영상 콘텐츠

상금 : 총액 4,000만 원 이내

* 오디오 · 영상 콘텐츠는 DVD나 USB 등으로 제출할 것.

※ 각 시상 분야에 대해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할 수 있음.
※ 후보자 또는 후보 작품들이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 ·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수상 부문 및 상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및 절차

제출서류 : 제14회 대원상 수상 후보 소정양식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접수기간 : 2016년 9월 19일(월) ~ 9월 30일(금)

접수 및 문의처 :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주소 :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전화 : (02) 719-2606, 1855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시상식 일정 : 추후 발표함.

대한불교진흥원



6월 18일 발대한 서울파라미타 문화재지킴이단원들은 적극적인 문화재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단원들은 봉은사 탐방〈사진 왼쪽〉과 '도전! 골든벨'〈사진 오른쪽〉 등을 체험했다.

민족의 '얼' 담긴 문화재… "우리 손으로 지켜요"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봉은사서 발대
서울파라미타 주관, 내년 초까지 활동

"8세기 중엽에 간행된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본으로 1행 8~9자의 다라니경문을 두루마리 형식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1966년 10월 경주 불국사 석가탑을 보수하기 위해 해체할 당시 탑 안에 있던 다른 유물들과 함께 발견된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6월의 세 번째 주말.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서울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주최한 '전통문화 바로 알기 도전! 골든벨' 현장. 수십 명의 학생들이 각자 앞에 놓인 화이트보드에 정답을 적기 위해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금 떠올리는 데 열중이었다.

"자, 정답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주세요!"

사회자의 신호에 따라 학생들이 화이트보드를 들어올렸다. '팔만대장경' '초조장경'을 비롯한 다양한 경전과 더불어 '이게 뭐야' '잘 몰라요' '친구야 미안해' 등 각양각색의 답이 나왔다.

"정답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입니다."

"아~~~"

일순간 환호와 탄식이 섞였다. 정답을 맞힌 학생들은 화이트보드를 힘차게 흔들었고, 오답을 쓴 학생들은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문제 하나에 생존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문화재와 불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경쟁한지 1시간 남짓. 드디어 우승과 준우승을 나누는 문제가 등장했다.

"대웅전의 주불로 봉안되며 선정인 · 항마촉지인 · 전법륜인 · 시무외인 · 여원인 등의 수인을 하고 있는 부처님은 누구일까요?"

'석가모니불'과 '비로자나불'. 서로의 답이 갈렸다.

"정답은 석가모니불입니다. 축하합니다."

동대부고 2학년 주형준 군의 우승이 확정되자 같은 학교 친구들의 환호성이 법당을 가득 메웠다. 타학교 학생들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도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우승자와 준우승자에게는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주형준 군은 "200개의 예상문제를 하루밖에 공부하지 못했는데 우승하게 돼 기쁘다"며 "동대부고 파라미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재를 좋아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준우승을 차지한 최한결 군(광신고 2)은 "정말 1등하고 싶었는데 실수로 문제를 틀려 아쉽다"면서 "평소 불교나 문화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행사를 위해 공부하다보니 불교와 문화재에 많은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아깝게 떨어져 아차상을 수상한 동대부여고 학생들은 우승자를 부러워하면서도 "나란다축제에서 보란 듯이 대상을 차지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서울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이날 경인지역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문화재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전 골든벨' 역시 이 일환이다. 10여개 학교 200여 명의 중 · 고등학생이 참가한 행사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문화재지킴이 교육, 문화체험활동 등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앞으로 내년 2월까지 파라미타청소년협회원으로 활동하며, 문화재답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문화재 보존활동을 다짐하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있는 문화재지킴이단원들.

10여개 학교 200여명 참가
문화재 대한 청소년 인식 높여
모니터링 · 답사 · 교육 등 계획
"보존활동, 우리 사랑하는 길"



학생들이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부처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고 있다.

발대식에서 학생들은 대표학생이 낭독한 선서문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문화재 보전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봉은사 포교국장 환성 스님은 "문화재가 얼마나 귀중하고 많은 노력으로 관리되는지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생들은 문화재 모니터링 사전교육과 골든벨이 끝난 뒤 학교별로 봉은사 일대를 답사하며, 값진 문화재와 한국불교의 가치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

봉은사 석불 앞에서 만난 이동민 군(정석항공과학고 2)은 "문화재가 좋아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동참했다"며 "문화재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군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곧 우리를 사랑하는 길"이라며 "앞으로 많은 문화재를 답사하고 느낀 점을 차근차근 정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 사업 일환인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은 민관협력운동으로 문화재의 현대적 의미를 공유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나누기 위한 현장봉사활동이다. 현재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위탁관리 운영하며 문화재 순찰 및 홍보, 정화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소년에게 문화재가 갖는 의미를 알리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우리 삶을 바꾸는 기적, 절 수행!

청견 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다스려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절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생생한 경험담!



다르마킹 칼리지
매주 화~토 오후 2시
절 교육 및 수행 점검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 스님의 신작!

전국에 108배 열풍을 일으킨 청견 스님이 그동안 천만 배의 절을 하며 체험한 이야기들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울림들을 담았다.

현대인이 겪는 몸과 마음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절 수행의 기본 동작부터 마음가짐,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첫 책보다 더욱 깊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간중간 그려 넣은 다양한 일러스트는 책을 보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청견 스님 지음 / 신국판 / 328쪽 / 값 15,000원

깨달은 공동체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 전화 010-3487-0035 ● www.법왕정사.net ● 판매총판 : 운주사 02-3672-7181 ● 인터넷서점: 붓다북

우리도 삼둥이처럼 절에서 여름을…

전국 교구본사 등, 어린이 여름 템플스테이 '다채'

원어민 함께하는 '영어 템플'
치즈 만들기 · 호신술 · 승마 등 프로그램 해마다 업그레이드


여름방학을 앞두고 전국 사찰은 어린이 템플스테이 준비에 한창이다. 사진은 지난해 경주 골굴사서 진행된 '청소년 화랑캠프'서 참가 학생들이 국궁 수련 중인 모습.

신나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전국 사찰에선 천진불 맞이가 한창이다. 올 초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서 송일국의 세 쌍둥이가 마곡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며 어린이 템플스테이 인기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사찰 예절 및 인성 교육 · 전통문화체험은 물론, 치즈 만들기와 물놀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천진불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찰 몇 곳을 소개한다.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7월 29~31일 '원어민과 함께하는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모집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으로, 선착순 30명이다.

프로그램은 △나 알리기 '삼사라' △한국불교 및 불교문화 배우기 △마음 그리기 'Mind Sketching' △연등 만들기 △국제매너교육 △영어 일기 쓰기 △소금 만다라 △스님과의 차담 등 다채롭게 마련됐다.

특히 이튿날인 30일엔 야외체험학습으로 강화자연체험농장서 떳목타기 · 머드체험 등 농장체험이 진행된다. 참가비 15만원. (02)2650-2200

남양주 봉선사(주지 일관)는 7월 28~30일 '어린이 여름 숲속학교'를 연다. 프로그램은 △사찰예절 및 찬불가 배우기 △발 밑 살펴 걷기 △비밀의 숲, 국립수목원 산책 △사찰 알아보기 △사찰음식 만들기 및 식사 △수영 △캠프파이어 및 장기자랑 등이 진행된다.

특히 3일 차엔 아이들이 만든 사찰음식을 부모님과 함께 먹는 자리도 마련된다. (031)528-1950

공주 마곡사(주지 원경)는 8월 4~6일과 11~13일 2차에 걸쳐 '수리수리 숲소리 어린이 캠프'를 개최한다. 7세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 참가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공주치즈마을 체험(피자 · 치즈 만들기) △국립공주박물관 견학 △어린이 108배 △스님과의 대화 △스님과 백범김구 명상길 포행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 12만원. (041)841-6221

김천 직지사(주지 흥선)는 8월 3~5일 '여름방학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으로 한정된다.

조계종 포교원 인증 '마음등불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선 △마음등불 영상 시청 △108번뇌 비우기 및 마음정화 △숲길 걷기 △부모님께 편지쓰기 △108염주 또는 연꽃컵등 만들기 △공감 토크 콘서트 △멘토와의 대화 △심리치유-가족역할극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참가비 6만원. (054)429-1716

합천 해인사(주지 향적)는 여름수련회 '산사에서 행복한 나'를 개최한다. 총 4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여름수련회 일정서 초등부는 8월 2~4일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사찰예절 배우기 △예불 및 108배 △해인사 탐사 및 박물관 견학 △부처님 공부 △암자 순례 △물놀이 △공동체 놀이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 10만원. (055)934-3110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7월 29~31일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내 마음 속 부처님을 찾아서'를 개최한다.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120명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부처님 일대기 공부 △범어사 탐사 및 박물관 견학 △암자 순례 △물총 놀이 △모닥불 놀이 및 장기자랑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 10만원. (051)508-3122

양산 통도사(주지 영배)는 7월 27~29일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초등부 전 학년 참여가능하며, 프로그램은 △사찰문화체험 △합장주 및 소원등 만들기 △사찰안내 △계곡 물놀이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등이 마련된다. 참가비 15만원. (055)384-7085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는 7월 24일~8월 20일 '청소년 화랑캠프'를 개최한다. 초 · 중 · 학생 참여 가능하며, '화랑캠프' 답게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들이 다수 마련됐다.

세부 프로그램은 △선무도 수련 △호신술 △승마 및 국궁 △주상절리길 등 경주문화유산 답사 등이다. (054)775-1689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후손의 행복, 순국선열 희생 덕분"

군종교구,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호국영령 천도법회


호국영령 천도법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영가 이운을 하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의 희생을 되새기고, 국가발전을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6월 19일 용산 전쟁기념관 중앙광장에서 6.25전쟁 전사장병과 군복무 중 순직한 호국영령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제16회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과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김현집 국군불교총신도회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동참했다.

천도법회는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 정오 스님을 비롯한 의전단 스님들의 영가청혼과 천도의식, 추모법회, 문화행사 등이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동참한 사부대중에게는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주먹밥이 제공됐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대독한 영가법어를 통해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장엄한 천도법석에 오셔서 무량한 열반락을 누리길 손 모아 바라온다"면서 "후손들이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봉행사에서 "6.25전쟁에 참전한 16개국 등 당시 독립국가 93개 나라 중 총 60개국이 병력, 의료, 물자복구 등을 지원해줘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켜줬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땀으로 보답해주는 나라로 변모했다. 호국불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더 안정되고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현집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은 사부대중을 대표해 "투철학 국가관과 확고한 호국의지를 견지하고 앞서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경건히 합장하며 겨레와 나라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이 완수하겠다"고 발원했다.

한편 군종교구는 오는 6월 25일 육군 5군단 법당 호국금강사에서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을 증명법사로 초청, '제33회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BBS, 난치병 환아 치료비 4,500만원 전달

6월 20일 조계종복지재단 측에
4월부터 6회 방송 '거룩한 만남' 통해 모연



BBS불교방송은 6월 20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측에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를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는 선상신 BBS 사장(사진 왼쪽), 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오른쪽)이 자리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과 BBS불교방송은 6월 20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서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된 기금은 4,500만원. 난치병 환아 6가정의 삶을 담아 4월부터 총 6회에 걸쳐 방송된 BBS '거룩한 만남'을 통해 모연됐다.

불교방송 측은 "사회 ·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며 "조계종복지재단의 난치병 어린이 지원 사업에 대해 많은 분의 관심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계종복지재단 측은 "앞으로도 더 많은 난치병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이날 전달된 모연금과 함께 서울 조계사 및 전국 사찰서 시행한 '제16회 난치병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 현장서 모연된 금액, 온라인 모금액을 합해 총 1억3,000여만원의 기금을 7월 경 난치병 어린이를 위해 전달한다. 이에 앞서 7월 초 선정회의를 개최하고 생활환경 및 치료의 시급성을 고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지리산 실상사, 4박5일 '여름학림' 연다

남원 실상사가 4박5일 집중수련 템플스테이 '여름학림'을 마련했다.

7월 27~31일 열리는 1차 학림 주제는 '마음 챙기는 공부, 이론과 실제(대념처경을 중심으로)'다. 강의는 초기불전연구원 각묵 스님이 맡는다. 스님은 〈대념처경〉과 이에 관한 빠알리어 주석 문헌을 옮긴 〈네 가지 마음챙기는 공부〉를 교재로 마음챙김에 관한 이론적인 공부와 좌선수행을 병행할 예정이다.

8월 3~7일 열리는 2차 학림은 '아비달마'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혜도 스님이 강의를 맡아 불교의 전문용어를 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교재는 〈아비달마 불교〉(권오민, 민족사).

각 차기별 선착순 20명 모집하며, 동참금은 30만원. 윤호섭 기자

"먼저 간 동생 뜻 이어 매달 20만원 기부"

故임영규 씨 2008년 첫 후원… 누나 임점자 씨 지속 후원

생전 작은 돈이라도 남을 돕는 일에 아끼지 않았던 사촌동생의 뜻을 이어(재)아름다운동행 측에 매달 20만원을 기부하는 임점자(70 · 부산) 씨. 사촌 간 따뜻한 미담이 알려지며, 팍팍한 우리네 삶에 단비가 되어주고 있다.

故 임영규 씨는 2008년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설립 당시부터 월 20만원의 후원금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6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동생이 남긴 돈으로 기부를 계속한 사촌누나 임점자 씨 덕분.

임 씨는 "동생이 어느 날 아름다운동행 소식지를 보고 '불교에도 이런 기부단체가 있구나' 하며 기뻐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몸은 불편했지만 남 돕는 일에 기꺼이 나섰던 동생의 뜻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고 말한다.

이어 임 씨는 "동생이 가족들을 위해 써달라며 여윳돈을 남겨줬다. 하지만 그 돈을 아름다운동행에 계속 기부한다면 분명 동생도 하늘나라서 웃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사실 임 씨가 계속 기부를 결정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먼저 떠난 임영규 씨의 치매 걸린 노모를 임 씨가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도 임 씨는 매일 아침을 어려운 이웃들과 가정의 평안을 위한 기도로 시작한다.

"요즘 개인적인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선뜻 기부하기 힘들 때가 있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많은 불자들이 자비심을 모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기부하는 분들이 많다"며 "직접 찾아뵙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진 못하지만, 아름다운동행에 보내주는 믿음과 나눔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저소득가정 지원 사업에 정기기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www.dreaminus.org) 또는 전화(02-737-9595)를 통해 가능하다. 후원금은 국내 저소득가정 생계비 및 청소년 드림플러스 장학금,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위해 사용된다.

박아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3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6월 30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7월 1일 (금요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선무도 화랑학교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여름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49회)에 함께 하세요.

불교강의와 인성교육, 명상과 선무도, 원어민 선생님의 영어강의 등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입니다.

언 제 2016년 7월 24일~2016년 8월 20일
모집인원 60명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5시까지 입교. 토요일 12시 퇴교
대 상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평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운영)
준비물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우산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수련회비 1주-35만원 / 2주-70만원 / 3주-90만원 / 4주-11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예약·문의 054-775-1689 / 744-1689
www.sunmudo.com
♣ 수료식은 골굴사 선무도 대학에서 토요일 11시에 합니다.

◉ 기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불교강의, 108배
◉ 영어캠프 : 선무도를 수행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영어캠프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 매주 색다른 생태순례 : 감포깍지길 걷기 / 토함산 풍차마루 트래킹 / 벽화마을,주상절리길 / 박물관 및 경주문화유산탐방
◉ 자아성찰 : 자비관 명상, 자자회, 자기바라보기



나는 나, 부처는 타인 때문에 운다

참불선원 불교인문학 강좌… 원효, 부처의 삶

철학자 강신주 박사

신라시대 의상대사와 함께 불교중흥에 큰 기여를 한 원효대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원효에 대해 '해골물 일화'를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원효는 '일심(一心)'과 '화쟁(和諍)'을 중심으로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이런 그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면 어떤 의미가 될까? 철학자 강신주 박사는 6월 20일 참불선원에서 열린 인문학강좌서 "해탈과 자비는 같다. 무상함을 깨달아 허무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이승희 수습기자



강신주 박사는… 연세대 대학원 철학과에서 「장자철학에서의 소통의 논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 상상마당 등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출판기획사 문사철의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삶의 핵심적인 사건과 철학적 주제를 연결시켜 포괄적으로 풀어낸 철학서를 다수 펴냈다. 동양철학 전공자이면서 서양철학의 흐름에도 밝아 쉽게 읽히는 철학을 지향한다. 주요 저서로는 〈철학이 필요한 시간〉〈철학, 삶을 만나다〉〈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상처받지 않을 권리〉〈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등이 있다.

해탈은 반드시 자비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는 '고급 서비스 산업'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는 대가로 보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래 불교의 전통은 굉장히 래디컬(radical:급진주의적)합니다. 선불교의 핵심은 바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와 사랑이 같은 의미임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자유에 해당하는 것은 '해탈'이고, 사랑은 '자비'입니다. 즉 '자유=해탈'과 '사랑=자비'가 같은 뜻입니다. 결국 '해탈=자비' 공식이 됩니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 묶여있는 마마보이가 여인을 사랑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해탈은 '마음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해탈이 자비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정신승리일 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집착과 애착을 끊으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착하는 대상만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대상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착'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만약 내 가족을 사랑하는 집착의 힘을 좋은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더 큰 사랑으로 발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해탈과 자비가 같다'는 말을 일상적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오늘 강의할 '원효'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원효는 스님입니까? 아니죠. 파계한 이후 소성거사(小性居士)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신분입니다. 원효는 '자리이타(自利利他)'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나는 자주 사람들에게 해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해탈하면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와 남편, 가족만 챙기지 않게 됩니다. 해탈의 자유를 얻게 되면 세상 모든 것들에 아파합니다. 그러니 속된 말로 '대략 난감'이죠. 누군가를 돕는이들을 보면 '참 자유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해탈하면 집에서 돈이 많이 새어나갈 겁니다. 어쩌면 작은 보시할 정도만큼만 해탈하는 게 우리들에겐 더 나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해탈했을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비행이 터지게 될 거란 사실을 잘 안 사람이 원효입니다.

괴로운 이들이 눈에 밟혀

원효를 소개할 수 있는 〈문무관〉 속 화두 한 가지를 얘기해보겠습니다. 황소 한 마리가 미닫이문 격자틀을 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소는 아마 '해탈'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꼬리가 나오지 못했단 겁니다. 화두는 왜 나오지 않았을까를 묻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황소가 나왔으니 꼬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인도 고대 경전에서 '코끼리와 꼬리' 이야기로 전해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선 우리가 해탈을 했어도 습관이나 고질적 병폐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런데 〈무문관〉은 다릅니다. 선사들은 인도 경전의 해석을 그대로 베껴올 분들이 아닙니다. 답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합니다. 저는 방안에 갇혀 있는 이들을 위해 꼬리라는 실마리를 황소가 남긴 것이라고 풀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비심' 아닌가요?

한 사람이 해탈했을 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밟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주위사람들을 되돌아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유로워지면 세상의 고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꼬리를 빼지 않는 황소의 의지는 비장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꼬리란 '설법'이나 '경전'일지도 모릅니다. 선사들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불립문자'를 내세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을 수 있으나, 스님들은 경전을 남겼습니다.

원효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서라벌'일 겁니다. 신라시대 당시 원효가 어떻게 살았는지 가늠해보면 이해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찰은 황룡사와 분황사입니다. 황룡사는 지금 목조건물 터만 남았습니다. 황룡사는 국가사찰로서 궁궐 바로 앞에 자리했고, 도금된 커다란 불상과 9층 석탑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분황사는 황룡사를 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황사 바로 뒤편에 저잣거리가 있었습니다. 원효 뒤에는 저잣거리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분황사에서 원효는 누구를 지키고 섰던 걸까요? 왕실 사람들일까요, 저잣거리 사람들일까요? 문득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어떤 종교인이 국가권력과 맞붙을 수 있을까요? 약자들의 시위 현장에 스님들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탈과 자비 근본적으로 동일
세상 모든 것에 아파하게 돼
계급 없는 불국토 주장한 원효
세상 아픔 그대로 받아들였다

신라 왕실은 정권 정당화를 위해 스스로를 '전법왕'이라 칭하고 민중의 해탈을 명분으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왕족들 입장에서 보면 원효는 '위험분자'였습니다. 에피소드 하나를 들어보시죠. 원효가 길을 걷다가 "나에게 자루 없는 도끼를 달라. 그러면 하늘을 지탱하는 기둥을 만들겠다(誰許沒柯斧我斫支天柱, 수허몰가부아작지천주)"고 말했다는 얘기가 전해옵니다. 이 전설은 원효를 폄하하는 근거로 아직도 인용됩니다. 원효가 후사를 얻을 여자를 청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중국 한나라 시대 저서 〈춘추번로〉에 보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은 왕을 의미합니다. 또 〈한비자〉에 군주는 '상'과 '벌'이라는 두 자루를 쥐고 있어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게다가 작(斫)은 쪼개다는 뜻 이외에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재구성하자면 원효는 왕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했던 셈입니다. 사람을 해할 수 없는 '자루없는 도끼'로 왕을 없애야 불국토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거센 주장이니 기득권이 위협을 느꼈을만합니다.

원효 철학의 깊이

〈대승기신론〉은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는 저서입니다. 원효는 이 책에 주석을 달아 〈대승기신론 소·별기〉를 지었습니다. 기신론의 핵심은 '일심이문(一心二門)'입니다. 마음에 진여문과 생멸문 두 개의 문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대승기신론에 여러분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 마음에 부처와 중생의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해탈로 가는 진여문으로 나오면 부처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속으로 향하는 생멸문이 닫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도 방심하면 필부가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일심'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원효는 기신론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완벽한 저서를 남겨 기신론을 찬란히 빛나게 했습니다.

원효의 주석을 보면 '생멸이란 마음이 생겼다 멸했다하는 것이며, 집착같은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생이 마치 조울증 상태인 겁니다. 생멸은 자기 집착에 갇혀있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무언가 없어졌을 때 찾아옵니다. 만약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만 알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빈 호주머니를 돈이 없어진 호주머니가 아니라 그냥 호주머니로 봐야합니다. '없다'는 개념은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있다는 기억'이 있을 뿐입니다. '없음'에 사로잡혀 좁게 보면 주위를 둘러보지 못합니다.

진여문을 통과하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내 마음이 날뛰어 세상을 왜곡하지 않고, 물에 비추듯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맑고 고요한 물은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그때 생멸의 흔들림은 처음의 흔들림이 아닙니다. 비록 처음 마음속 요동은 나 때문에 생겨났지만, 결국 세상이 아프기 때문에 나 또한 흔들립니다. 우리는 타인 때문에 흔들리며,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남이 아픈데 내가 아픈걸 느끼면 자비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해탈에 이르면 너무나 섬세한 마음 때문에 남을 보고 아파합니다. 부처는 타인 때문에 웁니다.

〈금강삼매경론〉에는 용왕이 원효에게 〈금강삼매경〉의 주석을 맡겨 저술하게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강삼매경〉은 용왕 소유이므로 그 실체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본 학자들은 원효가 만주지역 경전 중 하나를 위조했다고 폄하했습니다. 그러자 국내 한 학자가 오히려 '그래, 우리는 경전을 만들었다'며 반격을 했답니다.

원효는 경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불교 전반을 깊이 이해한 대학자입니다. 저는 원효가 〈금강삼매경〉도 〈금강삼매경론〉도 저술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책은 〈대승기신론〉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열반에 이르면 열반에 이를 수 없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열반에 이르면 평화의 순간은 잠깐이고, 맑은 물이 바람에 요동치듯 세상 모든 고통을 섬세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다시 평화롭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깨친 이는 열반에 머물러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열반을 감당할 수 있나요? 내 아이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아이들을 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반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만 열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 풍파에도 꿈쩍 않는 얼어붙은 마음은 차라리 죽어버린 마음입니다. 마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아픔이 느껴져 마음이 팔딱팔딱 뛰어야 합니다. 그러니 원효가 본 당시 서라벌은 굉장히 마음 아픈 모습이었을 겁니다. 민중들은 계급으로 산산이 조각나고, 전쟁에 동원돼 죽음을 맞았습니다. 원효는 분황사에 머물며 민중들을 위한 불국토 건설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원효를 좋아하는지 아시겠나요? '열반에 이르면 열반에 머물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불교의 핵심은 초지일관 '자비'입니다. 무상함을 깨달아 허무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나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극도의 감수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비는 매우 강도가 세고, 실천적인 개념입니다. 자비를 행하고 선업을 쌓으세요. 대가는 없습니다.

백발백중 백초귀장술 특강

창시자 백초스님 직강

1 역학을 배우고 상담 업을 시작하시려는 분! (꼭 필요함)
2 역학공부 안하고 신도가 물을 때 옳은 답변 쉽게 하고 싶으신 스님 분!
(조상 뽑기 쉬워서 천도재 집전 불사가 쉽습니다.)
3 영험하고 신통한, 남다른 상담을 하고 싶은 분!
4 신 받았는데 아무 것도 점사가 안 떠오르는 신제자 분들!

확실하고 & 신통한 비법 전수해드립니다. 적중률 95%

□ 백초귀장술 책 이외의 특수비법과 실전노하우 전수 위주로 3개월간 주 1회씩 진행됩니다. 강의 듣고 나면 바로 활용 가능함.
□ 한문 몰라도 되고, 역학 몰라도 쉽게 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수강료 : 1일 일십만원. 10만원 농협 302-4233-7099-41(김경석)

【서울 강의】 7월 3일 일요일 오후 1시 특강
□ 강의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2-50 유빌딩 301호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7번출구 3분거리 /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10분거리입니다.

【대전 강의】 7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특강
매주 금요일 연속 7회로 완전 마스터 해드립니다.
□ 강의 장소 : 대전 서구 괴정동 423-3 오렌지타운 515호
롯데백화점 옆, 파리바게트 건물, 주차는 건물 뒤 지하주차장

백초율력학당 연락처 010-3813-4443. 010-4233-7099
Cafe.naver.com / 백초율력학당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쉽게 배울수 있습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 (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6. 7. 9 (토) 오후 1시부터 ~ 7. 10 (일) 오후 4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0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 (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313-3060
※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화)

※ 교재 : 10,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티베트대장경역경원 티베트어 무료 강의

6월 29일~7월 27일까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여름방학을 맞아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티벳어 무료 강의를 실시한다.

티베트 불교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어학 강의는 동국대 티베트대장경역경원 이지현 전임연구원이 초급 티베트어 회화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교육은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백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은 지난 2009년에 설립돼 티베트대장경 역경사업을 위한 티베트어 한글표기안, 티베트어 교재 발간 및 석학들의 특강, 국제학술대회 개최, 번역서 출간 등 다양한 사업과 관련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054)770-2893 신성민 기자

화계사 소장 성보 8점 서울 유형문화재 된다

9일 지정예고 공고

서울시는 6월 9일 화계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아미타괘불도 등 화계사 소장 성보문화재 8건을 비롯해 도안사 은선묘아미타삼존도 등을 시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했다. 이와 함께 호림박물관 소장 지장시왕도 등 4건을 문화재청에 보물로 지정신청한다고 밝혔다. 화계사는 1522년(중종 17) 창건 후 광해군 때 화재로 소실됐다가 1866년(고종 3) 흥선대원군의 시주로 보수 및 중창됐다.

목조관음보살좌상은 가부좌를 하고 있으며,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복장유물로 1634년 용복사 간행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5 1책, 1635년 〈범망경노사나불성보살시지계품〉 3책과 1635년 희용사 간행 〈염불작법〉 5책 등이 나와 17세기 불상으로 추정된다. 화계사 아미타괘불도는 현종의 모친인 대왕대비 조씨와 왕대비 홍씨, 상궁들이 대거 참여해 발원해서 조성됐다. 이와 함께 오여래도와 인로왕보살도, 괘불함도 일괄 지정예고 됐다.

한편, 30일 이상 서울시보에 공고된 지정예고 문화재는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된다. 신성민 기자


김희경 소장과 최선일 위원이 6월 18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학술대회서 공개한 고성 옥천사 도난 나한상들. 이중 4 · 5번 나한상은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1 · 2 · 3번 나한상의 모습은 처음 확인됐다.

도난 옥천사 나한상 진본 사진 최초 공개

김희경 · 최선일, 동북아불교미술硏 학술대회서

도난된 나한상 사진 5점 공개
미확인만 3점… 백서에도 없어
도난유물 모두 손에 지물 '특징'
"유통 · 판매 용이한 작품들 절도"

옥천사 나한상 제작 '색난' 추정
정수사 · 능가사 색난 작품과 유사
원할한 연구위해 옥천사와 MOU

도난된 옥천사 나한상의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있는 사진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도난 문화재 환수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김희경 한국고미술감정연구소장,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6월 18일 열린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학술대회에서 도난 이전에 촬영된 고성 옥천사 나한전 나한상 5점의 사진을 공개했다.

현재 나한전 16나한상은 1988년 7구가 도난됐다. 다행히 이중 2점은 2014년 은닉한 사립박물관장을 체포하고 해당 유물을 환수 조치했다. 현재는 5점의 나한상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김희경 소장과 최선일 위원은 '고성 옥천사 목조나한상의 작가와 제작시기 추론'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현재 도난중인 5점의 사진을 학계에 최초로 공개했다. 이들 사진은 안귀숙 박사가 1980년대 연구를 위해 전국을 다니며 촬영한 것으로, 현재까지 옥천사 나한상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특히 이중 3점은 조계종이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도 없는 사진으로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된다.

이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최 위원은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살펴보면 총 6구의 도난상이 소개되었는데, 그 가운데 3구의 나한상은 현재 나한전에 봉안되어 있는 유물들"이라며 "아직 나한상 5점이 옥천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들이 백서 · DB에 반영돼야 은닉 · 유통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 공개되면서 도난 나한상의 특징도 분석이 가능해졌다. 최 위원은 "도난 나한상은 모두 손에 지물을 들고 있다"면서 "절도범들은 나한상 중 작품성이 뛰어나 유통이 용이한 유물을 훔쳐갔다" 또한, 김 소장과 최 위원은 옥천사 나한상을 조성했던 조각승으로 색난 스님이 제작한 것이라 주장했다.

색난 스님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까지 고흥 능가사에 거주하면서 호남과 영남에 상당히 많은 불상을 제작한 작가이다. 특히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에 있어서 색난 스님이 가지는 명성과 위치는 크다. 조선 후기 나한상 중 현재까지 제작자와 연대가 확인된 것은 20여 건이지만, 이중 6점이 색난 스님과 그 계보에 의해 만들어졌다.

두 발제자는 우선적으로 색난이 제작한 강진 정수사(1684), 고흥 능가사(1685), 구례 천은사(1693), 해남 대흥사(1701) 나한상과 옥천사 나한상을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장방형 얼굴에 윗부분을 넓게 해 역사다리 꼴을 보이는 것 △원두령 내의를 입은 나한상 비중이 높은 것 △색난 작 나한상 특유의 손가락 표현 △대좌에 걸친 발의 모습 등에 유사성이 확인된다고 발제자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이런 양식들은 다른 계보를 가진 나한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옥천사 나한상은 색난이나 그 계보에 의해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시기적으로는 1680년대 나한상보다는 1693년 천은사, 1701년 대흥사 나한상과 유사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조태건(불교문화재연구소)의 '고성 옥천사 명부전 불상과 조각승 경옥' △김요정(충북대)의 '옥천사 목조불패 연구-재질과 제작연대를 중심으로' △김정원(불교문화재연구소)의 '옥천사 조선후기 석조부도 연구' 등이 발표됐다.

한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옥천사는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성보문화재 연구와 도난문화재 환수에 상호지원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단, 신도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라"

이명호 강사, 25일 '저출가시대' 주제 연찬회서

승가, 재가를 객체로만 이해
불자로서 정체성 확립 필요

"조계종단에서 신도는 입교절차를 이수하고 조계종 종지를 신수봉행하는 사람이다. 이때 종지는 직지인심 · 견성성불 · 전법도생으로 언급된다. 하지만 신도 기본교육 목적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는 불자로서의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불자를 불자로 드러나게 하는 생활양식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명호 중앙승가대 강사는 6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저출가 시대와 한국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불광연구원 · 조계종 포교연구실 공동학술연찬회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재가자의 위상과 역할 변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명호 강사는 "재가불자의 역할을 논하기에 앞서 어떤 재가불자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체화된다' '내면화된다'라는 뜻은 가치가 생활로 현현한다는 의미"라며 "불교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 법향은 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이런 맥락에서 사찰과 신도 개념도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재가자를 출가자와의 관계 내에서만 이해하고, 재가자를 객체로 인식하는 한국불교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 강사는 "최근 모든 종교에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신분적 차이가 엄격한 불교에서도 평신도 참여는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분은 존재론적이다. 삭발염의로 대표되는 외형적 차이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기에 그 관계는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경전에는 재시자 · 이타행 실천자 · 선정수행자 · 설법자 · 논사 · 포교사 등으로 재가불자의 위상과 역할이 요약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강사는 현대사회 변화에 따라 불교신도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이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불교신도들을 등록과 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 신도교육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단적으로 신도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서 "어떤 삶이 불교적인지, 붓다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은 새로운 사회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연찬회에서는 △출가자 감소의 대내외적 원인과 대책(박수호 덕성여대 연구교수) △저출가에 따른 승가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저출가시대의 전법 전략과 비전(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의 글이 발표됐다. 윤호섭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핸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핸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佛音吼, 불음으로 전하는 '사자후'

수월 스님, 불교 음악가 후원회 조직

넷째 주 수요일 토크콘서트 '방생' 스님이 통기타 치며 법음 전해 불자들에 큰 감동 주며 '입소문' "불교 음악 활성화 위해 노력"


(사)불음후는 매월 넷째 주에 맑고향기롭게 부산 법당서 '콘서트 방생'을 진행하고 있다.

소박한 규모의 콘서트였음에도 불구, 청중들 사이에는 즐거움을 넘어 감동의 물결이 넘실거렸다. 부처님 법에 음을 붙인 법음(法音)의 진리는 청중들 마음속 번뇌를 씻겨주고, 참 자유를 안겨주었다.

사단법인 불음후(대표 수월)가 전하는 토크 콘서트 '방생'이 매달 넷째 주 수요일 오후 7시 (사)맑고향기롭게 부산 법당서 열리고 있다. 수월 스님은 불자들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콘서트 제목을 '방생'이라 명명했다.

6월 22일 콘서트 현장에선 수월 스님의 통기타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월 스님은 화엄의 세상과 열반의 기쁨, 만족과 지족을 노래하며 중간 중간 부처님 말씀을 전했다.

이날 함께한 청중들은 음악을 통해 법문을 전해 들으니 마음 깊숙이 그 내용이 흘러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조갑룡 불자는 "사람의 삶 속에는 감성과 이성이 있는데 예술은 이 모든 것을 넘어 감동을 안겨주고 사람을 변화하게 한다"며 "통기타를 들고 법음을 전하는 스님을 뵈니 불교가 더욱 편히 느껴진다. 부처님 말씀을 담은 가사 하나하나가 잊혀 지지 않을 정도로 가슴 깊이 남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공영석 불자는 "올 2월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도반들에게도 추천하고 있다"며 "법정 스님의 법구경까지 음악을 통해들으니 그 깊이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환희심을 표했다.

토크 콘서트 '방생'은 불교음악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불교음악의 중요성을 알리고 열악한 환경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이에 앞서 수월 스님은 불교음악인들 몇몇과 함께 불교음악후원회 (사)불음후를 조직했다. 6월 3일 비영리법인으로 부산시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불교음악 인재양성 · 법음 포교 등에 앞장설 계획이다.

수월 스님은 "불음후의 '후'는 부처님 말씀을 의미하는 사자후할 때의 '후'"라며 "부처님 법을 음악에 담아 전하는 이들이 불교음악가들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님은 "많은 불자 가수들이 더 많은 행사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명상 음악가'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열악한 현실 때문에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며 "불음후 후원을 통해 많은 불교 음악가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월 스님은 해인사로 출가해 청암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동국대 문과대 철학과 졸업 후 일본 쯔꾸바 대학 대학원 장애자교육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앨범은 '우리말 반야심경(1984)', '진리의 말씀법구경(1985)', '오소라(1986)', '물같이 바람같이(2013)'를 발표했다. 공연은 2014년 10월 15일 부산 KBS홀, 2015년 4월 8일 서울 KBS홀에서 각각 우리말 반야심경 '천재일우'를 무대에 올렸으며 현재 부산 엄궁동 승학산 아래 마음이 쉬어가는 절 '백석사'에서 도심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응공조계종 동명사, 부처님 점안법회

6월 19일 칠곡 동명사서… 사부대중 200여명 참석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 총본산 총무원 칠곡 동명사는 6월 19일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 총본산 총무원 칠곡 동명사서 6월 19일 부처님 점안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종정 명진 법운 대종사와 원로의원 평원 · 흥원 · 수덕 스님, 종도 지암 · 덕산 · 명원 · 보현 · 성애 · 원각 스님 등 대중 주지 스님들과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점안의식은 집회가를 시작으로 증명단 삼화상을 청하고, 상단권공 · 육법공양 · 오공양 · 요원승 · 요잡작법 · 신중공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종정 명진 법운 대종사(동명사 주지)는 "오늘 동참한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세세생생 좋은 인연으로, 삼독심을 훨훨 버리고 걸림 없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한편 수암 스님의 사미계 수계도 진행됐다. 수암 스님은 명진 법운 대종사를 은사로, 원로의원 평원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십계명을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지역 포교 현장 이상無!"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분야별 발표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이 '분야별 연수회'를 6월 18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진행했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이승표)이 '분야별 연수회'를 6월 18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진행했다. 분야별 연수회는 부산지역단이 군부대 · 어린이 · 병원 · 교도소 등에서 포교 역할과 상황을 발표하는 자리이자, 앞으로 포교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다.

분야별 사례발표는 △어린이 계층포교 △군경포교 △사찰문화포교 △NGO포교 △생명나눔팀 등 총 7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등상은 군경포교팀이 차지했다.

이승표 단장은 "오늘을 계기로 포교내실을 기하고, 활동 중 어려움에 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현재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7분야 총괄팀과 각 분야별 36개 팀으로 구성, 총 763명이 전문적으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역대 대종사 4명 추모 다례재 봉행

6월 15일 동화사서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효광스님)는 6월 15일 4명의 역대 대종사를 추모하는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는 매해 음력 5월 11일 봉행해 온 조계종 초대 종정 석우당 보화 대종사 다례재를 확대, 은사인 연담 응신 대종사와 사제인 석하 대종사, 인환 대종사를 함께 추모하는 자리로 마련한 것이다.

문도회 대표 무공 스님은 "다례재에 많은 사부대중이 동참해주신 데 대해 150명 문도를 대신해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진제 종정예하, 문도회 대표 무공 스님, 원로의회 의장 밀운 스님 등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

부산 해운정사 앞 초고층 아파트 공사 '물의'

해운정사, 6월 20일 기자회견 "수행 환경 훼손 우려"


부산 해운정사는 경내 바로 앞에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는 데에 수행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6월 22일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해운정사 전경.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 앞에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 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 해운정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주석하며 한국 불교의 정신적 맥을 이어 가고 있는 곳으로, 전통사찰이자 참선 도량이다. 그러나 경내 바로 앞 10m 거리에 40층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 중이여서 수행환경 훼손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해운정사는 6월 20일 경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해운정사는 공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해운정사 측은 "대다수 지역주민의 염원인 우동3구역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전통사찰 문화재 및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 자연과 조화된 재개발 사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해운정사는 부산시 문화재자료 78호로 지정된 〈해운정사선문염송집〉과 부산시유형문화재 149호 〈해운정사 전법계〉 등 귀중한 문화재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운정사 측은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조망권이 침해되는 등 전통사찰로서 품위와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운정사는 "해운대 우동3구역주택재개발조합과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사들은 각자의 개발 이익에만 급급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최근 재개발조합 측과 재개발 반대 세력 간 충돌이 빚어지며 지역주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재개발 반대 세력의 움직임엔 해운정사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단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데 그것은 억측일 뿐"이라 주장했다.

해운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3대 종정인 진제 스님이 간화선 대중화 원력으로 1971년 창건했다. 주요 전각으로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상을 주불로 모신 108평 원통보전, 부처님 진신사리 33과를 모신 관음보궁, 1만 옥불 지장보살을 모신 대불전, 조사 스님들을 석상으로 모신 심인전(心印殿) 등이 있다. 하성미 기자

밀양 경찰서 '법우회' 창립

회원 30여 명… 초대회장 김수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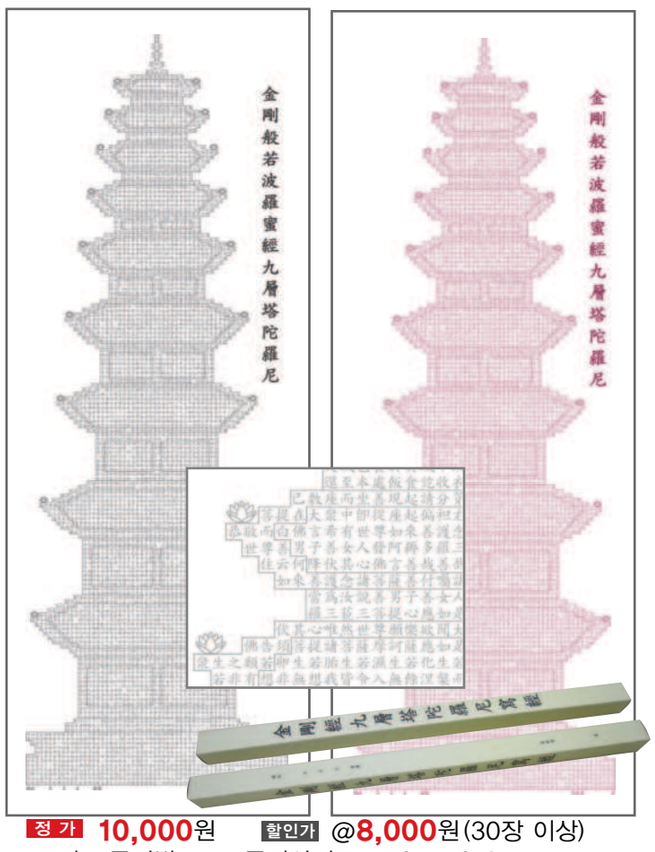
밀양경찰서 법우회는 6월 18일 밀양 용궁사 극락보전서 법우회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밀양경찰서 법우회(회장 김수철)는 6월 18일 용궁사(주지 정무) 극락보전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김수철 회장은 "이웃과 늘 함께하며, 참다운 봉사 정신을 실천하는 경찰 불자가 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온 우주 법계가 연화장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우회 창립에는 30여 명의 회원이 함께했다. 법우회는 창립 전부터 봉축법요식에 참여하고 봉축기념선물을 전 직원에게 나누는 등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공양 그릇 세척 봉사, 사명 연꽃 문화재 봉사 등도 함께했다. 하성미 기자

(특)대형금강경 9층 탑사경지 〈먹/적, 종이박스포함〉



정가 10,000원 할인가 @8,000원(30장 이상)
• 포장 : 종이박스 • 종이사이즈 : 76㎝×210㎝



영가옷 B형-남 정가 1,200원 영가옷 B형-여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70원 / @270원 (1000개이상)


※크기
• 15.5×19㎝
한지·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30,000원(100벌)
할인가 @270원 (1000벌이상)


종이신발(남/여) 1켤레
정 가 1,500원
할인가 1,300원 100개이상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황방사 스님과 신도들이 그릇에 음식을 담으며 지역민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맘 편히 식사하고 가세요!"

전주 황방사, 3년째 비빔밥 무료급식 펼쳐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전주 황방사(주지 지호)가 사랑의 나눔 공동체 전주비빔밥 무료급식을 3년째 이어오고 있어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2013년 처음 시작된 황방사 비빔밥 무료급식은 지난 3년 동안 매월 셋째 주 일요일마다 전주 명소 덕진공원에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6월 19일에도 부처님 전에 공양하는 마음으로 200여 명의 전주시민들에게 비빔밥을 만발공양 하고 나눔은 행복임을 전파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매월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1000명의 시민들에게 비빕밥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황방사는 신도회를 비롯해 IPWG 여성평화그룹 전주지부 여미현 본부장 등 많은 불자들의 자원봉사와 후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지 지호 스님은 "덕진공원을 찾는 이들을 위해 무상급식 만발대중공양으로 대중과 함께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고 있다"며 "공양을 함께 나누며 행복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권정애 신도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공양을 드시는 것만 봐도 즐거움과 행복을 느낀다"며 "봉사를 하면서 정신건강도 좋아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번 황방사 무료급식을 이용한다는 이현식(72세) 옹은 "황방사 음식이 맛있어 매일 무료급식을 했으면 좋겠다"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으니 기쁘고, 대중을 위해 공양을 준비한 황방사 주지스님께 고마움을 항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방사는 현재 요사채 지붕이 새고 있어 천막을 씌우는 등 사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소외계층 위해 공공기관 · 민간단체 손잡아

자연음식문화원-건보심사원 전주지원 사회공헌 협약

전북불교네트워크부설 (사)자연음식문화원(이사장 곽인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조원구)과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

6월 22일 전북생명평화센터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정보 및 상호교육지원과 양 기관의 시설 · 장비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조원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 사회적 책임기관으로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봉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인순 (사)자연음식문화원 이사장은 "사회적기업으로서 작게나마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생명평화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체험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사회사업을 펼쳐나가겠다"며 사회사업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소외계층 및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는 전달식도 함께 열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삼척 안정사, 국책 도로공사로 폐사위기

1만4000㎡ 편입… 대웅전 옆 본선도로 신설 예정
부체도로는 대웅전 관통, 사찰 제 기능 상실 우려


사진 오른쪽 건물이 대웅전. 점선 표시된 절벽 위로 본선도로 공사가 예정돼 있다.

국책사업인 국도38호선 삼척 도계~신기 도로건설공사로 인해 삼척 안정사(주지 다여)가 폐사 위기에 내몰렸다. 하지만 안정사 측은 강제수용 토지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에 있어 "사전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채 보상금이 산정됐다"며 발주처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안정사는 과거에도 한 차례 국책사업 여파로 사찰을 이전한 바 있어 세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강원도 삼척 신기면 안의리에 자리한 안정사는 대한불교법화종 소속 사찰이다. 본래 같은 면 신기리에 있었으나 30여 년 전 국도 38호선이 신설됨에 따라 사찰부지가 도로에 수용돼 1986년 현 위치로 이전했다. 법당 규모가 크지 않았고, 국책사업의 당위성을 받아들여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이전한 안정사였다. 이후 사부대중이 원력을 모아 현재 3만여 평의 대지에 대웅전을 비롯한 10여개 전각을 갖춘 여법한 사찰로 거듭났다. 이 지역 630여 가구의 귀의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 38호선 확장 및 신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안정사는 본선도로 공사에 해당되는 8필지 6만3821㎡(약 1만9300평) 중 1만4392㎡가 편입됐는데 원주청 공사계획대로라면 대웅전 바로 옆을 지나는 도로가 신설된다. 도로와 대웅전 기둥 간 거리는 불과 약 20m. 수행환경 침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부체도로를 내야 하는데 이는 대웅전을 관통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안정사와 원주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본선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원주청은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 해당 토지에 약 8700만원의 보상금을 산정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아 공탁을 한 상황이다. 안정사는 이 과정 중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위한 출입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원주청 관계자는 "통지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상관없다. 게다가 과거 통지했을 때 오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고, 신도들도 수차례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 **2007년부터 갈등 지속**
> **본선도로 협의 난항 겪어**
> **안정사, 절차상 문제제기**
> **"사찰 이전 대책 절실"**

원주청에 따르면 기본조사는 지난해 10월 1일, 감정평가는 11월 12일에 실시했다. 안정사는 이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원주청 관계자에게 통지 여부를 묻자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출입통지 후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다. 또 평가 후 확인한 사실이 맞는지 소유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만으로 현재 책정된 보상금 규모가 크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곤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주청의 지장물보상금 산정조서에는 안정사 소유 소나무 644주에 대한 금액이 2140여만원으로 산정돼 있다. 건축자재에 사용될 재목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정사에 따르면 이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인 데다가 2007년 당시 도로공사 발표 후 안정사를 찾아온 한 조경회사는 해당 소나무 매입가로 1억7000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나무의 값어치에 대한 양측 입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본선도로 외에 예정된 부체도로 공사 역시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부체도로 공사가 이뤄지면 안정사는 더 이상 사찰 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주청 관계자는 "일단 부체도로와 관련해 보상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한 뒤 서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안정사 반대로 대화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안정사 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본선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외 적인 부분에 선심 쓰는 듯한 모습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선결과제부터 접근하는 것이 순서"라고 반박했다.

안정사는 공사가 진행되면 사찰 기능을 할 수 없는 만큼 수행환경 유지를 위한 사찰 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주청 측은 "본선도로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은 뒤 "간접보상은 최대한 협의를 통해 조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정사는 현재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6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3민사부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토지 지상 수목 등에 관한 정당한 보상가액 산정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안정사 주장 일부를 받아들이며 △신청 취하 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 인용 결정에 따른 감정평가서가 제출될 때까지 "입목 · 수목을 굴취하거나 벌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은 "법원 심리에서도 판사님이 왜 하필 안정사 쪽으로 도로를 계획해 사찰 기능을 할 수 없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며 "돈은 중요치 않다. 국책사업을 방해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사찰만 다른 곳에 제대로 이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애국 · 희생정신 후세에 전해지길"

광주 신광사, 순국선열 · 호국영령 추모천도재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는 추모천도재가 열렸다.

광주 신광사(주지 일명)는 6월 22일 경내 대웅전에서 이병구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해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주시지부, 신광사 신도 등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추모천도재'를 봉행했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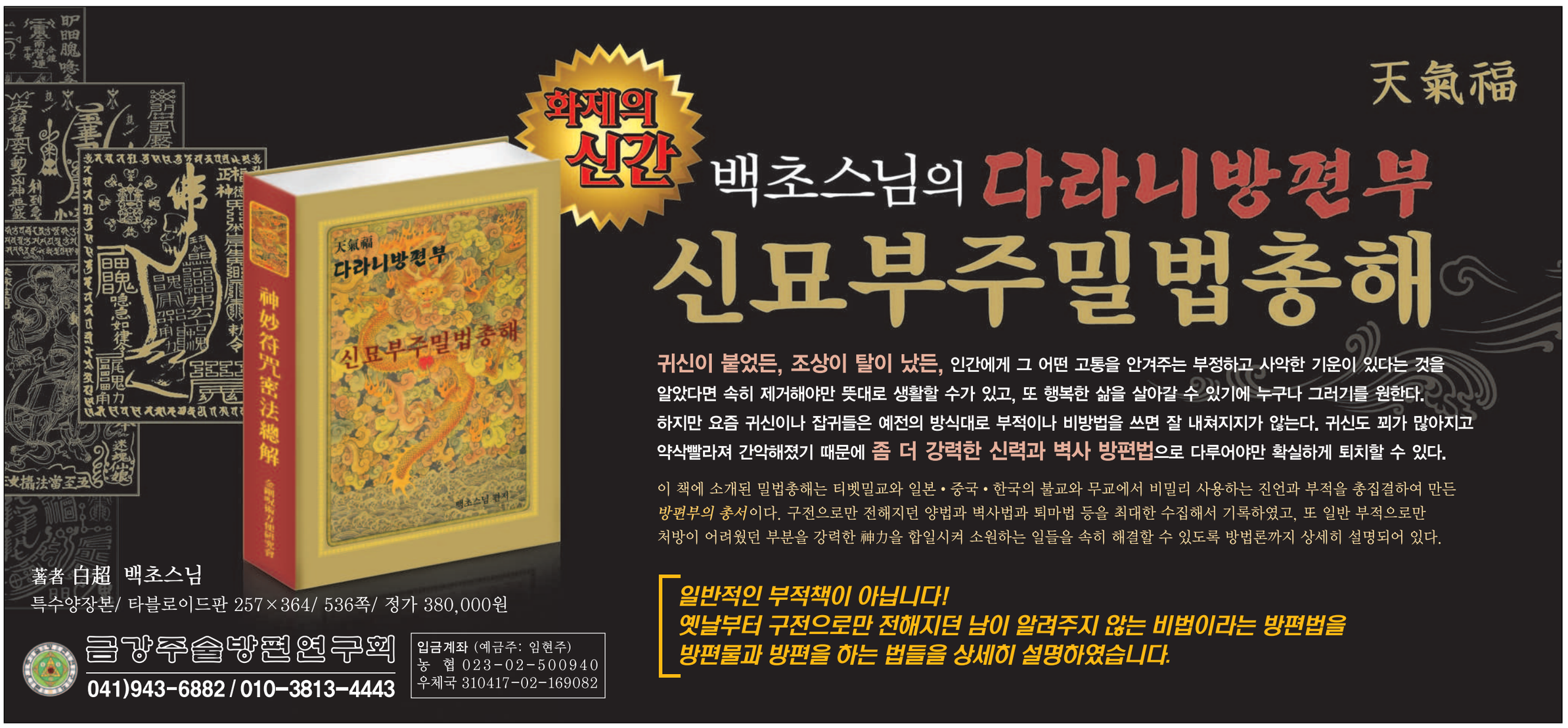
천도재는 지난 2001년 11월 신광사와 광주지방보훈청이 자매결연을 한 데 따라 매년 6월 봉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현대인들에게 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광사 주지 일명 스님은 인사말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들을 위로하고, 남겨진 후손들에게 위안의 마음을 전하고자 천도재를 봉행해오고 있다"며 "영령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병구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축사를 통해 "모든 희생이 고귀하지만 특히 나라와 국민을 위한 희생은 더욱 값지다"며 "선열들의 높은 희생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도재는 기념식과 상단불공을 시작으로 전통불교영산회 회원스님들의 영산작법, 신중작법, 천수바라, 다게, 헌화, 봉송 등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음 한번 돌리면 惡도 善이 되니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㊿ 홍해아 받아들이는 관세음보살



그림 · 최주현

보살님을 모셔오는 데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손오공은 죽다 살아나는 바람에 좀 힘이 빠져 저팔계가 보살님을 청하러 가는데, 신통한 요괴가 이를 탐지해 냅니다. 그리곤 수를 쓰지요. 저팔계는 요괴 감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손오공이야 척보면 알아보지만, 미련퉁이 저팔계는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먹어 보아야 아는 수준. 그런 저팔계 앞에 홍해아가 관세음보살로 분장하고 척 나타나네요. 언제 관세음보살 계시는 남해까지 가는가 싶던 게으름뱅이 저팔계가 얼마나 반가워 했겠어요? "아이고 보살님! 실은 여차저차…" 그렇게 여차저차 하다가 저팔계마저 요괴의 동굴에 떨어지네요.

아니 그런데 요괴가 보살로 막 분장하고 그래도 괜찮은거냐구요? 제한 같은 건 없냐구요? 아무리 요괴라지만 지킬 건 지켜야지, 그런 짓 하다간 큰 벌 받는 거 아니냐구요? 그런 말씀들 마세요. 제한 없어요. 벌도 없어요. 그런 거 가려서 하면 그게 요괴이겠어요?

우리 불교 문중에는 수행 과정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있습니다. 위험한 현상에 대한 경계도 있고요. 불교 이전에 인도의 요가 전통이 있었고, 불교는 그것을 기본으로 받아들인 바탕 위에 그 독특한 수행체계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만큼 수행의 방법과 과정에 대해 섬세하고도 친절한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종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내와 경계에 따라 수행하면 병통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이에 비하면 타 종교는 그런 방법에 있어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불자라서가 아니라, 또 지금 불교계 신문에 글을 쓰는 것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어느 정도 공인된 이야기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서구에서는 천주교나 개신교의 교역자들도 불교의 명상센터에서 명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불교의 명상법은 종교를 초월하여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전철 같은 곳에서 좀 풀린 눈으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하고 외치는 분들, 그분들이 불교도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교도는 신앙심이 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전혀 어떤 체험도 없이 그냥 미친 것일까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분들도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엄청나게 강렬한 종교 체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열리고, 천사가 강림하고…하는 그런 체험 말입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냥 확 돌아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전철로 뛰어 나오게 되기도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교도가 그렇게 되기는 힘들어요. 불교 문중에는 그런 현상들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있거든요. 어떤 현상들은 수행의 진척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 있고, 어떤 현상들은 어떤 고비를 넘을 때 나타나는 장애인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상식을 넘어선 행태를 보이기 힘든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홍해아 자만심이 스스로 무너뜨려
긴고아 씌우니 그 이름 선재동자
남해까지 일보일배, 성찰 기회줘

자, 아무튼 눈 밝지 못한 저팔계는 요괴의 분장에 속아 잡혀가고 말았네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은 손오공이 나서서, 둔갑술로 요괴의 소굴을 염탐하여 저팔계가 잡혀 간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홍해아가 자기 아버지에게 부하를 보내 현장법사 고기 맛을 보시라 청하는 것을 알고는, 홍해아가 저팔계에게 한 짓으로 복수를 합니다. 우마왕으로 변신, 요괴의 부하를 속여서 요괴의 동굴로 당당하게 들어가죠. 요괴한테 절까지 받아가며 극진한 대접을 받다가, 현장법사 고기 먹자는 것 아닙니다. 탁탑천왕(사천왕 가운데 한분이죠?)에게 천강도라는 보배로운 칼 36자루를 빌려가지고 홍해아 잡으러 출발하십니다. 우선 정병에 담긴 물의 정수를 좌악 깔아 삼매진화에 대한 방비를 마치곤, 보배로운 36자루의 천강도로 아름다운 연화좌를 만들어 내십니다. 물론 신통력으로 모습을 바꾼 것이지요. 겉보기엔 아름다운 연화좌,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천강도 36자루! 그리곤 손오공을 시켜 홍해아를 유인케 하곤, 홍해아가 와서 덤벼들자 그 연화좌를 버리고 공중으로 피신합니다. 보살까지 손쉽게 물리친 홍해아, 무서운 게 없겠지요? 세상이 돈짝만 하게 보이겠지요? 그 앞에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연화좌가 있으니 어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어험! 보살까지 물리친 나 같은 사람이 앉을 만한 자리로구나!" 그런 기분으로 척~ 앉아 보는 겁니다. 바로 이게 삿된 길로 신통을 얻은 자들의 말로이지요. 보배로운 자리, 아름다운 자리라고 여겼던 그 자리가 바로 천강도가 온 몸을 꿰뚫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경지에 도달했어!"하고 자만에 빠지는 순간, 얻었던 신통력도 잃어버리고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는 거지요. 왜 그러냐구요? 신통력 얻으면 그냥 얻은 거지 왜 그렇게 되느냐구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신통력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던가요? 어쨌든 강한 몰입과 집중이라는 삼매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삿된 마음으로도 삼매를 이룰 수 있고, 또 그를 통해 신통을 얻었다 해보세요. 그 애초의 삿된 마음이 장애가 됩니다. 삿된 마음은 궁극의 도로 인도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작동하게 되지요. 신통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욕망이 움터나오고, 그렇게 욕망을 채우다 보면 신통의 근원이었던 삼매가 흐트러집니다. 자연히 신통도 사라질 수밖에요.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어!"하는 오만, 내용 없는 껍데기뿐인 형편없는 인간이 덜렁 남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아가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앉을만한 자리지!"하면서 덜컥 앉아버린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삿된 신통을 얻은 이들의 말로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삼쾌선생의 명쾌한 해설! 감명을 좀 받으셨습니까요? 좀 구체적인 현실의 이야기까지 해 볼까요? 혹 세간에서 신점(神占)을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등을 통해 얻은 신비한 힘으로 미래를 직관하는 분들이지요. 그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처음 그런 능력을 얻어 신점을 치기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매우 영험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름을 날리게 되고 돈도 벌게 되면 욕심이 생긴답니다. 그러면 자연 능력도 떨어지고 결국 영험도 없어진다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영업을 그만두고 기도에 들어가곤 한다는군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사기꾼이 된다구요.

삿된 길에서 성취를 이루었던 존재는 애초에 악한 길에 빠졌던 이보다도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강한 족쇄를 채워놓지 않으면, 예전에 이루었던 삿된 성취의 유혹을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홍해아에게 손오공 머리에 씌웠던 쇠고리를 여러 개 채우고서야 제자로 받아들이죠. 그리곤 홍해아의 잘못된 업을 바로잡기 위해 남해까지 일보일배(一步一拜)의 고된 수행을 시키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와, 피의 길이었겠지요? 홍해아 무릎도 다 벗겨지고, 이마도 깨졌을 거예요. 지금도 종종 스님들이 거룩한 뜻을 펴기 위해 삼보일배(三步一拜)라든가 일보일배의 힘든 수행을 하시곤 하는데, 그 연원이 바로 홍해아의 불문귀의 의식이었다는 것! 이제 아셨지요? 그리고 이 홍해아에게 내린 새로운 이름이 선재동자(善財童子)라는 것! 그것도 이제 아셨지요? 화엄경에 나오는, 53 선지식에게 참방하여 법을 구했던 선재동자가 바로 이 선재동자라는 말입니다.

아고고, 정말 그대로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이야기들은 서유기의 저자 오승은이 기발하게 꾸민 이야기입니다. 전에 소크라테스가 즐겨 인용했던 경구, "너 자신을 알라"를 그리스 말로 하면 "알라, 니꼬라지!"라고 농담을 했더니, 그리스 말 철자가 어찌 되느냐고 물었던 분이 있었네요. 그분과는 다시 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앞에 말한 '언구제러블'의 철자를 묻는 분이라든가, 지금 일보일배나 선재동자의 이야기를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다시 말하지 않을 사람에 포함시키겠습니다. 혹시 나칠계님도 그런 사람에 포함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 그 정도로 순진하지는 않으시다구요? 흠, 그럴 것 같네요. 순진하고 나칠계님의 거리가 꽤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삼보일배나 일보일배의 수행이 정말 가능한 것이냐구요? 또 그런 수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구요? 세 걸음 걷고 한잔씩 마신다던가, 한 걸음 걷고 한잔씩 마시면 취해서 도저히 멀리 갈 수 없을 것 같다구요?? 익! 삼보일배(三步一杯), 세 걸음에 한잔이 아니라, 삼보일배(三步一拜)입니닷!

에효~. 나칠계님의 방해공작은 늘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여기서 강하게 내칠 수도 없는 것이, 이 대목이 바로 홍해아라는 요괴를 불문으로 받아들이는 대목이잖아요. 나칠계 같은 분이라 해서 대뜸 '언구제러블'의 딱지를 붙인다면 우리가 힘써 이야기하려는 뜻과 어그러진다는 것이 문제로군요. 참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나칠계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종류인지 모를(?) 웃음을 주는, 삼쾌선생의 지나치게 고상한 곳으로 나갈 위험이 있는 이야기에 재미있는 양념을 치는 존재로 인정하기로 했지요? 삼쾌선생의 바다같이 넓은 마음, 그 진수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하고 넘어갑니다요. 그렇기에 다시 한번 힘주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존재라 하더라도 마음 한번 돌리면 부처 땅에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 선이라던가 악을 그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고 관계성 속에서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생각! 모든 존재를 평화와 행복으로 아우를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이 이 홍해아의 이야기에, 가장 위험한 존재가 불문에 들어오는 이야기에, 가장 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칠계 같은 분도 너그럽게 인정하는 삼쾌선생처럼…. 이크, 돌팔매 날아올까 싶어 그만 그칩니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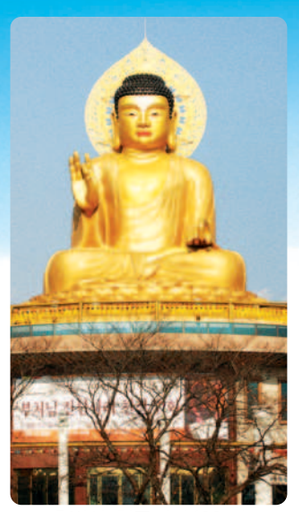


면 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2015 불교국제박람회 '입선' 수미단,닫집,법상,경탁 외 법당장엄 일체

威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1-276-5251 / 010-6857-0108

청동주조 50년 외길 인생
大韓民國 청동明匠
天鐘社



홍법사 청동대불(26m)



수종사 범종

청동불상, 범종,
청동탱화, 단청,
순금불사, 조형물조각



천종사 대표 송창일 명장

불교미술대전 조각부 특선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제전 조각부 특선
서울올림픽기원 불교미술대제전 입선
대한민국청소년 민족문화예술대전
불교조형미술 대상 수상
신지식인 협회장상 수상
한민족 대상 수상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내선길 103-79
대표전화 031)763-7435

역사성·정신 외면한 茶 종목지정 무의미

화가의 차문화 엿보기 ④



김호석
수묵화가

한국 차에 대한 연재를 하는 동안 여러 다인들을 만났다. 그 분들로부터 시대에 대한 통찰과 문화재 행정의 난맥 그리고 자본이 점령한 세상의 한계에 이르는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특히 다인들은 녹차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일에 대해 고무되어 있었다. 자칫 좋은 기회를 놓칠까 노심초사하며 문제제기에도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차가 가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해 솔직한 속내를 털어 놓았다. 날카롭고 직접적인 어조로, 그들은 한국 차의 원형과 역사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객관적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나는 '제다장'의 지정에 앞서 '제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비공개 자료라는 이유를 들어 열람이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지정조사 연구용역'이라는 단어의 선택에 의구심을 품었다. '지정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텐데도 '지정조사'라 정한 이유가 의아했다. 또 문화재청이 제다부문에서 종목을 지정한다는 예고 사실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다. 원래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종목부터 선정한 뒤, 그 종목에 합당한 기법을 보유하고 있는 장인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다 종목 자체를 지정예고하고 마지막으로 문화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에, 과연 차가 범용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일정한 레시피에 의해 기능적으로 만들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또 이러한 종목지정에 전승의 맥이 없다는 점에서, 녹차를 지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되물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문화재청은 종목 지정의 예로 김치와 아리랑을 들고 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이 행위자가 되는 보편적 문화로, 특정 지역을 바탕에 두고 무수히 구전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변용되어 왔다는 점도 종목 지정의 이유이다. 따라서 원류와 발전과정이라는 역사성보다 현재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녹차는 소수의 문화이며, 쉽게 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역사성을 바탕에 둔 다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원류와 변화과정에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된다. 따라서 차를 종목지정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차는 제다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고도의 미학이 중심이다. 이들은 충분히 연구 · 전승되어야 할 가치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할 경우, 그 원형 자원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원형 자원이 기술과 예술 영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재에 대한 개념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차를 평가하고 종목지정을 할 경우, 문화의 가치가 축소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문화재 위원회 회의록'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녹차는 소수의 문화이며, 쉽게 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역사성을 바탕에 둔 다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원류와 변화과정에 의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차 지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한국 차는 역사성과 계승성을 가진다. 역사성은 개인과 개인에 의해 전승되어 계보를 이룬다. 제다는 고도화 되고 치밀한 기술력을 가져야 가능하다. 녹찻잎을 다루는 것에 대한 정보력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계승성은 지금도 전승활동이 지속되는지의 여부에 해당한다. 이렇듯 역사성과 계승성은 무형문화재 지정의 중요한 핵심이다.

둘째, 한국 차는 덖음 차이다. 차를 고르게 덖는 기술은 그의 가치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주요하다. 크고 작은, 굵고 얇은 잎을 동일한 정도의 차로 만들어 하나의 맛과 향을 이루는 과정은 경이롭다. 좋은 차는 일단 물에 찻잎을 넣었을 때 찻잎의 색이 일정하다. 생육 조건이나 환경들은 물론 입의 대세와 두께 등이 다름에도 하나로 같은 조건을 부여하여 녹차의 색과 향 그리고 기운을 장악하는 놀라운 비법인 것이다. 그것은 제다인의 기술이자 정신성이며 고유의 미학이 응집된 결과이다.

셋째, 한국 차는 맑고 온 몸을 가볍게 만든다.

한국 차는 그 맛이 독특하다. 맑고 투명하며 시원하다. 과연 세계 여러 나라 녹차에서 한국 차처럼 이런 맛과 향 그리고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차가 또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의 저명한 미술사학자 변영섭 교수는 우리의 차에 대해 "인류가 추구하는 것 중 담박소쇄(澹泊瀟灑)가 가장 보편적인데 그 중 최고의 경지에 오른 차는 가장 맑고 시원한 것 중에서도 더 맑고 시원하다"고 말한다.

맑고 시원함은 인간 최고의 이상이요 가치이다. 다른 차는 맑기는 하지만 맛이 밋밋한데 최고로 제다법을 적용한 한국 차는 시원한 맛이 있다.

넷째, 한국 차의 제다 기술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위에 있으며, 그 맛과 향에서도 고유성을 갖는다. 한국 중국 일본에는 모두 녹차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작설차만 가지는 특성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 녹차는 떫기도 쓰기도 맑기도 다 가능하다. 그런데 차에서 오미를 느낄 수 있는 차는 한국의 차뿐이다. 또한 한국 차에는 신기 미묘한 향이 있다. 청량감이 있으며 심폐가 시원해진다는 포괄성을 가진다. 이점이 한국 차의 고유성이자 제다장인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이다.

다섯째, 한국 차에서 주요한 연구과제는 전통성의 보장과 활용이다.

한국인에 의해 유지되어온 제다기술은 역사성 있게 연찬되어 왔다. 그러한 한국적 가치와 역사성, 한국 차의 원형은 무엇인지, 중국으로부터 전래해 온 차 문화가 한국의 현실에서 어떻게 새로운 전통으로 거듭 태어났는지, 나아가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통 방식이 어떻게 변질 · 왜곡되었는지 등이 연구의 초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최소한 가장 가까운 시기의 자료로부터 소급하여 찾아야 한다. 이때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조선 후기의 차 문화이며, 초의와 응송 스님을 통해 한국 차를 중흥시킨 다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양하고 화려한 음료가 쏟아져 나오는 오늘, 녹차는 무수히 많은 차 음료 중 하나일 뿐이다."



제다는 개인의 차가 크다. 게다가 특수한 개개인의 제다법에 따라서 차 맛이 달라진다면, 그 범용적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맥의 역사성과 정신성을 무시한 채, 차만 종목지정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전체 한국 차가 노정하고 있는 미흡한 제다기술은 극복하기 어렵다. 더욱이 일제 강점기나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무분별하게 들어온 중국 기술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한국제다의 원형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은 문화재청의 고유 업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종목 지정이 되면 외래 차의 오염을 씻어 내기는커녕 중국과 일본차의 영향 아래 자유로울 수 없다. 일례로 녹차는 일본의 green tea에서 온 용어이다. 이는 홍차와 대척하는 의미로 만들어졌지만 깊은 통찰을 바탕에 두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 한국의 차가 그 특성과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가. 녹차라는 용어가 범세계적으로 통용된다하더라도 한국 차의 특수성을 보전하고 문화사대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작설차' 또는 '차'라는 용어의 사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또 제다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개인의 예술적 기량에 의해 발현되는지는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만약 특수 기술이 필요하다면 종목이 아닌 제다 작법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다는 개인의 차가 크다. 게다가 특수한 개개인의 제다법에 따라서 차 맛이 달라진다면, 그 범용적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우려되는 것은 연구원들이 차를 평가했던 과정이다. 한국 차의 원형과 맥이 아닌 '차'의 유형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연구원들의 이해 정도를 의심케 한다. 그들이 한국 차의 정체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이러한 평가의 균형점은 지켜졌는지, 연구자 중 전승과 역사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차 문화 발전에 중요한 바탕이 되는 제다의 계승에 대해 충분한 이해나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한국 차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그 가능성과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전반적인 치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연구결과는 제다라는 큰 문화적 요소를 간과한 듯 보인다. 한국의 차 연구를 통해 우리의 차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에도, 종목지정을 통해 한국적 정체성과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금 국민들은 녹차의 지정 여부에 큰 관심이 없다. 다양하고 화려한 음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오늘, 녹차는 무수히 많은 차 음료 중 하나일 뿐이다. 그 중에서도 녹차는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큰 선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려먹는 방식의 녹차도 티백 형태가 주가 되면서 '찻잎'이라든지 '제다' '다도' 등의 개념보다 '쉽게 우러난다'의 표어가 익숙해졌다.

그러나 국가는 다르다. 한국 차의 역사성과 원형적 가치를 규명하고 어느 시기에 변용 변질 되었는가를 가려내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 차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면밀히 연구해 나가야 한다. 먼 훗날 한국 차에 대해 다시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있으면 국가는 이 원형 자원을 연구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전통문화가 그 뿌리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만나, 시대에 조응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이 일을 방기하거나 방향을 달리 할 경우 국가의 문화정책은 실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차의 종목지정은 백번 양보하여 잊혀가고 있는 우리 차 문화를 다시 환기하고,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찾으려는 문화재청의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한국 차의 원형적 가치와 계보와 전승 문제를 가볍게 다루었다면 '제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조사 연구용역'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차'의 이미지, 표면적인 특징만을 활용해 손쉽게 다루고 황급히 규정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제다의 종목 문화재 지정은 차와 제다에 대한 다면적 연구를 진행하고, 그 문화의 생성 가치를 차분하게 파악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현상 무마로만 정책이 진행된다면 제2의 숭례문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제다에 대해 집중하는 이유는 문화재 정책이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제다뿐 아니라 그 어떤 무형 자산도 지키고 계승할 수 없다. 이것은 문화재청의 존립자체와도 직결된다. 〈끝〉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사명대사와 깊은 교유 나눈 文人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㉔ 월정 윤근수

조선 중기의 문신 월정 윤근수(月汀 尹根壽, 1537~1616)는 영의정을 지낸 윤두수(尹斗壽)의 아우다. 어린 시절 김덕수(金德秀) · 김덕무(金德懋) 형제에게 공부했다.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 남명 조식(南冥 曹植, 1501~1572)뿐 아니라 율곡 이이(栗谷 李珥, 1536~1584), 우계 성혼(牛溪 成渾, 1535~1598) 등과도 교유했다고 전해진다.

1558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 주서와 연천 현감을 지냈으며 기묘사화에 사형을 당한 조광조의 신원을 상소했다가 과천현감으로 좌천되는 등 정치적으로 곤란을 겪었다. 이듬해인 1563년에 임금의 총애를 받던 이량(李樑)이 그의 아들 이정빈(李廷賓)을 이조좌랑에 천거하자 박소립(朴素立), 기대승(奇大升) 및 그의 형 윤두수가 반대했다. 이로 인해 형이 파직되는 변고를 당함에 따라 그 또한 파직된다. 그가 다시 복권되어 홍문관 교리에 제수된 것이 1565년경이다. 이듬해 〈명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했는데 당시 그의 벼슬은 지제교 겸 교서관교리(知製敎兼校書館校理)였다.

이후 검상, 사인, 장령 등을 역임했으며 1572년에는 대사성에 중임(重任)되었다. 또 다시 그가 정치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것은 1591년경이다. 당시 그는 우찬성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정철(鄭澈)이 세자의 책봉 문제로 화를 당함에 따라 그 또한 삭탈관직 되는 변고를 겪는다.

한편 그가 외교적으로 눈부신 활약상을 보인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이다. 예조판서로 부임된 그는 명나라와의 외교적인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는데 이런 성과는 중국어뿐 아니라 시문에 능했으며 임진왜란 때 파병된 명나라 장수들과 깊이 교유했기 때문이다.

그는 탁월한 문장력뿐 아니라 그림과 글씨에도 능해 예원의 종장이라 칭송되기도 하였다. 그가 〈주역〉을 교정하고 〈해동시부선(海東詩賦選)〉, 〈신찬 삼강행실도(新撰三綱行實圖)〉를 편찬하는 데 참여했던 것이나 명종과 선조가 사망한 후에 이와 관련된 기록을 정리하는 데도 그의 힘이 필요했던 것은 학문적 토대가 단단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의 문하에서 김상헌(金尙憲), 장유(張維), 정홍명(鄭弘溟), 정엽(鄭曄), 조익(趙翼), 김육(金堉)과 같은 명사들이 배출되었는데 이는 서인계의 주요 인물을 배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는 주자학을 중시했으며 사림계 인물들과 교유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그의 생애에서 주목되는 것은 승려들과의 교유다.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 때 승병을 모집하여 맹위를 떨쳤던 사명당 유정(惟正) 스님과 교유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문집 〈월정집〉에는 일본으로 떠나는 유정 스님을 위해 쓴 '증유정산인왕일본(贈惟正上人往日本)' 2수가 눈에 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정 윤근수의 글씨.

머나먼 만 리 길 해 뜨는 동녘(萬里扶桑域)
외로운 배 섬나라로 향하네(孤帆積水鄕)
석장을 저으며 가는 행차 깨달음의 길이고(錫飛猶覺路)
작은 배로 가는 길 바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라네(杯渡卽慈航)
해 가리켜 맹세하면 큰 파도 잦아들고(指日鯨波晏)
사람들을 놀라게 할 문장 솜씨 드날리리(驚人藻翰揚)
선기(禪氣) 서린 구름이 잠시 머무른 곳에(禪雲暫駐處)
이방(異邦) 사람 얼마나 많이 향 피우며 예불할까(殊俗幾拈香)

이 시는 일본으로 떠나는 유정 스님을 위해 쓴 전별시로 석별의 아쉬움을 드러낸 작품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유정 스님은 조선 중기의 고승 사명대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을 이끌고 전공을 세웠던 그는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하여 외교적 성과를 거뒀는데 특히 1604년 사신으로 일본의 정치적인 실력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조선인 포로 3500명을 석방시켜 이듬해 돌아왔다. 그러기에 윤근수는 유정 스님이 석장을 짚고 일본으로 가는 여정은 깨달음의 길이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라 했던 것이다. 더구나 유정 스님은 도력 높으신 수행자이니 그가 머문 곳엔 분명 "선기(禪氣) 서린 구름이 잠시 머문 듯했을 것"이란다. 따라서 외로운 섬나라 일본 사람들은 너도나도 스님을 찾아가 향을 사르고 예를 올렸을 것이라고 하였다. 무엇보다 유정 스님이 타고 간 배를 배도(杯渡)라고 표현한 것이 이채롭다. 원래 배도란 남북조시대 어떤 고승이 항상 나무로 만든 잔(木杯)을 타고 물을 건넜기에 그를 배도화상(杯渡和尙)이라 불렀다는 고사(故事)에서 연유된 것인데 이는 〈고승전 신이하 배도(高僧傳 神異下 杯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유정산인왕일본(贈惟正上人往日本)〉의 마지막 1수를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뛰어난 능력으로 관직 섭렵
파직되는 변고도 수차례 겪어
승려들과 오랫동안 정 나누며
승속 넘어 진정한 벗 거듭나

푸른 바다 외로운 섬을 둘러쌌는데(碧海環孤嶼)
아득한 그곳 향해 긴박한 여정 떠나네(嚴程指杳冥)
배를 타고 지나가면 뭇 괴물들 피할 것이고(行舟群怪避)
게송(偈頌)을 강설하면 늙은 용도 경청하리(說偈老龍聽)
제천의 달을 괴로이 생각하노라면(苦憶諸天月)
이역 땅의 명협 풀은 자주 시들리라(頻凋異地蓂)
자비의 마음으로 강론을 열고나면(慈悲開講後)
생령들이 안정되는 것을 응당 보겠지(應見奠生靈)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사〉에 실린 사명대사 진영.

유정 스님을 수행이 높은 승려로 인식한 그는 "배를 타고 지나가면 뭇 괴물들 피할 것이고(行舟群怪避)/ 게송(偈頌)을 강설하면 늙은 용도 경청하리(說偈老龍聽)"라고 하였다. 이는 당시 유정 스님에 대한 유자들의 인식이었을 만하다. 하지만 고국을 떠나 일본에서 보는 달은 조선의 달과는 그 느낌이 다를 것이라 여긴 듯하다. 그러기에 "제천의 달을 괴로이 생각하노라면(苦憶諸天月)/ 이역 땅의 명협 풀은 자주 시들리라(頻凋異地蓂)"라고 한 것이리라. 그의 위로는 명협마저 빨리 시들게 하여 일본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켰을 것이란다. 명협은 달력이 없던 시절 이를 알려준 풀의 이름으로, 1~15일까지 매일 한 잎이 났다가 16~30일부터 매일 한 잎씩 떨어졌다는 것인데 이는 요임금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와 교유했던 승려로는 화스님(華上人), 덕연 스님(德連上人), 의수 스님(義脩上人), 법흥, 찬, 지온, 현, 성주, 인, 쌍순 승려 등이 있고 이외에도 다수의 스님들과 교유한 흔적이 보인다. 특히 그가 '덕연 스님의 시축 중에 운을 차운하여(次德連上人軸中韻)'라고 쓴 시에는 덕연 스님과 얼마나 깊은 정을 나눴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막한 곳 그 누가 방문하리오(寂寞誰相問)
비낀 해만 저녁 창에 내려온다네(斜陽下夕櫺)
귀밑머리 희어짐을 어찌 견디랴(那堪愁鬢白)
푸르른 고향 산만 내내 그리네(長憶故山靑)
대궐에선 그래도 벼슬을 하고(紫 猶通籍)
현정에선 경서만을 끼고 있다오(玄亭獨抱經)
봄이 오면 그대를 찾아가려 생각하니(春來思訪汝)
장실에다 빗장일랑 걸지 마시오(丈室不須)

덕연 스님은 수행승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의 선방을 찾아가는 건 석양뿐이었을 것이다. 이런 고승과 교유했던 윤근수는 늙어가는 자신을 감당하기 어려워 늘 푸르른 고향의 산만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현정에선 경서만을 끼고 있는(玄亭獨抱經)" 자신일 것이다. 그러므로 혼탁한 세상을 사는 그는 "봄이 오면 그대를 찾아가려 생각하니(春來思訪汝)/ 장실에다 빗장일랑 걸지 마시오(丈室不須)"라고 했다. 따뜻한 봄날, 덕연 스님을 찾아가 속진을 씻어내려 했던 그의 태도는 난세를 살아가는 이의 방편일 것이다. 한편 현정(玄亭)은 원래 한나라 양웅이 〈태현경(太玄經)〉을 지으면서 머물던 집이다. 초현당(草玄堂), 초현정(草玄亭)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줄여 현정(玄亭)이라고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학문하는 사람의 정자를 지칭한다. 다시 '법홍 스님의 시축에 지어주다(題法弘上人軸)'를 살펴보자.

낙엽 지는 성 서쪽 마을에(落木城西巷)
맑은 가을 상쾌한 기운 더해 가는데(淸秋爽氣增)
부질없이 두 봉우리는 시야에 들어오건만(兩峯空在望)
서글프게 중양절에도 오르기 어려웠네(九日 難登)
절기가 지나가니 국화는 늙어가고(節去黃花老)
서리에 시든 듯이 흰머리만 자라누나(霜凋素髮仍)
서로 만나 빼어난 시구를 감상하니(相逢看秀句)
멀리서 온 스님, 몹시도 고맙네(多謝遠來僧)

이 시는 늦가을에 지었을 것이라 추정되는데 법홍 스님의 시축에 제시(題詩)한 것이다. 그가 "절기가 지나가니 국화는 늙어가고(節去黃花老)/ 서리에 시든 듯이 흰머리만 자라누나(霜凋素髮仍)"라고 한 것에서 가을임을 드러낸 것이며 "멀리서 온 스님에게 몹시도 고마워(多謝遠來僧)"하는 건 바로 "서로 만나 빼어난 시구를 감상(相逢看秀句)"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당시 시를 주고받는 일이 유불의 교유에서 얼마나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진정한 벗은 승속을 가리지 않는 법. 뜻을 나눌, 시를 함께 창수할 벗을 귀하게 여긴 뜻도 여기에 있었으리라.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니까야서 길을 묻다 팔정도(八正道) ⑦

계율 바탕 둔 유익함의 성취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하도록 노력하여 나아감'(正精進)에 대한 〈대념처경〉의 설명을 들어보자.

"비구들이여, 여기서 비구들은 [마음속에]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하고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에 힘쓰고 마음을 잡아 노력을 기울인다. 이미 생겨난 악하고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켜 정진에 힘쓰고 마음을 잡아 노력을 기울인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유익한 것들은 생겨나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에 힘쓰고 마음을 잡아 노력을 기울인다. 이미 생겨난 유익한 것들은 지속시켜 흩어지지 않게 하고 더욱 넓히고 닦아서 가득 채우기 위해 의욕을 일으켜 정진에 힘쓰고 마음을 잡아 노력을 기울인다."



그림 · 나은영

긴 내용으로 보이지만, 반복되는 구절을 제외하면 네 가지 노력으로 압축된다. 여기서 노력의 전모는 '유익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스스로의 마음에 '아직 생겨나지 않음'과 '이미 생겨남'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해로움'의 발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들을 사실대로 인지하여 해로움은 제거하고 유익함은 확장하려는 노력이 바로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하도록 노력하여 나아감'(正精進)의 내용이다.

이 네 가지 노력은 불교 교의에서 '네 가지 꾸준한 노력'(四正勤)이라 부르는 것인데, 실천수행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깨달음을 이루는 37갈래의 실천수행'(三十七菩提分法)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또는 37가지 방법으로 도(道)를 성취하는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뜻에서 '37조도품'(三十七助道品)이라고도 한다.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八正道) 또한 서른일곱 중의 여덟 가지 요소이므로, 실천수행론의 종합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들 하나하나의 면모에 대해서는 차차 살펴볼 것이다. 분명한 것은 '힘써 나아감'(精進)의 목적지가 '유익함'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의 처음부터 제시하였지만, 불교 수행 길의 제1번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하도록 노력하여 나아감'(正精進)의 의의는 그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하나의 설정에 머물러 있지 않다. '유익함'의 성취를 위한 노력은 지켜야할 원칙과 규율, 그리고 끊임없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계율정신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며,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견해 및 사유가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지혜'의 갖춤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어(正語) · 정업(正業) · 정명(正命)이 계율의 성격을 띠고, 정견(正見) · 정사유(正思惟)가 지혜의 영역에 속한다면 정정진(正精進)은 이들과 결합된 수행 길로써의 의미와 성격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팔정도는 여덟 가지 서로 다른 수행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걸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수행길이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 출발하든 처음부터 유일하거나 우월한 길이란 없으며, 서로에게 열려 있는 그저 하나의 길이요 동등한 가치를 지닌 길이 펼쳐져 있을 뿐이다. '팔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여덟 갈래의 길 하나하나는 서로에게 열려 있고 맞물려 있는 실천체계인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요소다. 〈대념처경〉에 따르면, 정념은 사념처(四念處)로 정정은 사선(四禪)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설명을 제대로 풀어내려면 긴 논의가 필요하므로 팔정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갖가지 불교명상의 하나하나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종교 울타리 넘은 도반들…



시민자원봉사연합회 도반들이 배식봉사를 앞두고 활짝 웃고 있다. 사진 뒷줄 세 번째가 회장인 도원 스님이다. 앞줄은 이날 봉사팀으로 나선 푸른마을 아파트 부녀회 회원들. 이중 2명이 성보사 신도라고 밝혔다.

道伴의 향기

시민자원봉사연합회

"종교는 달라도 이웃사랑은 한가지입니다."

6월 14일 낮 12시 무렵, 한산했던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의 한 건물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찾아들었다. 200㎡ 남짓한 식당에 가득 모인 80여 어르신들에게 봉사자들이 따뜻한 김이 나는 음식들을 나르기 시작했다. 여름의 무더위 속에 땀을 흘리면서도 봉사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밝은 웃음을 보이는 이들은 시민자원봉사연합회(이하 시자연) 소속 자원봉사자들이었다. 불교를 비롯해 개신교 신자들로 이뤄진 이들은 2008년부터 고양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8년째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을 하며, 종교를 초월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고양동은 고양시에서도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배식이 진행된 시민자원봉사센터는 멀리 떨어진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신해 지역민들의 복지센터 역할도 맡고 있었다. 인근 복지시설이 없는 복지 사각지대였기에 시민자원봉사센터에는 한 끼 해결을 위해 찾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몰려드는 어르신들로 인해 봉사센터 식당은 배식을 시작하고 금세 북새통을 이뤘다.

밀려드는 어르신들로 봉사자들은 연신 식판에 밥을 뜨고, 반찬을 올리느라 분주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직접 식판을 나르는 한 스님이 눈에 띄었다. 바로 시민자원봉사연합회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성보사 주지 도원 스님이었다. 스님은 단순히 어르신들의 점심이 담긴 식판을 전달한 것이 아니었다. 어르신들의 근황을 묻기도 하고, 함께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한 어르신은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스님에게 속옷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날 배식을 받은 김정흥(법계화, 92) 씨는 "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며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딸을 위해 매일 사찰에서 함께 기도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어려운 사정을 챙겨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회 문제에 사찰이 구원투수로

스님이 사찰 소속의 봉사단체를 창립해 활동하는 경우는 많지만 시민봉사단체를 이끄는 경우는 드물다. 어떻게 해서 사찰 주지스님이 지역 시민봉사단체를 이끌고 있을까. 사연은 길었다.

2008년 지역민 돕는 취지로 창립
2013년 재정난에 도원 스님 나서
성보사 신도 재정 후원, 봉사 앞장
어려움 딛고 지역봉사 중심 '우뚝'

도원 스님이 시자연을 맡게 된 것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시자연은 고양동 일대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우일덕 개명장학회장과 김금복(주)통일로 사장이 지역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만든 단체였다.

출발은 고양동파출소 옆 가건물 무료급식소로 시작됐다. 지역민들의 나눔활동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지역 불자들도 봉사에 동참했다. 특히 시자연 사무실 인근 성보사 신도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배식봉사에 동참한 성보사 신도 최인숙 보살은 "처음에는 옆집 사람의 동참권유로 봉사에 나서게 됐다. 고양시 불교봉사단체인 천수천안봉사단 활동도 하고 있지만, 동네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돕자는 취지가 좋아 동참했다"며 "성보사 내에서 많은 이들이 취지에 공감해 먼저 봉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신도들이 봉사활동에 나서자 자연스럽게 주지스님도 단체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스님은 처음에 한 명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2013년 2대 회장을 맡았던 개신교회 목사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며 사퇴하게 됐고 시자연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 시자연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봉사자들은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도원 스님에게 시자연을 부탁했다.

스님은 처음 거절 의사를 표했으나 주변의 설득에 "동네에서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회장직을 맡게 됐다.

봉사단체를 이끄는 것은 감투가 아닌 봉사자의 봉사직이었다. 당시 시자연은 고양시에서 지원받던 28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끊긴 상태였고, 후원자도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다른 문제보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컸다. 스님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했다. 하지만 성보사 신도들이 힘을 보태게 됐다.

"평소에 스님이 신도들에게 사찰 재정을 공개하고 집행 시에도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스님이 시자연을 맡게 된 것을 신도들이 알고 속사정을 듣게 되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현재 시자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허계숙 보살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허 보살은 "당시에는 배식봉사팀도 지금보다는 적었다"고 전했다.

도원 스님과 신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후원금을 지원하고 다른 배식봉사자들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무료급식을 진행하나보니 봉사자들이 늘기 시작했다. 후원도 꾸준히 증가해 200여 명이 동참하고 고양시와 경기도에서도 다시 지원금이 나오게 됐다.

현재 시자연의 한 해 사업비용은 1억3000만원. 후

내 안에 무지개를 이끌어 내는 칼라, 크리스탈 스토리
'꼭 필요한 공부'

운명을 바꾸는 공부	먼저 나의 운기부터 바꾸는 공부 이젠 하셔야 합니다. 남의 운명을 봐주기 전에, 업장의 색깔에 덮혀있는 자신의 빛깔을 끄집어 내셔야 합니다.
색상	진정한 보라색(바이올렛)은 현실 생활도, 수행도 함께 잘한다. ▶ 정신적 : 블루, 로얄블루 ▶ 육체적 : 옐로우, 오렌지 ▶ 핑 크 : 오랜 분노를 삭히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승화시켜 돈 문제 해결
내용	몸이 청소가 안되면 (의식공부 = 칼라 공부)를 못 받아 들인다.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의식도,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예전에는 → 지식으로 살았다. 현재에는 → 아님, 가르치는 자가 했던 일을 현재는 인터넷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바다는 너무 믿고 가면 안된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생각이 난무하는 시대, 지금은 창의력으로 자신도 가고 상담자에게도... 이젠 동토, 상문, 조상 탓만이 아닌 멘토가 되어 주어야 한다.
적용	포교원, 사찰, 철학관, 운영에 꼭 필요한 이시대 공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일반인, 누구나, 상사, 동료, 부하직원, 친구와의관계, 부부 자식간의 관계 잘 다루어 가게 됩니다.

※ 특전 : 칼라스토리 공부 외 재미있고 정확한 숫자운세, 관상을 함께 가르쳐 드립니다.

문의 : 010-5658-2657



법민스님의 산사음악회 CD 발매



산사음악회 CD 목차
① 목탁새
② 계명암 오솔길
③ 백일기도
④ 소원
⑤ 업보
⑥ 상념
⑦ 사랑은 주는거야
⑧ 님이 오는 소리
⑨ 목탁새(slow)
⑩ 목탁새 경음악

법민스님은 2004년 범어사 계명암오솔길을 직접작사하여 찬불가음반을 발표하고 2006년 목탁새 노래로 방송 활동 중이며 2016년 3월에는 일본 고베 켄벤션센타에서도 콘서트공연을 가졌다.

현재 전국가요대행진 등 복지TV, 실버TV, 아이넷TV, MBC넷 등 방송 활동과 산사음악회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음반 수록곡으로 소원 · 업보 · 님이오는 소리 · 상념 등이 있다.

각종 사찰행사에 음성 공양 원하시는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구입문의 다산불원
051-231-6455 / 010-9049-0016
• 후원계좌 : 국민은행 106937-04-001891 다산불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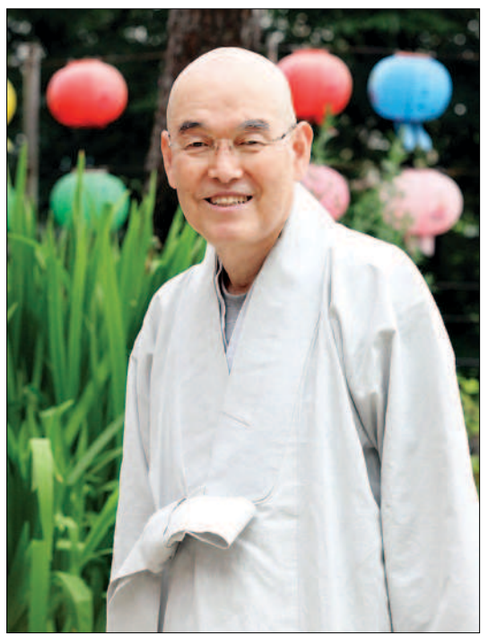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8년째 자비 나눔 '훈훈'


시민자원봉사연합회장 도원 스님.



2011년 12월 열린 시민자원봉사연합회 제3회 봉사자의 밤 행사.



2012년 4월 연합회 전문자원봉사자 교육 모습.



2015년 연합회 제5회 노인의날 경로대잔치.



2013년 2월 고양새마을금고 쌀 및 후원금 전달식.

원금과 지원금을 제하고도 센터 임대료와 고정 인건비 등 연간 6000만원을 지금도 성보사에서 지원하고 있다.

시자연 활동을 하고 있는 성보사 신도 이인자 보살은 "배식봉사와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편안하시라고 집에서 매일 108배도 올리고 있다. 일산 신도시에서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나오는데, 몸은 고달파도 마음은 행복하다"고 말했다.

도원 스님은 "시자연을 맡은 2013년에는 한 개 팀이 무료도시락을 30개나 배달했으나, 현재 네 개 팀이 하루 100여 개를 배달하고 있다"며 "많은 곳에서 요청이 들어오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20여 분에게는 보내지 못하고 있다. 여력이 된다면 도시락을 더 드리고 싶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법사회서 출범해, 도반으로 뭉쳐

시자연의 어려움에 적극 나선 성보사는 여타 사찰과 다른 독특한 점이 있었다. 성보사 스님과 신도들이 일치단결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승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도원 스님은 故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가 창립한 대한불교법사회 출신으로 1970년대 초 불교에 귀의 후 유마선원 이재열 법사 등과 함께 수학했다. 이후 스님은 1977년 재가불자들과 불광동 한 건물 옥탑에 작은 법당을 만들었고 이것이 성보사의 시작이었다. 당시 스님은 불자들과 공부하는 교육도량으로 사찰을 꾸렸다. 이론교육과 함께 실천을 위해 스님과 불자들은 1984년 고양불교산악회를 구성하고 산림정화, 지역 어르신 돕기 등 사회활동에 나섰다.

1990년 삼송지구가 재개발되며 성보사는 고양동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후 사찰합창단을 구성해 지역사랑음악회를 5년 연속 개최하는가 하면 매년 경로잔치와 성보사장학회를 통한 장학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도원 스님은 고양시사암연합회 사무총장을 지내고 2001년 천수천안불교자원봉사단 구성에 중심역할을 했다. 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고양시불교사암연합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성보사 신도 최경숙 보살은 "1970년대 불광동 옥탑시절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다녔다. 스님을 비롯한 신도들 모두가 불교의 사회기여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보살은 매주 첫째 주와 넷째 주에는 시자연 봉사를, 천수천안봉사단에서도 매주 1회씩 봉사하고 있다. 최 보살은 고양시로부터 6월 21일 자원봉사왕에 뽑히기도 했다.

최 보살은 "성보사에서 매년 자선바자회인 녹빛축제를 여는데 그 수익금으로 무료급식소를 지원하고 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한마음으로 뭉쳐 하다 보니 지금은 재미있게 하고 있다. 신심도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민 한마음 뭉치는 계기로

시자연은 성보사가 활동에 열심이지만 불교, 기독교, 고양시의 시민단체들 모두 한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흥국사, 약천사 등 지역사찰 신도들과 인근 교회, 성당, 고양동과 관산동 주부단체들이 매일 조를 짜서 조리 봉사를 한다.

성보사 법사도량으로 77년 출발
재정공개로 신도 참여열기 높아
17년 삼송 이전, 나눔 터전으로
도원 스님 "사회기여 지속할 것"

스님은 날씨가 더워지는 초여름에도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이들의 수고가 있기에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상과 위로를 받는다고 했다. 특히 100여 명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시자연 회원들이 직접 만든 도시락과 밑반찬을 전달하고 청소와 말벗을 해주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병원에 모시고 가 치료를 돕기도 한다.

신득철 자문위원은 "고양동 일원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전에는 매년 4~5명의 독거노인들이 의문사 하거나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최근 2년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찾아가 독거어르신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드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자원봉사연합회는 2009년도 고양시 시민자원봉사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도원 스님은 "한번은 매일 도시락을 드리기 위해 찾던 한 어르신 집 문이 잠겨 있어 119를 급하게 불렀다. 함께 들어가 보니 어르신이 쓰러져 계셔서 병원에 후송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신 상태다"고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교회 집사인 김준호 감사는 "사찰에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불교포교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처음 창립한 그 취지대로 지역봉사에 집중하는 것에 스님과 사찰신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고 싶다"며 "올해 스님이 연임했는데 그런 점을 시자연 봉사자들이 모두 느꼈기 때문이다. 불교에 대해서도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많은 봉사자들 중에 도원 스님은 특히 고양동 젊은 주부들의 모임인 '고아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고아미'는 '고양동 아이들과 어머니들의 MEET'이란 뜻의 줄임말로 6000여 회원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다. 이경민 고아미 대표가 현재 시자연 부회장을 맡아 회원들과 참여하고 있다.

이경민 대표는 "시자연은 현재 주민주도 봉사에 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상적인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다. 제도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복지나눔을 실현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원 스님은 "향후 일반시민들도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기후원금을 3000원, 5000원, 1만원 등 다양하게 변경할 계획"이라며 "2017년 삼송지구 개발이 끝나 다시 성보사 이전이 계획되고 있다. 지금 사찰건물을 지역민들을 돕는데 쓰는 등 나눔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가고 있다.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이 시대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부처님의 자비심이 곳곳에서 세상을 밝히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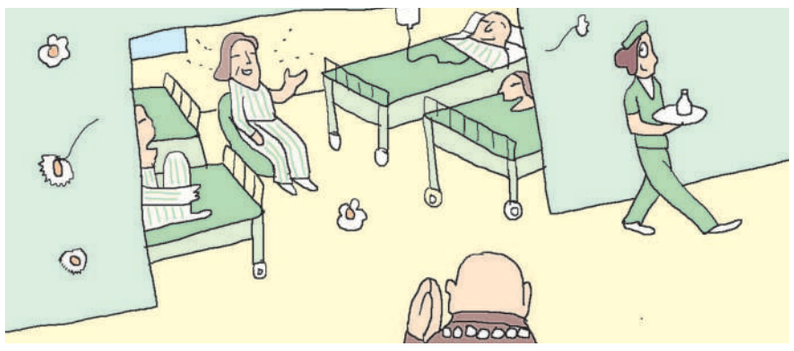
전법일기

꽃 진 뒤 향기 가득하네

"스님~ 저희 병실에도 오셨네요. 호호!"

경찰병원 병실을 순회하며 환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어느 병실에서 한 보살님을 만났다. 자신의 이름이 '숙희'라며 앉을 자리까지 마련해준 보살님은 전혀 환자로 보이지 않았다. 환자보다는 간병인에 가까울 만큼 웃음이 많고 목소리도 밝았다. 어찌나 반갑게 맞아주시던지 그 이후로 숙희 보살님이 있는 병실을 방문하는 발걸음은 무척 가벼웠다.

숙희 보살님은 몸이 좋지 않아 몇 년 동안 수시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먹을 것이 있으면 같은 병실 환자들과 고루 나눴다. 특히 자신도 같은 환자인데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인연으로 아는 환우들을 찾아가 말벗을 해주며 상대방을 즐겁게 했다. 유쾌한 성격 덕분이었는지 숙희 보살님은 경과가 좋아져 이내 퇴원했다.


그림 · 박구원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 병실을 순회하다가 숙희 보살님을 다시 만나게 됐다. 하지만 처음엔 그저 닮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만큼 내가 알던 숙희 보살님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얼굴과 온몸이 퉁퉁 부은 숙희 보살님은 가까이 다가가서 봐야 밝았던 옛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변해있었다. 급성 유방암이 원인이었다. 긴급하게 수술이 진행됐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경승실장 스님과 함께 병문안을 갔다.

"스님, 마취에서 깨어나 정신차려보니 두 손을 침대에 묶어두었는데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요. 제 손목 좀 보세요. 아직도 퍼런 멍이 있어요. 내가 예수도 아닌데 왜 팔다리를 묶어놓았는지…."

아픈 몸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농을 던지는 숙희 보살님.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 웃음이 터졌다. 사실 중환자실에 면회 갔다가 숙희 보살님의 몸부림을 본 적이 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팠을 텐데 "소문이 다 났다"며 우스갯소리를 하는 보살님의 마음이 무척 고마웠다.

수술이 성공적이었는지 숙희 보살님은 퇴원할 수 있었다. 보살님이 병원을 나설 때 앞으로 달덩이 같은 푸근한 웃음 지을 일만 가득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숙희 보살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았다.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돼 손가락조차 오므리고 펴기 힘들다고 했다.

"스님! 그때 그냥 (저 세상에) 갔어야 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더 예쁘게 열심히 사셔야죠."

"오로지 한 구멍으로 가는데…. 도착할 곳은 하난데…. 눈 한번 감았다 뜨니 날이 가고, 달이 가고, 1년이 벌써 지나가네."

혼잣말처럼 무심코 던진 숙희 보살님의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았다. 긴 투병에 어찌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았으리. 얼마 뒤 보살님은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악화돼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렇게 숙희 보살님은 이틀간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임종을 맞았다. 극락세계로 편히 가시라고 나무아미타불 정토염불을 올렸다. 보살님의 가족들은 생전 고인의 원대로 동국대병원에 시신을 기증했다.

숙희 보살님은 몇 년간 의료진의 도움을 받은 것에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겠다며 남편과 상의해 시신 기증을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고인의 거룩한 뜻이 의료발전 밑거름이 돼 같은 병으로 고통 받는 환우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마지막까지 보시하는 삶을 살다 가신 고인의 넉넉한 마음. 밝은 빛깔의 꽃 한 송이가 졌는데, 꽃이 진 후에도 방안 가득 그윽한 향이 풍겨 나오는 느낌이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데 문득 숙희 보살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무관 스님(서울 경찰병원 법당 지도법사)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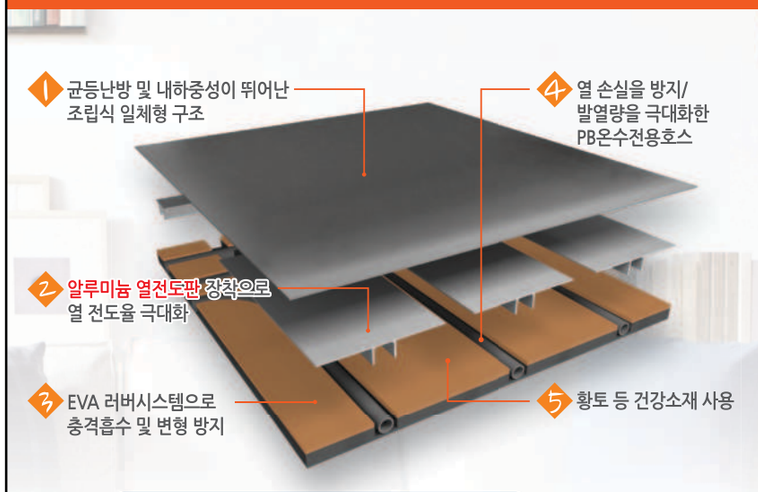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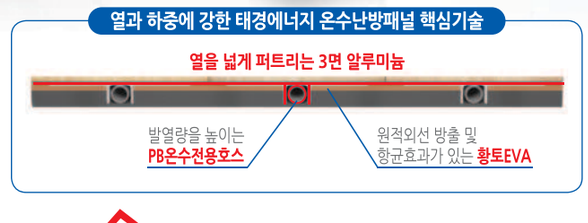
뜨시고 따시고
스님, 불자님
이제 연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조달청등록기업
MBC, KBS 방송광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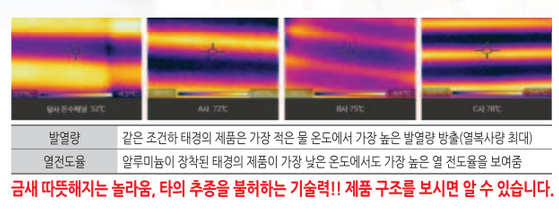

태경에너지 홍보이사 / 배우 이동준

난방비 50% 이상 절감 / 반영구적 수명
내하중성 최고 / 전자파 ZERO



01 황토발포단열 EVA 사용
02 업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56%,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03 알루미늄을 이용한 방열식 온수난방패널 (특허 10-1386923호)
04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제품
05 난방비 50% 이상 절감 (45℃ 이하의 저온수 난방 제품)





금새 따뜻해지는 놀라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 제품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태경에너지 TAEKYUNG 온수온돌판넬 전문기업
대리점 및 제품구입문의 1833-8404 www.태경에너지.kr
가스, 전기, 기름보일러 등 어디든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戒門'을 수행하는가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시문(施門)에 이어 계문(戒門)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본문에서 밝혀 놓는다. 계는 수행을 시작하는 출발이지만 결국 어떻게 윤리를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불교 최고의 윤리라 할 수 있는 ① '죽이지 말라(不殺生)'에서부터 ② '도적질 하지 말라(不偸盜)' ③ '간음하지 말라(不邪婬)' ④ '이간질 하지 말라(不兩語)' ⑤ '욕설하지 말라(不惡口)' ⑥ '거짓말 하지 말라(不妄語)' ⑦ '꼬이거나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不綺語)' ⑧ '탐욕스런 생각을 하지 말라' ⑨ '시기, 질투, 분노하지 말라' ⑩ '그릇된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의 10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이른바 십악(十惡)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윤리적 실천행의 기본 자세가 이 열 가지 악을 피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사회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윤리의식을 나타낸 말인 반면 출가 수행자가 처신해야 하는 특수한 환경에 대해서도 말해 놓았다.

만약 출가수도자일 경우 우선 번뇌를 없애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기 위해 시끄러운 곳을 떠나 고요한 곳에 처하여 욕심을 줄이고,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습관을 길러 금욕(禁慾) 고행 등을 익혀야 한다. 아주 가벼운 죄를 짓더라도 두려운 마음을 내고 뉘우쳐 고치며, 여래가 제정한 금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남의 비방을 받지 않도

"그름을 막고 악을 그친다"

戒의 의미… 실천 강조 '律'

록 몸가짐을 잘 단속해서 중생들이 함부로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戒)는 원래 범어 'sila(尸羅)'를 번역한 말이다. 본래 부처님 재세 시 외도들의 비행(非行)에 대해 불교도들에게 내린 수행생활의 규범이었다. 자율적으로 좋은 행동의 습관을 기르는 것으로 잘못된 행동을 사전에 방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계의 의미를 예로부터 "그름을 막고 악을 그친다(防非止惡)"는 뜻으로 설명해 왔다. 계의 조목은 중계(重戒)로부터 경계(輕戒)에까지 그 수를 늘려가면서 제정되었다. 오계, 십계, 구족계인 비구니가 수지하는 250계, 348계 등이 있다.

그런데 계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계에 '율(律:vinaya)'을 붙여 계와 율의 복합어인 계율(戒律)이란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계가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실천되는 것이라면 율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타율적인 요소가 추가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율이라는 용어 자체는 수행자 개인의 자발적 의지와 교단 통제를 위한 규범을 준수하는 의무가 동시에 갖추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계율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와 남을 위한 가장 윤리적인 모범이 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계율은 일반적으로 소승계와 대승계로 구분이 되지만 기본계율은 오계가 근본이 된다. 소승계는 오계를 중심으로 팔계, 십계 그리고 구족계라 불리는 출가승이 수지하는 비구계와 비구니계 등의 금계(禁戒)로 되어 있는데 대승계는 대승불교의 이상적 모델인 보살이 등장하여 이타행을 실천하는 점에 맞추어 계의 정신을 이타원력 쪽으로 두어 보살계가 나오게 되었다.

대승불교가 일어난 초기에는 〈반야경〉에 의거한 10선계(十善戒)가 강조됐으며, 중기에는 〈해심밀경〉에 의거한 삼취정계(三聚淨戒)를 내세운 새로운 계율사상이 등장하였다. 섭율의계(攝律儀戒)와 섭선법계(攝善法戒)와 섭중생계(攝衆生戒)의 세 가지 정계를 실천하는 것이 대승보살도라 하였다. 섭율의계는 율의를 지킴으로서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며, 섭선법계는 금계(禁戒)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인 선행을 닦아 이타행을 성취하는 것이며, 섭중생계는 중생을 보살로 살게 하여 성불을 기약하도록 하고 불국정토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유가론〉이나 〈보살지지경〉, 〈보살선계경〉 등의 유가계(瑜伽戒)를 설한 경전에서는 소승계를 율의계로 받아들여 보살계 안에 수용·정착시키고 있다. 〈범망경〉과 〈보살영락경〉 등에 설해진 계를 범망계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보살계 수계의식이나 포살의식이 주로 〈범망경〉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탐욕의 불길 끄는 건 베푸는 마음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㉖ 보살이 보이는 자비심

菩薩悲心遍一切處。於彼乞者特生憐愍。菩薩悲心見乞者和　悅色。使彼乞者生必得之想。乞者見菩薩　色和悅之時。ææ生決定必得之想。菩薩見乞者時。語言。汝來欲須何等隨意而取。安慰之言。善來賢者莫生恐怖。我當為汝作依止處。如是種種安慰乞者。常以愛語使彼乞者心得ㄴ　。種種財寶隨意而與。諸乞求者貪火熾盛。菩薩常以施乳滅貪求火。若能如是種種施者。名為生人。若不如是名為死人。(보살비심변일체처。어피걸자특생연민。보살비심견걸자화안열색。사피걸자생필득지상。걸자견보살안색화열지시。즉생결정필득지상。보살견걸자시。어언。여래욕수하등수의이취。안위지언。선래현자막생공포。아당위여작의지처。여시종종안위걸자。상이애어사피걸자심득청량。종종재보수의이여。제걸구자탐화치성。보살상이시유멸탐구화。약능여시종종시자。명위생인。약불여시명위사인。)

번역

보살의 자비심은 일체의 곳에 두루 미치나니, 구걸하는 이에게 특별히 연민을 일으킵니다. 보살은 자비심으로 구걸하는 이를 온화하고 기쁜 얼굴색으로 보며, 구걸하는 이로 하여금 반드시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구걸하는 이가 보살의 온화하고 기쁜 얼굴색을 봤을 때, 곧 결정코 반드시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구걸하는 이를 만났을 때 말하기를, "그대가 와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가지소서" 하며, 안심시키고 위로하기를, "어서 오세요. 어지신 이는 두려워 마소서.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해 의지처가 되리다"하며, 이와 같이 가지가지로 구걸하는 이를 안심시키고 위로합니다. 항상 사랑스런 말로써 그 구걸하는 이가 마음에 청량함을 얻도록 하며, 가지가지 재물과 보배를 뜻에 따라 베풉니다. 모든 구걸하는 이의 탐욕의 불길이 치성할지라도 보살은 항상 베풀고 먹임으로써 탐욕으로 구하는 불길을 소멸시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능히 가지가지로 베푸는 이라면, 사람을 살린다고 부르나니, 만약 이와 같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해설

보살도를 배움에 있어 누구나 최상승의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최상승의 보살도를 배우지 않으면,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높은 곳에 이르려는 이가 궁극적 목표로 눈앞의 언덕만을 보고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한 걸음 한 걸음은 눈앞이지만 궁극적 지향점은 저 고준한 곳이어야만 한다. 제바라보살은 그런 의미에서 〈대장부론〉을 통해 최상승의 보살도를 제시하고 있다.

과연, 어느 누가 욕심을 떠난 이가 될 수 있을까? 욕심을 떠난 이는 해탈한 이다. 해탈한 이는 진정 사내대장부다. 사내대장부는 삼계(三界)를 벗어난 대도사(大導師)다. 도사(導師)는 길을 안내하는 스승이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탐욕심을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제바라보살은 말한다. 그렇다면, 탐욕의 불길에 휩싸인 이가 구걸하는 타인일까?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일컫는 것이리라. 따라서 그 구걸하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우리는 언제나 탐욕의 불길에 휩싸인 채 갈급하게 구걸하는 존재다. 그러면서 한편, 우리는 스스로 그 탐욕의 불길을 끌 수 있는 보살이기도 하다. 그 탐욕의 불길을 끌 수 있는 길은 베푸는 것뿐임을 제바라보살은 알려준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바른불교 바른신앙

사자암 입구에는 바른불교, 바른신앙이 제법 큰 글자로 바위에 새겨져 있다. 주지로 온지 얼마 안되어 석공을 시켜 새긴 것이다. 사자암에 얼마 머물지는 모를 일이나 머무는 동안 바른불교, 바른신앙의 파수꾼이 되고 싶었다. 방편을 앞세워 눈높이를 구실삼아 신앙을 돈으로 흥정하는 부끄러운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낮과 밤을 오픈하여 쥔 주먹을 펴서 보이는 것처럼 말끔하고 개운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고 싶었다. 생일불공, 대학입시, 합격기도 등은 사자암에서 찾아볼 수 없도록 했고 49재 경우 쌀 한 말이나 두 말 정도로 신도들의 경제 부담을 줄여나갔다.

목이 타는 갈증에는 스스로 물을 마셔야 하고 오줌이 마려우면 스스로 화장실에 다녀와야 하는 평범한 논리로 자기 불공은 자기 스스로 하도록 했다. 하루는 김제에 사는 어느 노보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들의 사업이 잘돼 다음달 시골 어머니의 집을 새로 지어주고 싶은데 길일(吉日)을 묻는 전화였다. 초닷새나 이레 중 택일해주면 아들이 내려오겠다는 설명이다. 나는 잠시 뜸을 들인 후 "초닷새도 좋고 이렛날도 좋습니다"고 답변했다. 한달이 지나 김제의 보살이 또 전화했다.

지난번 스님이 정해준 날짜에 아들이 바쁜 일이 생겨 다음 달 중순쯤으로 집 짓는 길일을 정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역시 잠시 뜸을 들인 후, 중순은 모두가 길일이라서 열하루에서 스무날까지 어느 날에도 집 짓는 택일로 매우 좋다고 말하였다.

본래 동·서·남·북은 없는 것이다. 발길 닿는 곳이 동·서·남·북의 중앙이요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길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열리면 날마다 좋은 날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신도들과 연등만들 때 30대 후반의 여인이 찾아왔다. 수줍음이 많은지 요사채에 들어오질 않고 밖에서 잠시 신앙상담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종각 밑에는 그 여인의 남편과 어린 사내아이가 초조한 표정으로 어색하게 합장인사를 하고 있었다. 사연인즉 그들 부부에 있어 외아들인 6살 아이가 잠을 자다가 헛소리를 하며 잠이 깨어서도 귀신이 보인다며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가끔씩 보인다는 것이다. 하여, 병원에도 다녀오고 무당집에도 여러 차례 찾아가 귀신 쫓는 굿까지 하였다. 그래도 증상이 호전될 기미가 없자 입소문을 통해 사자암 주지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들 부부와 아이를 법당 안으로 안내했다. 장삼에 가사까지 걸친 후 6살 사내아이를 법당의 중앙에 편하게 앉게 하고, 엄마와 아빠를 아이의 좌와 우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게 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힘 있게 말하였다. "이 아이는 장차 사회에 있어 빛이 되고 나라에 있어 대들보가 될 훌륭한 큰 인물이 될 관상을 타고난 아이입니다. 매우 보기 드문 아이라서 승려인 제가 아이를 향해 3배를 올릴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에게도 존경의 의미로 3배를 올립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 놀라고 있었지만 아이에게 3배, 부모에게 3배, 여섯 번의 큰 절을 마친 후 나직한 음성으로 부모에게 말하였다. "두 분도 일어나 큰 인물이 될 아이에게 큰 절로 3배를 하시지요."

방편으로 신앙 흥정 행위는 근절돼야

갈증에는 물을 마시듯 불공도 스스로

사자암을 떠나며 아이도 그의 부모도 웃고 있었다. 믿음과 용기, 희망으로 귀신 따위는 이미 사라진, 꿈이 부풀어 있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또 하루는 이른 새벽에 일어난 일이다. 진돗개가 요란스레 짖어대 법당의 뜰로 나가자 법당 안에서 누군가가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중년 남자였다.

사연인즉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생리할 무렵이면 마트 등에서 물건을 훔친다는 것. 상점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에도 두어 차례 다녀왔다. 하여, 나는 아버지와 딸을 작은 식당으로 초대해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 물론 아버지가 법당에 다녀간 사실도, 딸의 손버릇도 모른 체하고 대화를 이어갔다.

키 크고 예쁜 딸에게,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매우 보기 드믄 귀인이 될 관상입니다. 친구를 두급 이상으로 가려서 사귀되 꿈과 희망을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품격 높은 귀인(貴人)의 삶을 누릴 관상입니다."

딸은 현재 대학원에서 희망을 키워 가고 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자암 신도가 되어 바른불교, 바른신앙을 배우며 실천 하고 있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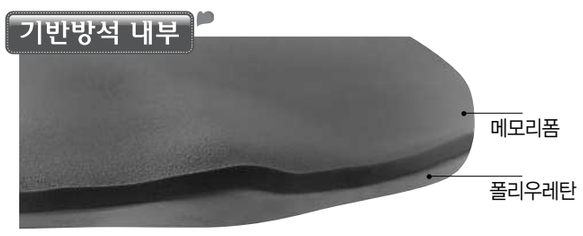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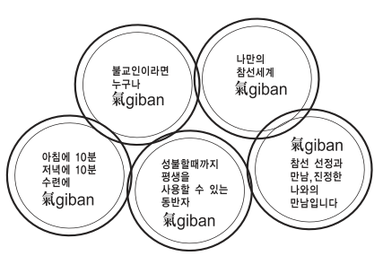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無明서 벗어나라"… 자유를 화폭에 담다

禪과 현대미술
⑫ 게르하르트 리히터 (Gerhard Richter)

동서를 가르는 커다란 장벽이 형성되기 바로 직전 그는 자유를 찾아 서독의 뒤셀도르프에 오게 된다. 짧지 않은 시간 전쟁과 분단, 이념의 갈등 속에서 예술가가 되기 위한 그의 노력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며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1932~, 독일)는 살아 있는 예술가 중에 최고의 찬사를 받는다. 무엇이 그를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삶과 예술을 주목하고 있다.

살아 있는 작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리히터는 이미 미술사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예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적 가치를 찾아보고자 한다.

어린 시절 동독의 드레스덴에서 살았던 그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대의 흐름 속에 휩싸이며 혼돈의 역사적 과정을 온 몸으로 경험하여야 했다. 이념으로 분단된 동독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젊은 시절 삶의 본질과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커다란 충격의 연속이었다. 그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일상의 삶이 모두 같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생각은 그가 드레스덴의 미술대학을 다니면서 표현의 자유조차 없는 것에 깊은 고뇌를 느끼게 되며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누가 어떠한 힘으로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 감정과 감각을 통제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에서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자유' 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고통을 인내하며 1961년 그는 드디어 서독의 예술중심지인 뒤셀도르프에 도착하게 되며 대학에 진학하여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자유에 대한 자유로움을 즐기기에 현실은 그에게 그리 쉽지 않았다.

서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였지만 동독 출신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가 않았다. 그는 생존을 위하여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게 된다. 자신이 동독에서 배웠던 예술적 능력을 발휘하여 짧은 시간에 인정을 받기 시작하였다. 사진보다 더 사진 같은 그림을 그리며 자신이 인지하는 대상과 현실의 깊은 골을 조금씩 채워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리히터는 예술에서도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기존의 사진을 이용한 표현에서 벗어나서 대상이 사리지고 이미지만 남는 추상적 표현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재현적인 요소가 사라진 화면은 대상에 대한 이미지 즉 작가가 인지하거나 감정을 일으키는 관점들을 이미지화 하는 것이다. 더 이상 대상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는다. 중요한 요소는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자신의 깊은 울림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작가의 정신성이 되는 것이다. 당시 뒤셀도르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 'ZERO운동'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bstraktes Bild(260x200cm, Oel auf Leinwand, 1991)〉은 '추상화' 로 제목붙인 이 작품은 리히터 추상 회화의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강렬한 색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칠해지며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내고 있다. 색채의 개별적인 특성들보다 서로 혼합을 통하여 나타나는 새로운 질서와 조화를 그는 의도하고 있다. 리히터는 어떠한 것도 결정하지 않는다. 행위의 반복일 뿐 어떠한 목적성이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색채들이 서로 뒤엉키며 발산하는 에너지는 자신의 삶을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다. 화려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자신의 내면적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수행을 시작하는 초심자가 자신의 관념적 사고를 모두 벗어 버리듯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하고 신념처럼 간직했던 가치들을 한 순간 모두 벗어 버리는 행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엄숙한 의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작가는 치열한 생존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자신이 많은 부분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틀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무엇인가에 대한 관념이나 생각들이 자유로워지면서 자신의 작품은 더욱 강한 힘을 발산 하는 것이다. 필자가 이 작품을 독일 쾰른에 있는 루드비히 미술관(Museum Ludwig)에서 처음 보았을 때 받았던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다. 예술에 대한 깊은 고민이 많던 필자에게 이 작품은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제행무상(諸行無常)' 에 대한 이치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작품이다. 존재하는 것은 고정되어있거나 항상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이치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하지만 그것이 변화인줄을 알지 못 하면 그 생각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리히터의 작품 〈추상화(Abstraktes Bild, 260x200cm, 1991)〉.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색채들이 뒤엉키며 발산하는 에너지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대변한다.



작품 〈추상화(Abstraktes Bild, 82x62cm, 2003)〉는 검정색의 바탕에 반복해서 흰색을 칠하면서 나타나는 특성을 보여준다.

동독 태생, 자유 찾아 서독으로
생존 위해 사실적인 그림 그려
현실 넘기 위해 작품 변화 시도
'제로 운동' 에도 깊은 영향 받아

추상적 이미지로 관념 · 틀 탈피
작가 정신이 머무른 흔적 느껴

리히터의 이 작품을 보면 지금 사진으로 봐도 새롭다. 왜일까? 내가 보는 시각이 변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감각은 서로 다르다. 작품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ktes Bild(Oel auf Leinwand, 82x62cm, 2003)〉은 리히터의 생각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계속해서 많은 색을 칠하게 되면 검정색이 되거나 흰색이 된다. 즉, 다시 말해 모든 원색의 색을 계속해서 덧 칠하게 되면 결국에는 검정색이 된다. 각 개별적 특성들이 사라지고 모두가 혼합되어 어두운 색이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검정색의 바탕에 흰색의 물감을 계속해서 칠하게 되면 화면은 점점 밝아지며 흰색에 가깝게 된다. 이 작품은 검정색의 바탕에 반복해서 흰색을 칠하면서 나타나는 특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관념적 사고가 깊은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 낸다. 현실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며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을 더욱 공고히 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과 거리감이 있으며 결국에는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찾아가지 못하고 고정된 생각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자신의 생각 속으로 끌어 들여 자신의 관점이 옳다는 생각을 하며 현실과 멀어지는 것이다. 무명 속에서 방향을 잃은 것이다. 눈을 감으면 세상은 온통 검은색이다. 하지만 눈을 뜨면 세상은 밝은 빛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생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리히터의 작품은 무명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선사는 관조하라고 하지만 무명에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무명을 관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중에 하나가 리히터의 작품처럼 작품을 가까이에 놓고 자신의 마음이 변화해 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매 순간 작품을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을 감지하여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 지를 찾아가는 것이다. 어느 순간 저 깊은 내면에 있는 어두운 검정색이 보일 때도 있고 흰색이 덧 칠해져 회색빛을 내고 있는 부분이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고, 거의 흰색에 가까운 부분이 강하게 보일 때도 있다. 그것에 지금 내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선(禪)사상이 일반인들에게 확산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부분 중의 하나가 예술가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선을 체험하고자 선방을 찾아가서 결가부좌하고 앉아 있지만 다리만 아프고 도저히 선에 대한 깊이를 인지하지 못하던 경험자들이 시작한 것이 작품 명상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구입하여 생활공간 속에 놓고 늘 상 보며 작품이 변화해 보이는 느낌을 기록하여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것이다. 특히 리히터의 이 작품처럼 무채색이나 단색의 작품들은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한다.

예술가의 작품은 작가의 정신이 머무른 흔적이다. 작가는 작품을 하는 매 순간 매우 집중을 하여 작품을 한다. 이러한 작가의 집중력은 작품에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다. 때문에 관람객은 그 작가의 정신성을 작품을 통하여 느끼게 되는 것이다.

리히터의 많은 작품들은 세계의 미술관, 갤러리, 기업, 개인 소장자 등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다. 각각의 작품들은 리히터의 정신의 발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다. 혹자는 그의 작품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 작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리히터의 작품들은 깊은 감동을 준다. 그것이 단지 가격이 높다는 것이 아닌 그의 정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가치는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선사의 설법이나 글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선사의 삶의 유품이나, 흔적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곤 한다. 각자의 방식은 다르지만 깨달음의 흔적은 어디에도 존재한다. 자신이 무명 속에 있지 않는다면 말이다.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 위한 그의 열정과 열망이 진정한 자유로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행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스스로의 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의 절실한 노력은 그대로 작품으로 표현되어 자신의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작품은 작가의 혼이 담긴 흔적이며 살아 있는 생물이다. 그 생물의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보는 사람의 자유다. 자유는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의 작품에서 느껴보시기 바란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 선 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

도자의 역사, 폐사지서 만나다

회암사지 박물관, 10월 9일까지 올해 첫 기획전

고려~조선 도자 유물 전시

"이 술잔은 맑고 티가 없어서 술을 따르면 티끌이나 찌끼가 다 보인다. 사람에게 비유하면 마치 대공지정(大公至正)하고 한 점의 허물도 없어 선(善)하지 못한 일을 용납하지 않는 자와 같다." 〈성종실록〉 권260, 22년(1491) 12월 을유

백자의 맑고 티 없음은 조선시대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사대부가 견지할 덕목의 표상으로 비유될 정도로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이었다. 비단 백자뿐 아니라 비색(翡色)으로 대표되는 고려청자, 분청사기 등 우리의 도자기는 정갈한 품격과 지조로 그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양주회암사지박물관에서는 6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2016년 첫 기획전시인 '도자, 옛 회암사를 빛내는 美'를 개최한다.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는 발굴 초기부터 옛 사찰의 흔적과 함께 무수한 왕실 관련 유물이 출토되어 조선의 '별궁(別宮)'에 준하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공납자기나 조선 왕실 관요에서 생산된 자기 등 도자기류가 전체 사지 출토 유물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전시되는 도자 유물인 '백자 동자상'

이들 도자 유물들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중기까지의 도자양식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문양·명문을 지니고 있어 옛 회암사와 왕실 관계를 직접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번 전시에 대해 회암사지박물관은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다양한 도자를 중심으로 고려 청자와 분청사기, 조선 전기의 백자와 청자, 중국 자기 등 다양한 도자 유물이 전시된다"면서 "이들 유물의 유형이 갖는 역사적, 미술사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한 공간에서 살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031)8082-4187 **신성민 기자**

부처님 '妙音' 전할 합창대회 열린다

10월 30일 제 1회 도솔전국불교합창대회 개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국 단위 불교합창대회가 문을 연다.

아카사(AKASA) 엔터테인먼트(대표 강형진)는 6월 20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부터 도솔회, 불교신문, BTN불교TV가 공동으로 격년마다 '도솔 전국불교합창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카사 엔터테인먼트는 대회를 주관하며 도솔회는 함현 스님을 후원하는 단체다. '도솔'은 스님의 호(號).

도솔 합창대회는 종단과 관계없이 성인으로 구성된 사찰 및 불교단체 아마추어 합창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징은 각 파트별로 전공자를 2명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합창의 전문성을 높이고, 암암리에 이뤄지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해 대회 총무를 맡고 있는 박성규 청주 관음사 지휘자는 "그동안 순수 아마추어대회에서 몰래 전문가를 포함시켜 경연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보다는 대회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부정행위도 없애자는 취지로 전문가를 배정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도솔 합창대회는 상금에 있어 불교계 역대 최고 규모를 자랑한다. 대상(도솔상) 700만원과 최우수상(안락상) 500만원 등 총상금만 2450만원이다. 그동안 불교계에서 가장 큰 전국합창대회였던 조계종 문화부의 '불교합창페스티벌'(대상 500만원)보다 상금 면에서 한 단계 높다. 아울러 최대한 많은 합창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예선을 동영상 심사로 실시한다. 예선은 함현 스님 작품집 '천년의 향기' 25곡 중 1곡을 지정곡으로 소화해야 한다. 각 합창단에 맞게 편곡도 가능하다. 예선을 거쳐 8~12팀이 본선에 진출하며, 본선진출팀은 지정곡과 더불어 자유곡 1곡을 선보여야 한다. 자유곡은 전통가곡·범패·판소리·재즈·대중가요·뮤지컬 등 예술가곡형태로 편곡된 모든 장르의 곡이면 된다. 단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출전단체가 직접 이를 해결한 뒤 참가해야 한다.

참가 희망단체는 홈페이지(dosolchant.wix.com/home)에서 참가신청서를 받아 합창단 단체사진과 명단, 예선지정곡 악보 1부를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예선 동영상은 DVD 또는 USB로 우편접수(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0, 410(문정동, 파트너스2))만 가능하다. 예선접수 기간은 8월 5~22일이며, 본선진출 발표는 26일이다. 본선은 10월 30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중강당에서 열린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상금 외에도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의 협연 기회가 주어진다.



8월 5~22일까지 예선 접수
동영상 심사 후에 본선 진출
대상 700만원 등 최대 규모
사찰·단체 합장단 참여 가능

함현 스님 원력으로 대회 열어
"불교합창 저변 확대위해 노력"

강형진 대표는 "격년으로 열리는 조계종 문화부 합창페스티벌과 겹치지 않게 진행해 서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불교합창 저변 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회는 함현 스님의 문화포교원력으로 탄생했다. 평소 다방면으로 음악을 즐겨듣는 스님은 음악이 포교에 좋은 방편이라 여겨 찬불가사를 꾸준히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관음사 주지 시절, 박성규 지휘자와 담소를 나누다 합창대회를 계획하게 됐다. 현재 스님은 남원 황매암에 주석하며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02)415-2599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금니로 그려낸 석가모니 부처님

이해기 작가, 불일미술관 20주년 '싯다르타 展'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초기에 부처를 금인(金人), 금선(金仙)이라고 칭했다. 이를 모시는 대웅전을 '금당(金堂)'이라 불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고귀한 귀금속인 '금'으로 부처를 표현하는 것은 지극한 예경의 의미를 가진다.

금니로 그려진 부처님을 만나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7월 31일까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금화(金畵) 작가 이해기 씨의 상설 전시회 '싯다르타 전'을 개최한다.

이번 상설 전시회는 고려불화의 품격을 계승하면서 조선불화의 민예적 화풍을 겸비해낸 이해기 작가만의 '금니선화(金泥禪畵)'를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부처님의 생애 일대기를 시간과 중요 흐름 순으로 조망하면서 불교를 모르는 이들도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시가 구성된다.

또한, 불교회화의 전통양식인 민어부레로 만든 풀에 순금을 개어 붓으로 그리는 잊혀진 기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복원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해기 작가의 작품 '싯다르타'

작가에게는 금니선화 작업은 수행과정 자체다. 동국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3년 간 탱화를 그리다가 스님이 되기 위해 출가를 했던 이력도 있다. 다시 속세로 나온 후에는 금니선화에 매진하고 있다.

불일미술관은 "부처님의 생애를 현대적 금니로 장엄하는 표현기법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정체상태인 불화작품 기근에 주목할 만한 불교회화"라고 설명했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서도 수준 높은 클래식 만날 수 있어요"

바리톤 김재일 성악가 독창회 최초 찬불가 공연
30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해탈의 기쁨' 등 4곡 편성

독실한 불자인 성악가 바리톤 김재일의 힐링 독창회 '힘 콘서트'가 6월 30일 오후 7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린다. 주로 불교계 행사가 진행되고, 전문 공연·연주홀도 아닌 이곳서 김재일 씨가 독창회를 마련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재일 씨는 불교에서도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교회엔 공연 시설이 별도로 마련된 곳이 많아요. 이처럼 종교시설서 문화예술공연이 다채롭게 열린다면 문화예술계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종교계에도 시너지효과를 창출할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불교시설에서도 클래식 공연이 열릴 수 있단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불자 성악가 김재일(바리톤) 씨가 공연하고 있는 모습.

충주에 위치한 천태종 삼충사를 다니며 불심을 키웠다는 김재일 씨는 대학시절,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던 동문들 틈에서 개종 권유도 수차례 받았다. 그 가운데서도 불교에 대한 신심을 굽히지 않았고, 데뷔 후엔 불교계 음악행사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불교 음악 발전에 대한 김재일 씨의 애착은 남다를 터. 이번 공연에선 한국가곡·독일가곡·아리아 등의 클래식 중에서도 불교적 색채가 짙은 곡들로 선별했다.

특히 '님이시여' '연꽃 피어오르리' '청산은 나를 보고' '해탈의 기쁨' 등 총 4곡의 찬불가 무대도 선보인다. 김재일 씨가 개인 독창회서 찬불가 무대를 따로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공연 중간 중간 관객과 대화 시간도 마련된다. 관객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감으로써 클래식을 쉽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ticket.interpark.com)을 통해 가능하며, 공연비는 전석 3만원이다.

바리톤 김재일은 서울대 음악대학 성악과와 동대학원, 독일 뒤셀도르프 음악대학을 졸업했다.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국립극장에 루치아의 주역 엔리코로 데뷔, 한국에선 서울시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의 주역 제르몽으로 서울문화회관 대극장서 데뷔했다. KBS 교향악단, 서울시·안산시·경기도립 국악관현악단, 독일 브란덴부르크 국립, 바그너캄머, 바이로이트 포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한 바 있다. (02)597-2004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리는
지장기도

스토리를 읽으면서 사경(寫經)과 사불(寫佛)을 하고
기도하는 국내 최초의 지장기도 책!!!

이 책이 이끌어주는 대로 글을 읽고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리면서 지장기도를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힐링이 되어 마음이 편안해 질 것이다.

특히 지장기도의 가피로 건강을 되찾고 육지장사를 창건한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 지원 스님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지혜가 열리고 운명을 바꾸는 법을 체득하게 된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로서 전통불화의 맥을 이어 21세기 불교회화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양선희 작가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것만으로도 법열이 충만해지고 기도 성취가 되는 신비한 가피를 입게 될 것이다.



글 | 지원스님 그림 | 양선희
출판사 | 민족사 값 | 10,000원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6.15~2015.6.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2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3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조계종출판사
4	미산스님초기경전강의(개정판_양장본)	미산	불광출판사
5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6	초발심자경문강설(무비스님의)	무비스님	조계종출판사
7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8	생사의 근본에서 주인이 되라	허운/정원규	불광출판사
9	죽기전에 꼭읽어야할 부처님 말씀 108가지	변택주	머니플러스
10	어라 그런대로 안녕하네	지찬스님	들녘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고민 사슬 끊으려면?… 꼬리표 붙여라

고민 오프

구사나기 류 슌 지음 | 김정환 옮김
아름다운 인연 펴냄 | 1만 2천원



삶을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고민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사람마다 정도와 다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의 수만큼 많은 고민이 있다. 이 책은 '고민'이라는 주제로 접근한 책이다.

책의 시작은 이렇다. "고민에 짓눌려 꼼짝 못하는 사람들의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책을 써 달라." 출판사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은 저자는 서문서도 말했듯이 애초 '그런 건 무리'라고 생각했다. 고민이라는 주제가 막연해 보였고 또 때론 무거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한 저자는 고민에 쌓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힌트를 얻었다. 하나는 자신의 경험과 또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이었다.

공부에 대한 압박으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16세에 가출해 도쿄로 무작정 상경한 범상치 않은 경험, 그리고 검정고시를 거쳐 도쿄대 법학부 진학한 것,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기관서 싱크 탱크 역할을 하다 인도로 건너가 승려가 된 저자의 파란만장한 경험은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웠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고민을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 책을 끌고 가는 힘 중 하나는 저자가 출가해서 만난 '붓다의 가르침'이다.

사실 불교는 처음 출발한 2,600년 전부터 시작해 마음을 연구한, 그러니깐 마음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축적한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고민과 괴로움의 주된 원인이 집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었고, 그 원인을 극복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 준다. 물론 이 책은 불교 교리서가 아니다. 하지만 붓다의 가르침 중 현실 생활에 직접 응용 가능한 것들을 추려 고민을 해결하는데 적용했다. 저자의 경험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이 두 축이 이 책을 이끌어 가는 힘이다.

고민의 시작은 '반응'이다. 욕구가 있고 이에 대한 반응이 생기고 또 여기에 결합한 감정, 판단, 기억, 망상이 있다. 이렇게 처음에 느낀 분노, 당시의 기억, 학습한 부정적인 판단이 또다시 새로운 부정적 반응을 만들어 내 고민은 계속 늘어난다. 이런 것에 사슬을 끊어내는 첫 걸음은 '반응'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반응은 마음서 일어나는 생리 현상이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그저 '지금의 고민은 전부 반응이 만들어 낸 것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런 반응에 대처하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 정체 알면 괴로움 크게 줄어"
저자, 모든 고민은 '반응'에 불구
자신의 경험과 붓다 가르침 제시
마음 챙김 말과 선 수련이 대안

이 책은 고민에 대한 진단을 넘어 구체적인 해결을 제시한다. 저자는 원인이나 진단만을 독자들에게 늘어놓지 않는다. 분명한 해결점이 있다. 바로 '고민에 꼬리표'를 붙이는 작업이다.

저자는 우선 고민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그 중 자신의 고민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고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다섯 가지는 기대, 판단, 분노, 미혹, 망상 등이다. 〈기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판단〉은 이런 것이라는 믿음, 〈분노〉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의 불쾌감, 〈미혹〉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 〈망상〉은 머릿속에서 빙빙 맴도는 생각이다.

저자는 왜 이런 고민에 꼬리표를 붙이라고 말할까? 우선 고민의 정체를 알면 괴로움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걸 알고 나면 모든 고민은 '반응'에 불구하다는 걸 알아차리게 된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사실 우리 마음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만약 반응 하지 않는다면 감정도 행동도 생기지 않는다. 당연히 고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어 3장부터는 생활 속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이 이어진다.

저자가 제시한 해결책은 마음챙김의 말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선(禪) 수련이다.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책서 그가 제시하는 실천은 간단하다.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혹은 지하철을 타고 오고가는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때론 자신을 혼내는 상사 앞에서도 그리고 자신을 따돌리는 직장 동료 앞에서도 실천할 수 있다. 길지 않은 문장 그리고 각 장마다 핵심을 정리해 주는 글과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삽화는 고민서 한걸음 앞으로 나가는 방법을 잘 일러준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구사나기 류 슌 스님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하는 등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치르고 도쿄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했다. 공부로 자부심을 채우는 이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끝없는 경쟁으로 자신을 내모는 사람들을 보며 속세의 허무함을 깨달았다. 이후 올바른 삶의 태도를 찾고자 승려가 된 그는, 인도를 거쳐 미얀마 국립 불교대학교 및 태국 사원서 수행했다. 그가 얻은 큰 깨달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는 모든 고민의 근저에는 '마음의 반응'이 있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마음은, 불안, 압박, 분노 등 '고민의 시작이 되는 감정'을 만들어낸다. 저서로는 〈모든 고민에 반응하지 않는 생활〉 〈괜찮아, 부처도 가족 때문에 고민했어〉 〈고민 오프〉등이 있다.

불교는 믿음 강조 이전 지계 통해 윤리적 생활 제시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까

나카무라 하지메 지음 | 원영 스님 옮김
문예출판사 펴냄 | 1만 6천원



저자인 나카무라 선생은 저명한 인도 철학자로서 인도 철학과 불교사상은 물론, 서양 철학에도 폭넓은 지식을 지닌 20세기를 대표하는 불교사상가 중 한 사람이다. 불교학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의 책을 접해보았을 것이고, 그의 눈을 통해 불교의 기초 지식을 튼튼히 했을 것이다. 나카무라 선생의 방대한 문헌학과 현대 서양철학적 분석법으로 불교 최초기 시대의 사상과 생활을 해박하게 풀어내는 이 책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불교 고전이다. 이 책은 NHK 방송서 강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묶은 것으로 누구나 불교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쓴 개론서에 가깝다.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까〉는 빨리어 경전과 당시 사회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초기 불교의 본질을 풀어나간다. '제1장 불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에서는 불교 탄생 무렵의 사회상과 도덕부정론, 일곱 가지 요소설, 숙명론, 유물론, 회의론, 원시 자이나교 등 불교 성립 당시 활동하던 다양한 사상과 사상가들을 소개한다. '제2장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제3장 불교의 본질을 말하다'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과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불교의 모습과 궁극적 목표 등을 말하며 불교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한다. '제4장 괴로움과 무상'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짚어보고, 무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음을 초기 불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석하며, '제5장 자아 탐구'에서는 아(我)와 무아(無我)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해탈에 이를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제6장 헷갈리는 것과 이상적인 것'에서는 니르와나(열반)와 해탈한 사람의 사후 등 현대에 제기되는 의문들을 초기 불교로 거슬러 올라가 풀어낸다. '제7장 자비'에서는 '자'와 '비'의 의미와 실천 등을, '제8장 불안과 고독'에서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불안과 고독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해법을 모색한다.

이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불교 탄생 시기의 사회적인 모습을 통해 불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부처님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사상을 갖고 계셨는지, 또 현재 불교에 대해 궁금한 교리나 사상 등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해 볼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윤곽이 그림처럼 펼쳐질 것이다.

또 한 가지 이 책의 특성은 생활윤리, 남녀 사이의 윤리, 가정의 윤리, 사회생활의 윤리를 개별 장으로 담는 등 윤리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는 믿음을 강조하기 이전에 지계(持戒)를 통해 이미 윤리적인 생활을 하라고 가르쳤으며, 최초기 불교에서부터 부파불교를 거쳐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환경에 맞는 윤리를 전달해왔다. 때문에 세계가 위험할 정도로 양극화되고, 부와 권력의 위태로운 불균형 상태가 심각한 지금, 이 책의 옮긴이 원영 스님은 이런 혼탁한 세상을 바로 잡을 등불로 불교의 윤리성과 자비로운 목소리를 꼽는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초기 불교가 전하는 윤리적 가르침을 배우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 삶의 중심에 윤리와 자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한다. **김주일 기자**

정토 법문에 대한 위상과 영향력 조명

염불하여 왕생하고 성불하세

혜정 정사 법문 | 정전 · 원왕생 옮김
운주사 펴냄 | 1만원



이 책은 선도대사가 세운 정토사상과 이를 계승하여 칭명염불을 더욱 강조한 일본 정토종 개조 법연상인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법문이다. 법문을 한 대만의 혜정법사는 일찍이 인광대사의 법문에서 선도대사를 접하고는, 일본으로 건너가 다년간 선도대사의 사상을 공부하고 나서 대만과 중국 각지에서 선도대사의 순수정토법문을 널리 펴고 있는 스님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 1부에서는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이라 부르는 그 아미타불이 어떤 부처님이며, 그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왜, 어떻게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가를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 2부인 〈순수한 정토법문〉에서는 선도대사가 창립한 정토종이 순수한 정토법문인 이유를 역사적, 교리적으로 해명한 뒤, 〈무량수경〉에 나오는 법장보살의 48대원의 유래와 의미를 밝히면서 이를 몇 가지로 분류하고, 그중 제 18원이 본원이 되는 까닭과 제17원과 제19원과의 관계를 해명하고 있다.

제 3부인 〈선도대사 약전〉은 이행도인 칭명염불을 주창함으로써 정토종을 창립한 선도대사의 생애와 법맥을 〈속고승전〉 〈서응산전〉 등의 전기 자료에서 취합, 종합적으로 정리해 서술하고 있으며, 아울러 선도대사와 관련된 현대의 여러 영험담도 수록한다.

이렇게 3부로 편집 구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부를 통해 아미타불이 어떤 존재이고 극락정토는 어떤 곳이며, 그곳에 왕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제 2부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토법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원리에 의해 극락왕생이 가능한가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극락왕생에 대한 믿음과 발원과 염불을 일으키도록 한다. 제 3부에서는 이러한 정토법문을 체계화한 선도대사의 삶과 그가 끼친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정토법문에 대한 위상과 영향력을 이해하고, 선도대사의 삶을 통해 정토법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주일 기자

화엄경 강설, 드디어 절반의 고지를 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80권본 화엄경 강설
무비 스님의 원력으로 드디어 41권 출간!

최초 최고 최대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화엄경
우리 시대 대강백 무비 스님의
현실적인 비유와 친절한 강설로 만나 보십시오.



1 ~20권 각권 12,000원 / 21~41권 각권 13,000원



무비 스님의 대방광불화엄경 사경
11~20권 세트

실차난타 한역, 무비 스님 한글 번역
11-20권 세트 100,000원

BTN 무비스님의 화엄경 강의
매주 월 14:50(본)/ 수 22:00(재) / 금 20:00(재)

『대방광불화엄경』 강설과 사경 대작불사로 최상의 공덕을 쌓으세요. 담앤북스 02)765-1251

인도서 3~9C 불교 번성 추정 지역 발견

고고학조사단, 구자라트 주 바드나가르시서

인도에서 고대 불교 수도원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도 언론 '인디아 익스프레스'는 6월 20일(현지시간) "인도 고고학 조사단(The Archeological Survey of India, ASI)이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 주(州)의 바드나가르 시에서 불교사원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발굴했다"며 "그동안 과거 바드나가르가 불교 중심지였단 가설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 보도했다.



인도고고학조사단(ASI)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 주(州)의 바드나가르 시에서 사원 터 등 불교 유적지를 발견했다. 사진출처=인디아 익스프레스

현장 스님 인도 여행기 〈대당서역기〉 언급 지역
현재 3~9C 6~7개 사원 수도실 흔적 발굴
야금 작업 위한 고기능 수도 시스템도 갖춰
4,000여개 불교 유물도… "역사적 발견"

발굴단 책임자 마둘리카 사만타(Madhulika Samanta)는 "가장 최근 진행된 발굴작업서 사원 암자로 보이는 구조를 발견했다"며 "좀 더 조사를 진행해 이곳이 실제 사원이었는지, 일반 가옥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나렌다 모디 인도 총리 취임 후 2015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2단계에 걸쳐 바드나가르 조사를 실시, 현재까지 6~7개의 사원 수도실을 발굴했다. 지역 콘크리트 건물 때문에 발굴이 더뎌지고 있지만, 발굴단은 그곳이 사원 터였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만타는 "바드나가르가 과거 불교 번성지역이었단 사실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며 "사실입증을 위해 더 넓은 지역으로 발굴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 델리 시에 발굴 허가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라 말했다.

ASI의 이러한 추정은 현장 스님의 역사적 자료서 비롯된다. 조사 지역은 마헤사나 구역으로 서기 620년대 현장 스님의 인도 여행기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 언급된 바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불교 중심지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사만타는 "현장 법사 책에는 '오난토프로 혹은 아난드푸라(바드나가르의 옛 명칭) 지역에 10개의 불교사원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미 2007년 바드나가르서 실시된 발굴 작업서 2~4세기 추정 불교 사원과 12개 주거 공간들이 발견됐다. 현장 스님의 책 내용들이 실제로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굴해야 할 지역들은 3~9세기 것들로 추정되며, 3단계에 걸쳐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 덧붙였다.

사만타의 증명에 따르면, 발굴지역 북쪽을 비롯해 남동 · 북서 · 서남쪽으로 사각형태의 베란다가 놓이고 커다란 광장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쪽 입구엔 최소 2~3단계에 걸친 축조작업이 진행된 흔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사만타는 "역사적으로 최소 3차례 건물이 증 · 개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밖에도 야금(冶金; 광석에서 금속을 추출, 정련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필요한 형상으로 만드는 기술) 작업을 위한 물 공급 시스템이 갖춰졌던 흔적도 발견됐다.

사만타는 "야금작업을 위해 훌륭한 급수 시스템이 있었단 사실을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무엇보다 4군데서 4,000여개 이상의 유물을 발굴한 것도 조사단의 큰 업적이다. 종교의식에 사용된 아야카 스투파와 비슷한 조각상을 비롯해 지중해인들이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도자기, 다른 시대에 사용된 구리 동전 1,200개 등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 유물들을 통해 ASI는 바드나가르 지역이 국제무역을 하던 실크로드와 연결된 곳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발굴단은 마을 크기가 현재 추측되는 것 보다 훨씬 대규모였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2,000년 역사를 보유한 바드나가르 마을은 사르미슈타 호수 주변에 터를 잡고, 기원후 12세기엔 쿠마라팔라 왕조의 보호를 받았다. 이보형 객원기자

日스님, 로봇회사 CEO로 '투잡스'

'ZMP' 최고경영자 히사시 타니구치 스님 '화제'
"부처님 가르침은 경영철학에 매우 중요"

일본의 로봇회사 ZMP 최고경영자가 불교 승려란 사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히사시 타니구치(Hisashi Taniguchi)는 스님으로서 수행생활과 동시에 로봇공학 연구에도 열심이다. 일본 서부에 있는 사찰로 순례를 떠날 무인 택시와 드론(drone)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바로 그것이다.

과학기술 전문 소식지 'Bloonberg Technology'는 6월 22일 "타니구치 스님은 승려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 공부했으며, 마침내 구족계를 수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청바지와 빨간색 컨버스 운동화를 꺼내 신고 도쿄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간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는 한편, ZMP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로서 그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고 보도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명상을 한다는 타니구치 스님은 불교의 헌신과 친절이란 가르침이 경영철학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한다. 평소 직원들에게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피하고, 침착한 업무 태도를 유지할 것을 교육하는 것도 불교적 가치관서 비롯됐다.



ZMP 최고경영자이자 일본 승려로 활동 중인 히사시 타니구치 스님.

그는 "불교는 '내 스스로가 빛나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함께 밝힐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는 유용한 제품이 만인에게 이로움을 준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니구치 스님은 "이 세상에 많은 승려가 있지만, 로봇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은 없다. 이 방식은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ZMP는 AI · 자율주행차 · 로봇 등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이다. 소니와 함께 공동 출자형태로 법인용 드론 서비스 제공 기업을 설립했으며, 지난 3월엔 일본 최대 게임업체 디엔에이(DeNA)와 함께 자율주행 택시를 시험운행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태국 불교계, 잇따른 불법 행위로 '얼룩'

프라 담마차요, 470억 횡령 혐의… 신도들 경찰 막아서



태국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은 전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방콕 북부 파툼타니주(州)에 있는 담마까야 사원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수백억 원의 돈 세탁 및 횡령 혐의를 받는 태국의 고승이 수천명의 신도를 동원해 경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을 무력화했다. 사진출처=뉴욕타임즈

승왕(僧王) 후보가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승려들은 부패와 탈세를 일삼거나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등 태국불교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문제가 일어났다. 수백억 원의 돈 세탁 및 횡령 혐의를 받는 태국의 고승이 수천 명의 신도를 동원, 경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을 무력화한 것이다.

'뉴욕타임즈' 및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6월 17일(현지시간) 태국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은 전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방콕 북부 파툼타니주(州)에 있는 담마까야 사원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신도들은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사원으로 몰려들었으며, 경찰이 체포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에도 자리를 지키고 앉아 설법을 들었다.

경찰, '담마까야' 압수수색 시도
수천 명 신도 몰려들어 무력화
출두 명령 부인하며 의구심 키워
다른 스님들도 성폭행 등 각종 혐의

신도 완나파력 분사쿨차로엔(24) 씨는 "그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을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나 스스로 헌신할 수 있다고 기도하며, 이러한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사원을 대표하는 승려인 프라 담마차요가 거액의 자금을 세탁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사원 수색을 시도했으나, 수천 명의 신도들이 경찰의 사원 진입을 가로막아 무력화했다"고 전했다.

담마까야 사원은 320만㎡에 달하는 부지에 150여 개 건물이 들어서 있다. 프라 담마차요는 거대한 황금빛 우주선 모양의 사원을 건립하고 1970년대부터 수백만 명 신도를 보유, 대규모 불교 행사와 종교의식을 개최해 왔다.

하지만 프라 담마차요가 약 14억 바트(한화 약 470억)를 돈세탁 한 혐의를 받음으로써 태국불교의 이미지를 또 한 번 실추시켰다.

태국언론은 "프라 담마차요는 태국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한 11억 3천700만바트(약 380억원) 상당의 수표를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다 들통났다"며 "그런데도 불교원로회의는 자체 조사 끝에 프라 담마차요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그를 감쌌고, 정부도 이 돈을 사원 명의의 헌금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무혐의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자금세탁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DSI가 수차례 프라 담마차요를 소환했지만, 심부정맥 혈전증을 앓고 있다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해왔다. 그러면서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태국 승려들이 불미스런 사건에 잇따라 휘말리며 태국 불자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태국 호랑이 사원의 야생동물 밀매 혐의가 적발됐으나, 사원의 주지는 여전히 승려로서 삶을 유지하고 있다.

'Wall Street Journal' 6월 16일 자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압수수색서 호랑이 시신 및 새끼 호랑이가 든 병이 발견되며 그간 의혹으로 제기됐던 호랑이 밀매 혐의가 수면 위로 드러났으나, 사원 측 변호사는 "주지 스님은 알지 못하는 일이다. 부하 승려들이 한 일"이라며 주지를 옹호했다.

이밖에도 한 승려는 전용기를 타고 명품 가방을 걸친 사진이 공개돼 승적을 박탈당했으며, 이후 정부는 이 승려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영장을 발부, 체포하려 했으나 승려는 이미 해외로 도주했다고 알려진다. 박아름 기자 · 이보형 객원기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5권의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선가귀감
선가귀감은 깨닫고 닦아가는 비법이 고스란히 전수되어 있는 선가의 거울이라 할 만하다. 이 책은 매 소절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시송이 역대 조사와 서산대사의 의중을 꿰뚫어 보석처럼 빛나고있다.

초발심자경문
예로부터 한문 문장의 흐름을 알아 제대로 그 뜻을 새기는 힘인 문리(文理)를 터득하기 위해 화엄경을 본 사람도 초발심자경문을 새로이 독송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발심자경문은 그 문장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구성이 치밀한 명문으로 꼽힙니다. 문리 터득에 도움을 주고자 이 초발심자경문은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한 것입니다. 또한 불도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이 사람의 체험을 통한 수행지침을 실어 놓았으니 신심과 발심을 더하는 살아 있는 수행지침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천지운명
건강 120세
불자 여러분들의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20여년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 던지 민간 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천 운 사 무령 합장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로 103-35
전화 043)881-1358,881-1359 / H·P 010-4496-6060
입금계좌 : 농협 351-0862-7188-33 (예금주 : 천운사)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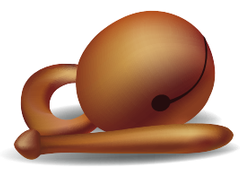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음욕(淫慾)은 불보다 뜨겁다. 음욕보다 뜨거운 불이 없고, 성냄보다 빠른 바람이 없으며, 무명보다 빽빽한 그물이 없고, 애정의 흐름은 물보다 빠르다.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암, 질병, 재판, 묘터, 교통사고 운을 얼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 성명학+사주+백초귀장술
– 수강후 자격증 수여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강의)
010-4014-8822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 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구궁성명학
23기모집을위한
무료 공개강의
7월9일(토)11시
본 수업 당일 14시부터
좋은이름연구원
02-383-8860
010-770-2248

불상 무료로 모셔 가실 분
삼존불,칠성,약사,탱화
(마산)
010-3428-6665
055-221-773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범패작법 전문교육 수강생모집
(6개월과정 / 수시접수)
교육내용 : 조석예불,새벽종송,사시불공,천도재,사십구재,점안의식,구병시식,각종불공
바라무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관욕바라,화의재바라,명바라
나비무 : 도량게,다게,운심게,오공양, 삼귀의,육법공양,향화게,법고무
* 범패작법 전문스님들이 사찰 각종행사 대행하여 드립니다 *
* 전생체험 및 빙의환자 퇴마치유 전문 *
010-5269-4168 (연화사 범패작법교육원)

60대 초반 비구승
입니다. 스님이 안계신 사찰이나 암자
구합니다.
010-4936-9929

행자승
(불교에 입문하실)
을 구합니다
010-2078-9595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60대 이상)
010-3524-8930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3499-372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주, 개인방 준비)
054-771-3170
010-3746-88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진주)
010-3156-427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53-654-0408
010-3422-3232

모든 신을 내생각대로 움직이는 특수기도비술을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비구 기도스님
모 십 니 다
(부산)
051-413-3318

천안 아산 사시불공만 보는 사찰을 찾고있습니다
(비구 입니다)
010-2168-2800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5228-787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漢文 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漢文 / 한글(겸용) 불교상용의식집"은
漢文念佛 한글염불 경전공부까지 스님들과 불자님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불교 상용의식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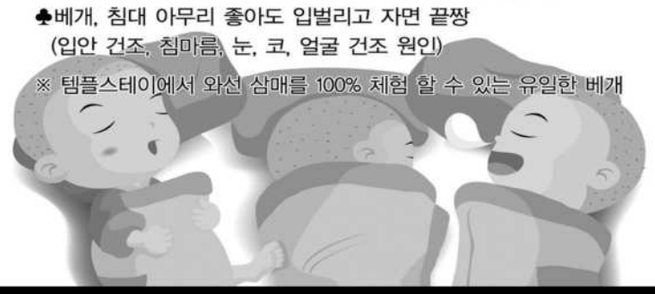


● 제1권 (예경/각청) ● 제2권 (천도/시식) ● 제3권 (수계/방생)
● 제4권 (장의) ● 제5권 (점안) ● 제6권 (독송집)
● 제7권 (토속의식 모음집) 각권 20,000원
(스님과 신도가 함께하는 법당용 책 사찰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

발행인 : 금불 장엄사 주지 성묵 스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4길-54)
주문처 : 054)974-1345 (장엄사)
010-7144-7339 (총 무)
010-5277-8024 (스 님)
계좌번호 : 농협 735091-52-058288 박명덕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도무지 잠이 안와 !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 푹자지 못해 !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온갖 상(相)은 모두가 허망하니 상이 상
아닌 줄 알면 바로 여래를 보리라.

- 금강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탁 트인 바다전망과 전통목조 사찰 ◀
- 위치 : 부산 신항만부근,거가대교입구
- 총부지 : 240여평, 1만여세대 대단지 아파트
- 건물 : 목조법당(25여평), 요사채, 목조산신각(7여평)
- 가액 : 6억 5천만원(전, 월세 가능)

▶ 백두대간 격조높은 사찰 ◀
- 위치 : 강릉
- 총부지 : 2,000여평(100% 가용), 버스 진입 가능
- 건물 : 목조건물 5동(대웅전 25평) 산좋고,물좋은 고장(계곡물 철철)
- 가액 : 5억 3천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이박사 추천암자 급 안내 (www.이박사.com)

- 안성시 사찰 / 법당 60㎡, 요사채 108㎡, 주차장 있음
- 토지 1,000㎡, 교통 편리함
- 일주문, 종각은 단청됨, 뒷편산이며 조용함 시설 깨끗하며 아늑함
- 양도가액 : 3억원, 조정가능(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 부지 : 200평 ◎ 대지 : 6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20평
◎ 요사 : 60외 ◎ 요사 : 40평
◎ 양도 : 25억8천 ◎ 양도 : 20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암 자 안 내

- 위치: 울주군삼동면보라골프장부근
- 총부지 : 대지 402평
- 건물 : 7동 통나무집, 잘 가꾸어진 멋진정원, 옆 계곡, 주차장
- 최고 위치의 암자
- 가액 : 은행 2억 7천안고 2억 5천 인수

직통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면목동(급)포교원

- 3천만원에 월 170만원 시설비 4천만원
- 5층 법당 약 200㎡ 역세권, 대로변 건물
- 완벽한 시설완비, 즉시법회 가능함 전철역에서 5분이내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아늑한 사찰
- 법당 30평, 산신각 6평, 노천불
- 목조건물, 전통법당
- 요사채 40평, 식당 40평, 창고 60평
- 대지 1,250평(종교부지)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6억 5천만원

010-4028-889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200평,건평1층,요사채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황토방2개,화장실,주방,욕실
- 삼존불, 탱화, 인등, 영가단, 법륜대, 집기 일절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 : 3억8천(융자1억3천만원)
- 급 양도, 방문요, 즉시법회 가능

010-3186-036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암 자 안 내

- 위치: 강원도 영월
- 산세가 수려하고 조용한 기도처임
- 옛부터 아기 못낳는 사람이 기도로 아기를 낳고 병을 고친 곳으로 이름이 있던곳임
- 건물,법당,산신각,주지실,공양방
- 약 1,200여평, 심야 보일러
- 가액 : 1억 9천만원

010-4197-9195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 속 전통 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 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606-7253

사 찰 임 대

- 위치 : 김해시 대동면
- 면적 : 45,800㎡, 포장도로, 주차장 넓음
- 법당, 요사채2동(방12), 공양간
- 심야전기,지하수,산수도
- 화명대교,대동IC 10분거리 고시원 운영도 가능한 곳 임대 가능함(회비)
- 가액 : 7억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이찬수)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18(연산동)
010-5346-4138.051861-2233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마을버스 018번 정류장 옆
- 평수60평, 법당25평, 방3개, 공양간
- 삼전불, 삼성각, 용왕전, 후불탱화
- 에어컨5, 화장실 2칸, 도시가스 영가단4층 중 3층 법화 가능, 소임 관계
- 가액 : 2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6795-156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중부동 장터 4길
- 평수 약 80평, 모든시설 완벽
- 포교하는 스님들께 최고 요지 장난전화 사절
- 가액 : 500만원에 월 35만원
- 시설비 최고로 싸게 절충
- 직접 방문해 주세요

010-2585-5090

도심속의아담한암자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단독 주택
- 가액 : 대출 ~7500만원~ + ~1억 3천5백만원 합 가액 : 2억 1천만원 (절충가능함)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010-7188-7723

암자(급)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상운면
- 대지 200평 + 전 1,300평
- 법당 15평, 요사체 25평
- 산속 조용히 기도수행하기 아주 좋은곳
- 가액 : 1억4천

010-3305-4559
010-9004-7212

멋진2층 전원주택 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 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3개 거실, 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암 자 안 내

- 위치 :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 內
- 장군봉, 임금봉, 신선봉, 천왕봉, 문필봉 동학사를 바라보며 앞쪽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좌측에는 신도안의 기운이 뻗치는 위치에 자리한 백만불의 조용한 암자
- 인연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곳
- 가액 : 13억

010-9228-674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옆)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 면적 : 1000평
- 법당 : 30평, 산신각5평
- 요사 : 60평
- 대형차량 진입
- 산속, 남향, 계곡
- 가액 : 6억 8천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 법당 1, 요사채 1
- 대지 341㎡, 건물 72㎡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050-2637

사 찰 임 대

-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주시 유곡죽전길 9-5번지 연화빌리지 4층 사찰을 임대합니다
- 4층 건물 전체 100정도 됩니다
- 전세금은 1억이고 스님만 오시면 됩니다. 비구니스님이면 좋겠습니다

010-9892-343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소재 김천시 황금시장교통 10분대 김천혁신도시 15분대
- 건물:단층독채,벽돌조104.54㎡(32평) 자기소유등기필(소유권이전),사찰등재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
- 내용 : 법당(넓음),거실주방,방2개,세면장 면중심가 2차선 큰길변 남향(교통좋음)
- 가액 : 6,400만원(절충가)

010-7295-1259
054)43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부지 157평, 법당 25평(목조)
- 요사채 1, 공양간 1
- 가액 : 3억

010-3508-771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주시 충효동 야척길 28 구미산. 대지 64평
- 아담하고 깨끗한 절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불, 지장보살, 신중(산신)
- 법사님, 보살님 인연맺기 원합니다
- 가액 : 6천5백만원(조정가능)

폰 010-4040-3588
집 054-742-8780

포교의 미래는 개척 불교의 희망

- 위치 : 원주시 풍물시장 중앙시장 중간 상권 교통요충지 3층 30평 옥상이용
- 법당 주방 집기일체 갖추어져 있음
- 약초재배연구 관계로 14년 운영하던 포교원 부득이 양도코져함
- 가액 : 500만원, 월 25만원 (가액 조정가) 시설비 2,700만원 보시면 깜짝 놀람
- 즉시 법회 가능

010-3813-6174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관음전,종각
- 요사채,공양간 외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3억 7천 (스님건강문제로)

010-4628-5699

별장식임법당안내

- 위치 : 경남
- 별장식 임법당으로 2층
- 조경은 무릉도원
- 대지 132평, 텃밭과 각종 약초
- 과일나무, 꽃도량
- 전 대지 총 530평, 주차장 300평
- 총 합 830평 정도
- 가액 : 2억 3천

010-7138-1141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천호동 8호선 암사역 5분거리 대로변
- 시설 : 삼존불, 약사여래, 신중, 후불, 탱화 등
- 2층 전체 48평,법당,방2칸, 주방, 화장실, 욕실, 베란다 (몸만 와도 언제든 법회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방문 후 결정)

010-2282-8885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010-7589-96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 내
- 4층 건물중 2층 40평
- 삼존불 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000만원,월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8758-1313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내 2차선 도로변
-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중간부분 교통 원활
- 아미 관음 지장 후불 신중 칠성탱화 영가단, 소불 법당종 냉,난방기 음양 조명 등 시설완벽 불기 및 집기일체
- 신조성 1년 10개월 포교 및 명리 적합, 3층 건물중 2층 약 25평
- 보: 300백, 월30만. 주방시설은 있으나 방은 없음 시설비는 꼭 하실분에게 최소의 금액에 드리겠습니다

053-651-1514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요지
- 1층 공양간 35평 2층 법당 50평
- 가액 : 전1,500만, 월 80만 시설비 2,500만원 (절충가능)

010-3112-048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 잔디. 조경전망 좋음
- 시청,은행 관공소 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 2억7천안고 양도 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9004-8890

사 찰 월 세

- 위치 : 경남 함안 가야읍에서 5분거리
- 법당 18평
- 방 4개, 공양실, 정각
- 산신각 4평, 화장실 3개 주차완비
- 가액 : 1,000만원, 월30만원
- 비구니스님, 수행하기 좋음

010-3367-2072

절 집 안 내

- 위치 : 대구 앞산 앞
- 주택 대지 110평
- 임법당, 공양간, 방3칸 다락방2개, 지하철창고방1
- 마당 넓고 텃밭도 있음 마당에 주차 3대 가능
- 가액 : 3억 2천만원

010-3138-011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시내
- 버스 승강장, 장소 최적
- 3층 건물 중 2층 삼존불 108소불, 주방, 욕실, 방1,창고, 에어컨1, 냉장고1,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주차

010-7583-123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 (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현재 법회 중,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
- 부지 종교용지 1,700평, 산 4,130평 합계 5,830평
- 대웅전 35평, 요사채 2층 100평, 지장전 45평
- 양평시내(남한강이 보이는 전망 양호) (매수, 전세, 월세)
- 매수 시 계약 후 분할 납부 가능

010-4225-0012
02-403-3333 (주 · 야)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단)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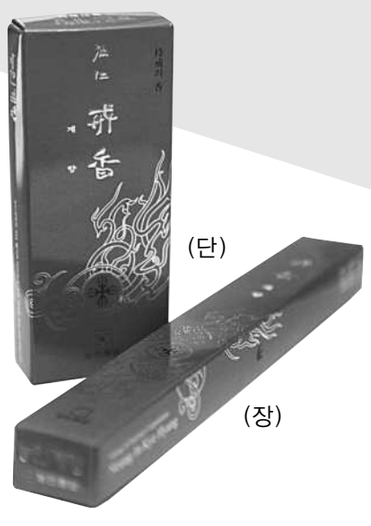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대형포교원 (도심사찰) 안내

새로운 신도 포교하기 제일 쉬운 곳

- 위치 : 울산 중구 학성동 432-206
- 규모 : 3층 건물 2,3층(약 130평) 옥상활용 가능
- 2층 : 공양실, 종무소, 대중방 3, 스님 친견실, 스님 처소, 화장실 2
- 3층 : 대법당, 지장특별기도실,산신각, 화장실
- 가액 : 5천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일부 조정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6429-5076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근교(지하철 1Km 부근)
- 총부지 320평
- 법당 : 목조건물(외 7포 내 11포) 32평
- 삼존불(목불), 원불(목불), 삼성각, 저온창고, 실내 외 주차장
- 요사채 : 목조건물 1,2층 100평
- 평생 사용가능한 땅 1,000평
- 가액 : 22억 5천만원

010-3561-4337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

쵸 C트룽파 린포체

〈2〉 두려움을 넘어서 가다 ㊦

‘불성’으로 두려움을 베라



근본은 강력한 존재

근본적인 참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이번 주제입니다. 이 원리는 티베트어로 ‘아셰(Ashe)’라고 합니다. ‘A’는 ‘처음’ ‘원시’라는 뜻이고 ‘she’는 ‘생명력’을 뜻합니다. 즉 ‘아셰’는 ‘타고난 생명력’을 뜻합니다. ‘아셰’는 또한 ‘힘’이란 뜻도 있고, ‘힘의 저장소’란 뜻도 있습니다. 이러한 힘은 밖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타고난 힘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불은 혼자 힘으로 활활 타오릅니다. 바람은 혼자 힘으로 스스로 붑니다. 흙도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근본 불성과 분리할 수 없이 각각의 개별적 존재 안에 말입니다.

아셰는 때로 날카로운 칼에 비유됩니다. 근본 불성은 약하지 않습니다. 불성 그 자체에 힘이 있어 필요 없는 생각은 단칼에 쳐냅니다. 우리가 키우는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이를 엄격하게 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아이가 잘못할 때는 혼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아셰 원리는 힘과 단칼에 쳐내는 단호함을 통해 근본적인 참본성을 내보입니다. 근본적인 참본성의 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그 힘은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순간에도 나타났습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을 때, 사악한 악의 무리가 붓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붓다는 악에 휘말리지 않고 고요한 상태에 들었습니다. 아셰(Ashe)의 ‘A’는 근본적인 열린 마음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이 평화로운 마음은 ‘she’의 힘과 만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아셰는 참본성으로부터 나온 강력한 존재입니다.

두려움, 불태우고 절단하라

아셰 원리는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아셰는 두려움 없음의 근본 원리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 없음을 이해하려면 두려움 그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무서워 덜덜 떨리는 느낌으로 근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때로 두려움은 겁에 질려 유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기도 하고, 동물처럼 잔뜩 웅크리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던 기준점을 잃기도 합니다. 중심을 잃은 공허한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해서 꼭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두려움을 연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은 자신이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떻게 작동되는지 연구하십시오. 두려움을 이해하게 될 때 두려움을 큰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 큰 농담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 두려움을 밖으로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대신에 두려움을 태워 두려움 없음이라는 큰 불을 일으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 없음의 출발 지점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검은 것으로, 두려움 없음을 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당신은 왜 존재하지 않는 것에 공포를 느끼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려움 없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그런 다음에는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모두 파헤쳐 알고 싶어 합니다. 두려움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나면, 진정으로 두려움 없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 없음은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이것이 아셰의 원리입니다. 아셰의 날카로운 면도날이 두려움을 단칼에 잘라냅니다.

그러고 나면 유머 감각이나 빛을 느끼는 감각으로서 두려움 없음의 새벽이 옵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은 혼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모두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때, 우리는 인간 존재로서 우리의 창조성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두려움 없음의 표현입니다.

> “
>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
> **파헤쳐 이해해 ‘두려움’ 없애야**
> **근본적인 고요 · 평화 찾아와**
> **불교에선 ‘공(空)’으로 표현**
> ”

‘공(空)’은 사라지지 않아

겁을 먹든 용기를 내든 아셰의 원리는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참본성과 유사하고 참본성의 현현(顯顯)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뇌 안에, 우리의 정맥 안에, 혈액 안에, 살갗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며 일어나는 마법입니다. 이러한 마법은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란 그걸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셰 원리를 발견하면 비전에 대한 전반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당신은 황무지에서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원숭이로 생각합니다. 한 인간이 다가와 당신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합니다. “이봐요. 당신은 원숭이가 아니에요. 당신은 인간이에요.” 처음에는 당황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인간이구나.” 그제서야 우리는 불을 지펴 음식을 익힙니다. 원숭이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존재의 전환에 대한 비유입니다. 존재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아셰 원리를 깨달으면 찬란함과 활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티베트어로 ‘지지(ziji)’라고 합니다. ‘zi’는 ‘빛남’을 뜻하고, ‘ji’는 ‘위엄, 존엄함’을 뜻합니다. ‘ziji’란 ‘신성한 빛’입니다. 혈색이 좋은 친구를 만나면 “너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지요? 친구가 건강해 보이는 것은 그 친구에게서 신성한 빛이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빛은 내면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는 근본적인 건강함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전사의 길을 가다 보면, 몸과 마음, 그리고 하는 말에서 항상 아셰의 광채가 드러납니다. 비싼 옷을 입고 머리를 공들여 다듬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한 옷을 입어도 자연스럽게 불성이 표현됩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전사의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넘칩니다. 두 살짜리 어린아이와 이야기하든 상대방과 싸우든,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전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본성을 지닌 마음을 감사히 여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본성을 받아들이면 축복받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엄청난 경제적 부채를 안고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와 자식이 모두 우리를 떠납니다. 대신 수심이 가득한 이웃에 둘러싸이게 되겠지요. 하지만 샴발라 전사가 되기로 하면, 내면의 빛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나쁜 마음을 싹둑 잘라 내버리는 면도날 같은 아셰의 원리를 생각하고, 근본적인 참본성을 생각하면 그침 없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아셰가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경험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절대적 수준에서 보면 아셰 원리는 존재하지 않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공(shunyata, 空)’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음(emptiness), ‘아님(no-ness)’ ‘존재하지 않음(nonexistence)’을 의미합니다. 존재하지 않음이 늘 배경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는 이 존재하지 않음과 함께합니다. 좋은 일에서든 나쁜 일에서든 똑같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금강성(vajra nature)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한 본성입니다. 이는 파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본성으로, 좋고 나쁨의 구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셰 원리 역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파괴할 수 없습니다. 칼이 아무리 예리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의 상태를 쳐낼 수는 없습니다.

영어 표현에 ‘인생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라는 뜻으로 ‘hard truth, the hard facts of life’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셰 원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hard fact이며 대체할 수도 없는 hard truth입니다. 신비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존재합니다. 아셰는 비현실적이고 신비한 경험이 아닙니다. 아셰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셰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이원성이라는 선입견과 모든 종류의 개념들을 잘라냅니다. 참본성의 원리는 무아, 어느 곳에도 있지 않음입니다. 하지만 아주 예리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지속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됨의 핵심입니다.

이 글은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새는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민간자격 국가정보 5765 등록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평가◀
수정기공재활사 과정

호흡, 자기수련,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숙지하고 이를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보급하여 교육, 상담, 연구,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전문가수준의 재활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심신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유망한 자격증이다.

http://soojung99.pe.kr/index.htmlPNO=138623274964492600

■ 강의내용 : 4 ~ 5차원 수정기공 선착순 15명 접수 (매월 시작) 4주 속성 완성
■ 일 정 : 매월 첫주 토, 일요일 1시 시작 4주 완성
■ 강 사 : 뇌교육 박사. 중의사.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20 (성대역 부근)
■ 홈페이지 : http://soojung99.pe.kr/
■ 예 약 : 010-3463-7806

제 5기
범음 범패 학당 모집

불교의식, 작법, 밸런스테크닉, 실전사주명리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범패의식 : 천도재 및 바라, 오공양작법, 실전강의, 각 사물 등
◆교육과정 : 6개월 과정, 수시모집 / 수강료 10만원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문의처 : 010-5065-5690 / 범패원장 제봉 스님

밸런스테크닉
◆놀라운 10초 통증제어 (수기치유)
◆월1회 집중 특강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경력 : 30년 기공수련 / 월회비 : 10만원
◆연락처 : 010-6462-1859 (지도강사 : 선혜스님)

실전사주명리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3시까지
◆지도강사 : 진제스님 (경력 30년 상담 및 지도)
◆연 락 처 : 010-8948-7948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5번길 27 가동 205호 (중앙시장 수협 2층)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수기치유, 실전사주명리를 집중 지도합니다.

(사)영남범음범패원



배종훈의
명상카툰

푸른 바다 위 흐르는 願

저녁이 되면서 다시 간월은 섬이 된다. 종일 많은 이가 들고 들어온 원(願)이 절 마당에, 대웅전에, 산신당에 가득가득하다. 언제나 닿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사람들이 안고, 품고, 이고 오는 원의 크기는 많고 무겁다.

하얀 달이 하늘과 바다에 뜨면 오롯한 섬이 되어 중생들이 두고 간 마음을 푸른 바다에 섞는다. 그래서 바다는 더 파랗게 변하고 가벼워진 절집은 내일 아침 길을 열어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이들을 기다릴 것이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마음의 물소리 ㊦

"스님, 오늘 세운 원 꼭 이루셔요"

분식점 앞에서 잿빛 옷자락이 펄럭거렸다. 진성 스님이 이긴 모양이었다. 등교할 때는 절 앞에서 시내버스를 타지만, 하교 때에는 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 진성 스님이나 양 처사님이 마중을 나왔다. 예전에는 나오기 귀찮아 순번을 정했는데, 요새는 서로 나오려고 다투곤 했다.

목적은 학교 앞 분식점. 해당화 보살님이 오신 후로 두 분 다 적성에 맞지 않게 소식을 하시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허기를 분식점 핫도그나 떡볶이로 채웠다.

스님 옆에는 나무젓가락 네 개와 먹지 않고 발라놓은 소시지 네 개가 놓여 있었다. 석주는 소시지 한 개를 집어 먹고, 나머지를 꼬리를 흔들고 있는 분식집 강아지에게 던져 주었다. 핫도그 네 개를 드셨으니 이제 하나만 더 드시면 되겠다.

차에 오르려는데 누군가 소매를 잡아당겼다.

"엄마!"

"석주야!"

엄마는 이름을 채 말하기도 전에 눈물부터 쏟았다.

"우리 석주 많이 자랐네."

1년 만이었다. 아빠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석주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아빠는 석주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교도소에 갔고, 석주와 엄마는 집 없이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여기저기 떠돌다가 석주만 석명 스님 계신 절에 맡겨졌다.

"우리 가족 다시 모여서 살자. 다음 달에 아빠가 나오셔. 그동안 엄마가 열심히 일했어. 우리 가족 함께 살 집도 구해놨어. 작은 월셋집이지만 방도 두 개야."

"어린 녀석이 웬 한숨을 그리 쉬느냐."

석명 스님 말씀에 석주는 건성으로 먹을 갈다가 화들짝 놀랐다.

석주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를 생각하면 사무치게 그리웠는데, 막상 엄마 품에 안기고 보니 익숙하고 포근한 엄마 냄새를 맡으면서도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가족이 함께 살게 될 날을 늘 기다렸는데, 기다리던 순간이 현실로 다가오자 선뜻 내키지 않았다. 석주의 마음에 있는 실 한 가닥이 일주문에 단단히 묶여 있는 것 같았다.

석명 스님은 여전히 화선지의 여백을 물끄러미 보고 계셨다. 그러다 생각난 듯이 붓을 들고 붓을 먹물에 적셨다.

"먹이 짙구나. 물을 좀 섞어야겠다."

연꽃 모양의 연적이 손에서 미끄러진 건 순간이었다. 석주의 눈에는 연적이 손에서 빠져나가 벼루 위로 떨어지고 먹물이 화선지 위로 튀는 모습이 느리게 재생되는 영화의 장면처럼 또렷하게 보였다. 시커멓게 화선지를 물들인 먹물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석주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바들바들 떨었다. 어떤 불호령이 떨어져도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석주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스님을 봤다. 스님은 손뼉까지 치면서 숨이 넘어갈 듯 웃고 계셨다. 한바탕 웃음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가 찾아왔다. 석주는 무릎을 꿇은 채 스님 앞에 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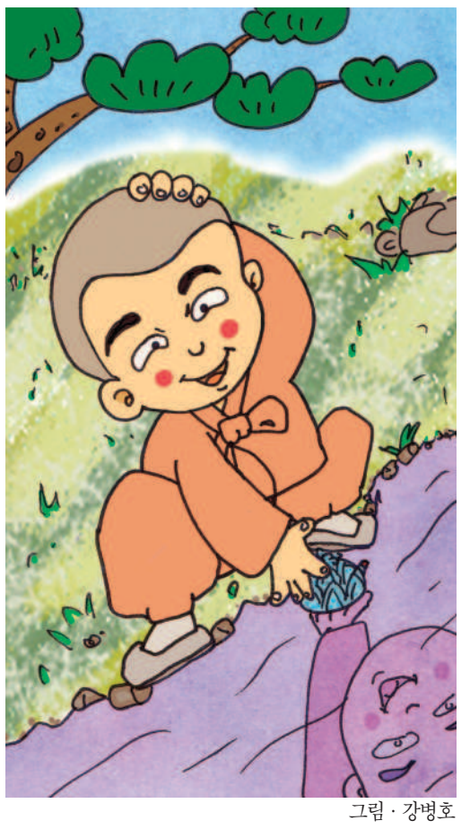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번뇌의 먼지를 네가 대신 날려주었구나. 망설이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지. 마음속의 나는 항상 올바른 길을 알고 있다. 내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에 망설이게 되는 거란다."

석명 스님은 그동안 사경한 것을 모두 불살랐다. 화르르 타오르는 불꽃과 함께 지난 백일의 시간이 함께 타올랐다. 석주는 아까웠다. 그 시간이, 그 노고가, 물처럼 정갈하면서도 유연한 글씨가, 그 안에 흐르는 부처님 말씀이 아까워 입술이 마르고 속이 탔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석명 스님은 아궁이에 장작을 던지는 것처럼 무심했다.

스님은 승복에 날린 재를 훌훌 털어버리고, 108배를 올리고 좌선에 든 후 첫 글자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공주님은 소녀처럼 호호호 웃었다.

"꼬장꼬장한 양반! 이 봉이나 저 봉이나 뭐가 그리 다르다고. 마음으로 받들거나 손으로 받들거나 모두 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을."

"석주야, 너에게는 기회가 많다. 꼭 지금일 필요는 없지. 집으로 돌아가 공부를 마치고 다시 와도 늦지 않아."

진성 스님이 석주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말했다. 모두 그렇게 말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석주도 알았다. 석주는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마음속의 자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을 뿐이다.

정식으로 사미계를 받으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석명 스님은 석주의 바람대로 머리를 깎아주시기로 하셨다. 석주 머리 깎을 때 양 처사님도 후딱 깎아버리라고 진성 스님이 농담을 던졌다. 양 처사님은 곧 날이 추워질 텐데 돌아오는 새봄에 깎으면 된다며 손가락으로 머리를 쓸어넘겼다. 진성 스님이 염불 가락으로 한 곡조 길게 뽑았다.

"돌아오는 새봄은 언제나 오려나. 갈팡질팡하다가 한오백년 지나겠네."

해당화 보살님이 채반에 떡을 담아 내왔다. 지난봄에 뜯어놓은 쑥을 찧어 빚은 쑥떡이었다. 잣과 대추로 고명을 얹은 떡은 먹기에 아까울 만큼 예뻤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새벽부터 빚은 정성을 생각해서 한입 베어 물었다. 떡에서는 감식초 냄새가 났다.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차고 맑았다.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후드득 떨어지는 동안 석주는 내내 계곡의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머리칼을 털어내고 스님이 지어주신 행자복을 입었다. 한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다가와 석주 앞에 합장하고 머리를 숙였다.

"우리 스님, 오늘 세운 큰 원을 꼭 이루셔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눈물이 석주의 가슴속에 스며들어 작고 투명한 물방울로 맺혔다. 아름답고 슬픈 이 물방울은 언젠가 마르고 말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석주는 일주문에서 엄마를 배웅했다. 엄마는 내려가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양 처사님은 다시 고시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며 두꺼운 법전을 끼고 요사채로 들어갔고, 해당화 보살님은 점심 공양을 지으러 공양간으로 갔다. 진성 스님은 해당화 보살님의 특별한 레시피를 분석해야겠다며 수첩을 들고 공양간으로 따라갔다. 석명 스님은 부처님께 향을 올리고 108배에 들었다.

석주는 연적을 들고 계곡으로 갔다. 차가운 물에 손을 씻고 까슬거리는 머리를 문질렀다. 일렁이는 물 위에서 민둥머리를 한 낯선 아이가 빙긋 웃고 있었다. 〈끝〉





대행 스님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공생이기 때문입니다, 공생!

부처님 길에 제대로 들어서려면

질문 큰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 "세상에 그냥 사는 게 다 부처님 길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부처님 길을 가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지금 이렇게 선원에서 많은 분들이 신행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또 이게 다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음공부를 하는 저희들이 부처님 길에 제대로 들어서기 위해서 어떤 실천이 필요한 것인지, 그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다."라고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법당에 들어오면 부처님의 모습이…, 노래도 있죠? '일체제불의 마음'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 보면 거기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요만한 거라도, 법당에 들어와서 일체 모든 예의를 갖추는 것도 그렇고,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갖춰야 되거든요. 노래고 예법이고 모든 거를요.

그러니깐 부처하고도 둘이 아니요, 모든 사람하고도…. 모습만 달랐다 뿐이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공생이기 때문입니다, 공생! 생명은 다 똑같죠? 벌레의 생명도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생이고 모두 모습은 달라도 마음은 같단 얘기예요. 잘하든 못하든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깐 공심이고요. 공체라는 건 모습은 다르나 체는 다, 삶에 의해서 살고 있는 체가 다 있으니까, 하다못해 물에서 노는 고기도 체가 있으니까 공체다 이겁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우리가, 전체가 어떠한 물건이든지 다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이다 이겁니다. 어떤 거든지 다 움죽거리고 하니까 공용이고, 내 몸으로부터도 더불어 같이 공용이고 또 공식화하고 있어요. 왜냐? 몸뚱이 속에 생명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내가 어떤 걸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하며,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주장자의 영원한 자기의 근본에서 자기 몸을 움죽거리게 리드하고 가는데 어떤 거 먹었을 때 내가,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걸 했을 때 어떤 걸 봤을 때, 어떤 걸 들었을 때에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다, 몸뚱이가 공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하는 것도 공식이죠. 그래서 "가는 거 잡지 말고 오는 거 막지 말아라." 그러는 것은 모든 것이 둘 아닌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특히 더 그렇게 해야 하고요.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진리가 본래 그러한 겁니다. 그대로 당신이 당신대로 있지 않고 전부가 더불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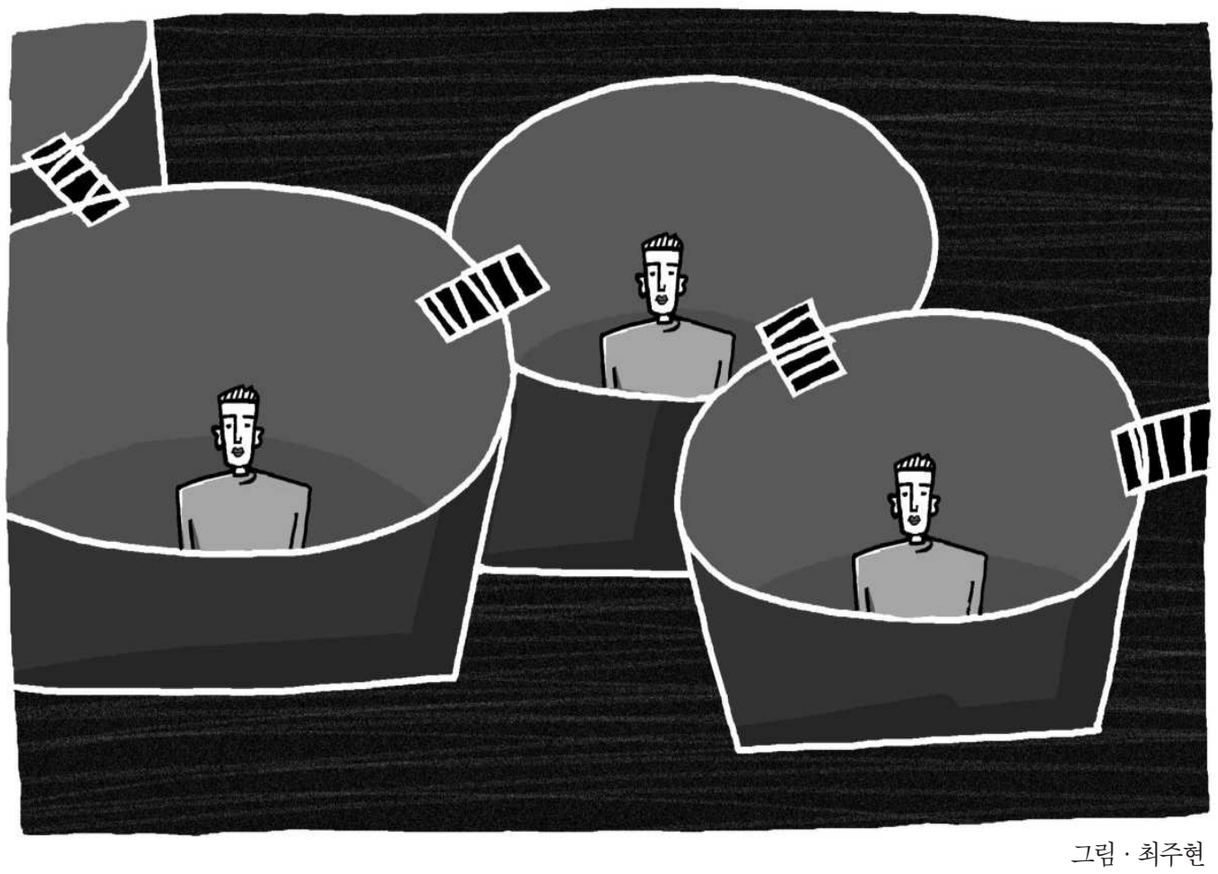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삼재를 초월하는 방법은

질문 사업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잘 아는 분한테 여쭸더니 삼재가 들어서 그렇다고 하시던데 과연 삼재라는 게 뭔지요. 그리고 그런 것을 초월하는 방법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삼재라는 거, 팔자 운명이라는 거, 또는 영계성, 업보성, 유전성, 인과성, 세균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만날 들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것은 없는 것을 애기하는 게 아니라 당장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것이 모두 합쳐져서 나오는 거를 '삼재가 어딨느냐? 과거 · 미래 · 현재가 둘이 아니고, 내 몸뚱이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의식들도 둘이 아니고, 모두 안과 밖을 다 조복했는데 뭐가 있으랴.' 이렇게 인제 생각이 드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냥 삼재팔난이고 뭐고 간에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입력이 돼 버려요. 그럼 삼재가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예요.

왜,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거 입력해 놓은 대로 나오지 딴 말 나오지 않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팔자 운명도 붙지 않고 삼재도 붙지 않고, 그냥 어디 산길을 걸어갈 때도 산에 나무들, 돌들, 흙들 전부 자기편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받들고 다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심하게 팔자 운명이나 삼재 이런 거는 생각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팔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자라서,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행하고,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 거지 팔자 운명이라고 이름 짓지도 않는 게 좋겠죠. 자기가 마음 쓰는 대로 아주 살기 좋게끔 될 수도 있고 자기 생각 때문에 악으로다가 그냥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예전에 원주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자식을 낳았는데 반은 고양이고 반은 사람이 된 것을 낳아 가지고 땅에다가 묻고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금반지를 잃어버리면 고양이를 시루에다 쪄서 그게 도는 대로 그 사람이 돌아간다고 해서, 고양이를 갖다가 또 시루에다 찌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양이가 그냥 뜨거워서 비비 꼬이는 대로,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집 자식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하기에 달려 있고 능수능란하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죠. 자기 조상들을 살리고, 자길 살리고, 자기 자녀들을 살리고, 3대를 살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6대 7대까지, 12대 종손까지 다 건지게 되면 그때는 확 터져서 이 세상을 다 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 "스님은 왜 그럼 못 건지느냐." 그럴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손오공처럼 아무나 그냥 잘못한다고 톡톡 때리는 게 부처님 공부가 아니거든요.

참된 공부가 아닌 것 같은데…

질문 마음의 도리를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주위에서 공부해 나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된 공부가 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자기의 근본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문제나 또는 자기 가족들 문제 등 자기한테 닥친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만 마음을 내고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욕심이고 기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참된 마음공부가 아닌 거 같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좀 많습니다.

답변 기복이라기보다는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누가 늙어서 죽는다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남 걱정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급해서 부지런히 길을 간다면 옆에서 싸운다, 옆에서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그냥 급하게 달려가지, 여기저기 참섭하고 급하게 지금 가서 일할 거를 폐지시키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럼 한번 극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깔딱깔딱하는데 옆에서 잘못하고 잘한다고 그거 참견하게 생겼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구멍에다가 자꾸 관하니까 거기에서 자꾸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 힌트를 주고 어떤 때는 잘되게 했다가 안되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되게 하는 거를 그대로 '안되게 하는 것도 너다!' 그러고 거기다가 놔야 됩니다. 그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우리는 지금 살아서 저승길을 공부하는 거예요

☞ 25면에서 계속

게 굴려놓는 거거든요. '안되게 하는 것도 너니깐 되게 할 수도 있잖아!' 하고 거기다 놔야 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를 다 놓고 자기가 그냥 지금 현재의 생활을 판단해 가지고, 자기 분수도 생각해서 거기다 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도 빠질 게 없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은 남이 그런다고 하는데, 남이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이 남 걱정 하는 것도 끄달리는 거거든요, 그게.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참견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죽어서 지금 저승엘 가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고요 모든 거를, 보기에 안되는 거 같고 보기에 좀 트릿한 거 같고 또 못나게 보이고 그러더라도 '어, 내가 전자에 그렇게 못났을 때의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자기 탓으로 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저승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그걸 잘 알게 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서 저승길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질세계에 살면서 사는 거는 다 알았으니깐 저승세계에 들어가서 알아야, 양면을 다 둘 아니게, 삼세를 둘 아니게 다 알아야 내가 누구를 건져 준다, 뭘 한다 하죠. 지금 신도님들도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옆의 사람, 꼭 이거는 돌봐 주지 않을 사람이나 돌봐 줄 사람이나 자기한테 인연이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관해 주고, 또 일러 줄 수 있는 사람에겐 관하라고 일러 주고 그러지 못할 사람에겐 그냥 관해 주고 하는 거죠. 오다가다가도 그렇게 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아유, 당신이 일러 줘서 참 감사했다." 하기도 하고 "아유, 나았다." 하고, 잘됐다 하고 감사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 소리도 또 안 하죠. 그렇지만 남을 건진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 아픈 사람이든 극난에 빠져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괴로워서 자기 편안하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로워서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깐 말입니다.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공법이라고요. "부처님 공법이 있고 우리는 없나?" 그러지만 벌써 우리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공법이에요. 그 많은 생명들이 다 한데 더불어 같이 살면서 같이 행하니까 공법이죠.

잠을 자면서도 참선하려면

질문 저는 어떻게 하면 잠자면서도 참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불현듯이 아, 잠자면서도 내가 자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 잔다고 생각하고 자면 그게 24시간 다 가동이 되는 거 아닌가? 여태까지 궁금했는데 그게 바른 깨달음인지요.

답변 깨달음이라는 소리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느꼈다 이거지, 깨달음이라는 그 언어는 아무 데나 함부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잠자면서도 뭐가 어떻게 가동이 된다고 하는 건, 몸은 바로 내 마음의 수레입니다. 끌고 다니는 차나 마찬가집니다. 차는 세워 놓고 주인은 나가서 이 일도 보고 저 일도 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차는 세워 놓고 나가서 이 일도 보고 저 일도 보듯이 꿈에, 꿈꿔 보셨죠? 그러면 몸뚱이는 재워 놓고 자기는 나가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꿈이 생시고 생시가 꿈이니 바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든 차를 세워 놓고 다니든 여러분이 다니는 건 똑같아요. 몸을 끌고 왔든 몸을 세워 놓았든, 당신 마음들이 다니는 거지 육체가 다니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마음에 의해서 따라다닐 뿐이죠. 따라다니다가 마음이 쉬면 몸도 쉽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는 시간이다' 하고 자니까 자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지 않아요. 자기 몸은 잔다 할지라도 자기, 즉 말하자면 유전자라고 할까요? 하여튼 혼백은 자지 않습니다. 영혼은 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낮에도 잔다, 안 잔다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쉬면 가만히 있는 거고, 부처고, 마음을 냈다 하면 법신이다, 활용. 즉 말하자면 마음을 냈다 하면 법, 능력이고 몸이 움죽거렸다 하면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불이 켜졌다 꺼졌다 이런 언어도 붙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나라에서는 불이 항상 켜져 있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밝았다가 컴컴했다 이러질 않고 항상 그냥, 캄캄하지도 않고 항상 밝지도 않아요. 그러니깐 뭐, 전깃불은 항상 켜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거기는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뭐, 꺼졌다 켜라, 꺼라' 이런 언어가 없답니다. 그런 데 가서 만약에 우리가 "아이, 불은 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언어 모릅니다. "불을 켰으면 좋겠다." 해도 모릅니다. 그렇듯이 영원한 자기의 근본적인 자기 실(實)은 참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근본은 켜졌다 꺼졌다 이러는 바도 없다 이 소립니다. 예전에 열쇠로, 자물쇠로 비유를 했는데요, 자물쇠는 자물쇠일 뿐이에요. 그리고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일 뿐이고 기름이면 기름일 뿐이에요. 갖다 쓰는 것은 운전수가 갖다 쓰게 되죠. 기름일 뿐이지 기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쓸 뿐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능력은' 하는 것은, 온 누리의 우주간 법계가 다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그 말 자체는 전부 공해서 공력이 바로 그렇게 무수하다는 얘깁니다. 쓰고 안 쓰는 거는 여러분에 달려 있는 거지 부처님의 능력이 없다 있다가 없습니다. 늘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밤에 자기를 재워 놓고 돌아다니는 나의 그림자의 또 그 마음의 그림자, 이것도 그림자고 그것도 그림잔데 이거 그림자의 또 그림자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서,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밤중에 다니거든. 그런데 자기가 또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낮에도 다니거든. 이것도 자기가 만들거든요. 형성시킨 거니까. 진화돼서 창조를 시키는 것도 자기의 근본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유전공학을 하는 데도 유전자가 없으면 그것은 물질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떠한 물질도 변화를 시킬 수 없고 만들 수도 없고, 크게 만들 수도 없고 작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근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종교도 가지고 있고 나쁘다 좋다 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살고, 즐겁다 사랑한다 이런 문제 등 모두 여러 가지가 붙지, 모두 여러분 각자 내가 없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근본으로 인해서 모든 게 생기는 거니까 이 진리가 이렇게 쉴 사이 없이 돌아가듯이, 여러분이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반복하는 이 생활이 그대로 진리며 그대로 참선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도 쉬지 않고, 자지 않을 때도 쉬지 않고, 항상 자는 것도 참선이요 이렇게 깬 것도 참선이요, 먹는 것도 참선이요 똥 누는 것도 참선이요, 모든 게 참선 아닌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참선이 끊어집니까? 끊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끊어졌다고 하니깐 끊어진 거지 아니, 살림살이가 그냥 끊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끊어졌습니까, 어디? 그냥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탑돌이를 할 때도, 여러분이 탑인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탑을 만들어 놓고 탑돌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탑을 만들어 놓고 탑돌이를 하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날 탑돌이를 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왔다 저리로 갔다, 쌀 푸러 갔다 똥 누러 갔다…. 그게 탑돌이 아니고 뭡니까? 가서는 또 죽었다고 해요. 죽었는데 또 그것이 또 돌아서 나오니, 뭘로 나오든 말입니다, 인간의 씨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돌다 보면 항상이지, 어디 끊어지는 데가 있습니까? 이 도리를 아시란 말입니다. 이해만 하고 이론적으로 알기만 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는 그 자체를, 바로 모든 것을, 일체 나쁘고 좋은 것을 다 자기 주인공에, 공(空)에서 나온 거 공에다 놔라. 맡겨 놓고 믿어라. 지켜봐라. 그러면 홀연히 참이라는 게 거기서 흘러서…. 그 생명수의 맛이라는 것은 정말 옆의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천차만별로 요렇게도 맛이 나고 조렇게도 맛이 나고, 이거는 천차만별로 좋은 맛이 나는데 도대체 그 맛은 정말 얻다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 좌선을 하고 앉아서 참선한다는 것만 참선이 아닌 줄 아셔야 됩니다. 눈 하나 깜빡거리고 이렇게 도는 것도 참선이에요, 다. "변소에서 어떻게 부처님 생각을 합니까?" 이러는데 아, 자기가 변소에 있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해가 똥구덩이에는 안 비칩니까? 똥구덩이라고 요렇게 돌아서 깨끗한 데로만 해가 가겠네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느냐 하면
> 자기가 나왔던 구멍으로
>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생하고 싶지 않아요

질문 스님, 저의 집에 쥐라는 녀석이 자꾸 귀찮게 굴어서 약을 놨더니 그걸 먹고 쥐가 죽었습니다. 근데 불법을 공부한다면서 살생을 했다고 생각하니 자꾸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살생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쥐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는지요?

답변 이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밭에서 일하다가 지렁이를 밟아 죽였다 한다면 지렁이 무명만 쳤을 뿐이지 그게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놓는다면 말입니다. 지렁이가 바로 자기니까요. 그런데 '내가 죽였으니까 이거는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고 둘로 보고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렁이가 또 지렁이가 되게 만들어 놓는 셈이나 똑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좀 너그럽고 지혜 있으면 그 지렁이도, 지렁이의 마음도 넉넉하고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잘될 것을, 내가 구차하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 지렁이조차도 구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생이라고 걸리지 마세요, 그것도. 그러면 그 쥐라는 무명을 못 벗어요. 아시겠어요? 거기 걸리면 안 돼요, 하여튼. 왜 저, 발이 많은 그리마 있죠? 그게 하나라도 걸리고 갑니까?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도 걸리지 않고 가다가도 "넌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도 걸리지 않고 가는구나." 한다면 그만 못 가고 맙니다. 그게 생각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애들이 정히 날뛰면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하셔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왜 양단간에 좋은 일이냐 하면요, 개도 잘 기르는 것만 안다면 무명을 벗지 못해 가지고 그냥 차 오는 데로 막 뛰어듭니다. 자기가 생명이 자꾸 연장이 되면 그 모습을 벗지 못하거든요.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을, 어쩌다가 죽이는 경우가 생긴다 해도 살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외려 건진다고 그러셨거든요. 모습은 밟았으나 그 밟힌 인연으로 인해서 그 모습이 화해서 딴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깐 죽여도 건지는 거고 살려도 건지는 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선지식들은 소 한 점을 먹어도 소 한 마리의 무명을 벗겨 줬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눈 뜨고 귀 뜨인 사람한테 그 한 점 돌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쥐가 날뛰고 그런다 하더라도, 쥐도 영물의 짐승입니다, 무명을 정말 벗겨 주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쥐를 죽이기 싫으면 죽이기 싫은 대로 "얘들아! 아니, 사람 사는 데 들어와서 이렇게 귀찮게 굴면 어떡하느냐? 그 좀, 사람 귀찮지 않게 할 수는 없느냐?" 하고 누누이 말해 보세요. 그러면 쥐도 알아듣거든요.

그러니 이 공부라는 것은 어느 지렁이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어야 될 거예요. 이거는 하치 못한 생명이니까 그냥 이렇게 버리는 그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어떤 모습도 둘이 아닌 내 모습으로 보고 그 자리에 몽땅 다 놔 버리세요. 뭐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불자 세상보기

여성 안전, 가부장적 성의식 혁신부터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

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강력 범죄로 다 수의 여성이 생명을 잃게 되거나 성폭행을 당하여 전국의 여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나라 전체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 여성 살인사건, 수락산 등산로 여성 등산객 살인사건, 그리고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이 바로 그런 사건들이다. 국민, 특히 여성들의 아우성에 정부에서는 나름의 대책들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근본대책이라기보다는 사후약방문격의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다.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나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게 그 대표적이다. CCTV는 하나의 보완책이자 보조장치이지 마치 판도라의 상자 같은 범죄해결의 근본대책은 될 수 없으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또한 처벌하지 않거나 미약한 처벌보다야 낫겠지만 이 또한 범죄자 개인에게만 책임이 있고 그래서 범죄자 개인만 비난하겠다는 너무나 쉬운 선택이다. 이런 대책들이 문제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처음부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보다는 사후에 대응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다. 이유는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가 따르고 그 피해는 살인이나 성폭력처럼 때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회복에 시간, 경비, 노력이 많이 들고 회복되더라도 피해 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인도보다 여성대상 범죄율 높아
가부장적 사회 인식이 문제 요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범죄는 더욱 그렇다. 모든 정책의 우선은 예방에 집중되어야 한다. 흔히 범죄학에서는 범죄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게 있다. 당연히 그 조건들이 모두 갖춰져야 범죄가 발생할 수 있지 그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는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범행의 동기를 가진 잠재적 범죄자, 매력적인 표적, 그리고 그 표적이 제대로 보호되거나 감시되지 않을 때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범행동기를 가진 잠재적 범죄자도 늘어나는데 반해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우리 국가나 사회조차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여성들이 매력적인 표적이 되고 있는 처지라는 것이다.

각종 통계에 의하면 주요 강력범죄의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이며, 이 수치는 불행하게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성인권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진 인도, 남아공, 사우디 등에 비해서도 거의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즉,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처지나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한 사회적 분노와 증오라는 범행동기를 방어력이 약하고 보호되지 못하는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표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여기서 말하는 취약성은 여성의 신체적 취약성이다. 이 보다 여성을 범죄에 더 취약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사회적 취약성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다른 사회의 여성에 비해 특히 더 취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한국 여성이 강력범죄의 피해를 더 많이 겪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가부장적 문화와 그로 인한 잘못된 성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우리와 같은 가부장적 사회일수록 여성에 대한 폭력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는 남성의 심리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해답은 있다. 문제가 지나친 가부장적 문화와 그로 인한 잘못된 성의식에 있다면 해결 또한 여기서 찾으면 된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증오와 분노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사회의 의식과 문화는 교육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제대로 된 가정문화와 제대로 된 성의식과 성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교육되어야 한다. 부모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기자 칼럼

사회노동위, 지속적 행보가 큰 울림 준다



박아름
취재부 기자

"죄송합니다"

6월 17일 연건동 서울대병원 후문에 위치한 '백남기 대책위원회 농성장'을 찾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다. 백남기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두 번째 방문이란 것이 그 이유였다. 첫 번째는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평화의 꽃길 기도회'를 개최한 후 백남기 씨 병실을 방문한 때였다.

그간 천주교계는 매일 오후 4시 그 자리서 미사를 열었다. 백 씨가 쓰러진 후 217일(6월 17일 기준) 동안 미사는 쉼 없이 지속됐고, 전국 곳곳에선 천주교 사제와 신도들이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도하는 미사 · 단식기도 등이 이어졌다. 물론 백남기 씨가 천주교였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시민들은 천주교도들의 그 '지속적인' 행보에 박수를 보냈다.

사회노동위가 찾은 이 날도 가톨릭농민회 이순일 씨가 나와 217일 간 경과를 안내했다. 경과보고 순서가 끝나자 스님들과 사회노동위원들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푹푹 찌는 날씨에도 30분 넘게 신묘장구대다라니와 관세음보살 정근 등을 염송하며 백 씨의 쾌유를 기원한 스님들이 무엇이 그토록 죄스러웠을까.

사회노동위는 지난해 말 기존 '노동위원회'서 확대 · 개편된 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이 발표되자마자 환영문을 발표하는 동시에,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에 일방적 추진을 반대해왔다. 그런가하면 어느 날은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어떤 날은 서울 2호선 구의역을 찾아 스크린 도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 군을 위한 기도회를 봉행했다.

'노동위' 앞에 '사회'란 글자를 더한 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성소수자 문제, 장애인 문제, 인종차별 문제 등 사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불교계를 대표해 나섰다.

문제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단 것이다. '많은' 활동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지속적일 때 큰 울림이 있다. 이런 점에서 그간 사회노동위의 무수한 활동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소문난 잔칫상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물론 종교계는 사회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좁단 한계가 있다. 불교계는 물론이거니와 이웃종교계도 '평화'란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문제에 대한 개선과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과 변화는 '지속적으로' 행할 때 이뤄질 수 있는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다. 투쟁을 하고 싸워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잠깐 들리는 작은 염불 소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줄까. 물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교계가 이런 것을 하는구나'란 인식은 남겨줄 것이다. 그러나 사회노동위는 그러한 보여주기식 행사를 원치는 않았을 것이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노동위 행사에 스님들보다 일반 시민, 이웃종교인들의 모습이 더 많이 보였던 것에 비하면 사회노동위 스님들의 역할은 확실히 독보적이다. 사회에 관심이 많지만 승복을 입고 쉽게 나서지 못했던 스님들이 '조계종 사회노동위'란 이름으로 한 데 모였다.

약자가 고통 받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자리를 펴고 앉아 목탁을 치고, 불경을 외고, 마이크를 잡는 사회노동위 스님들. 스님들은 그냥 길을 지나가던 불자들의 두 손을 모으게 하고, 두 눈을 사회적 약자로 돌리게 하는 힘이 있다. 스님들의 "죄송하다"는 그 말 한마디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그 자비심과 희망을 발견한다.

社說

총무원장 선출제 혁신 미룰 수 없다

염화미소법으로 대표되는 '추첨제'와 함께 '직선제'에 대한 논의도 종단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6월 21일 개최한 제206차 임시회에서 직선제를 논의하기 위한 '총무원장 직선 선출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태관 스님을 선임했다. 총무원장 선출 관련 종헌 개정안과 종법 제정안은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염화미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추천인단 706명이 총무원장 후보 3명을 추천하면 갈마위원회 후보검증과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종정 스님이 추첨하는 제도다.

이 같은 중앙종회의 결정에 따라 대중의 이목은 새롭게 구성된 '총무원장 직선 선출제 특별위원회'에 쏠리게 됐다. 위원 구성과 위원회 활동기간, 예산 규모 등은 의장단에게 위임한 상황이다. 현재 위원은 9~11명 선으로 구성되며, 종회의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까지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결정에는 대중공사와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한 '직선제' 논의 요구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조계종이 할 일은 대중들이 요구한 '직선제' 법안을 잘 성안하고 차기 종회에서 이월된 '추첨제' 법안과 함께 다루는 일이다.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은 조계종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다. 염화미소법과 직선제는 각자 마다 장단점이 분명하다. 현재 성안된 염화미소법의 법안은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고, 직선제 역시 선거의 폐단을 완전히 철폐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들 중 종단 행정 역량과 정서에 무엇이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

개발정책에도 '自他不二'가 필요

최근 정부의 잇단 개발정책과 국책사업으로 인해 사찰 수행환경 침해가 심각하다. 근래만 해도 삼척 안정사는 국도38호선 삼척 도계~신기 도로건설공사로 폐사 위기에 내몰렸으며,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주석하는 부산 해운정사는 전통사찰임에도 바로 앞에 초고층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문화재 훼손과 조망권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천년고찰 성남 봉국사는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해 전각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사실 이런 수행환경 침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불교계는 반대 입장을 내기도 하고, 또는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해 도량을 이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사업을 실시하는 주체는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게는 소음부터 크게는 폐사까지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이나 문제해결이 이뤄졌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편리성을 위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로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당사자의 처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물론 법적으로 종교시설 보호에 관한 의무가 없고, 일반인들에게 이를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종교인들이 국책사업의 당위성을 이해하는 만큼 사업주체 역시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강조하는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신이 필요한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 1644 - 9108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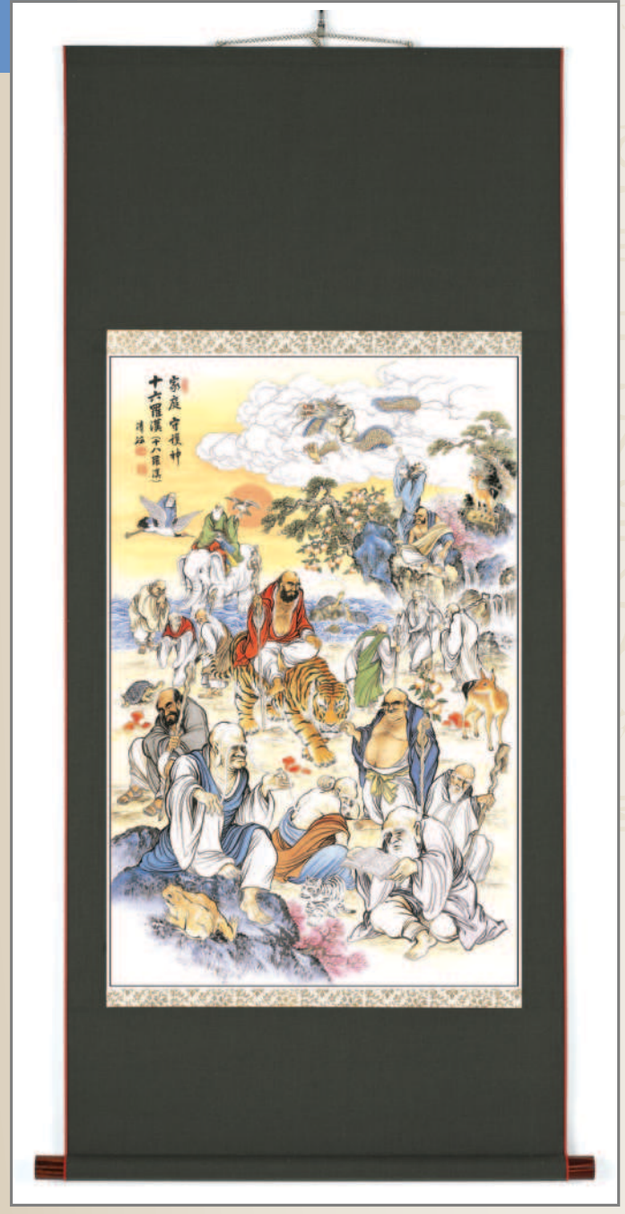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16나한도(18나한), 포대화상도, 달마도

이상 작품들은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 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불교카렌다를 통해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직접 세가지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나한도(18나한)



나한(아라한의 준말)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이들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현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 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한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분 한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영원한 수호신으로 모셔 주기를 바랍니다.

• 길이 120㎝ × 폭 54㎝ • 가격 : 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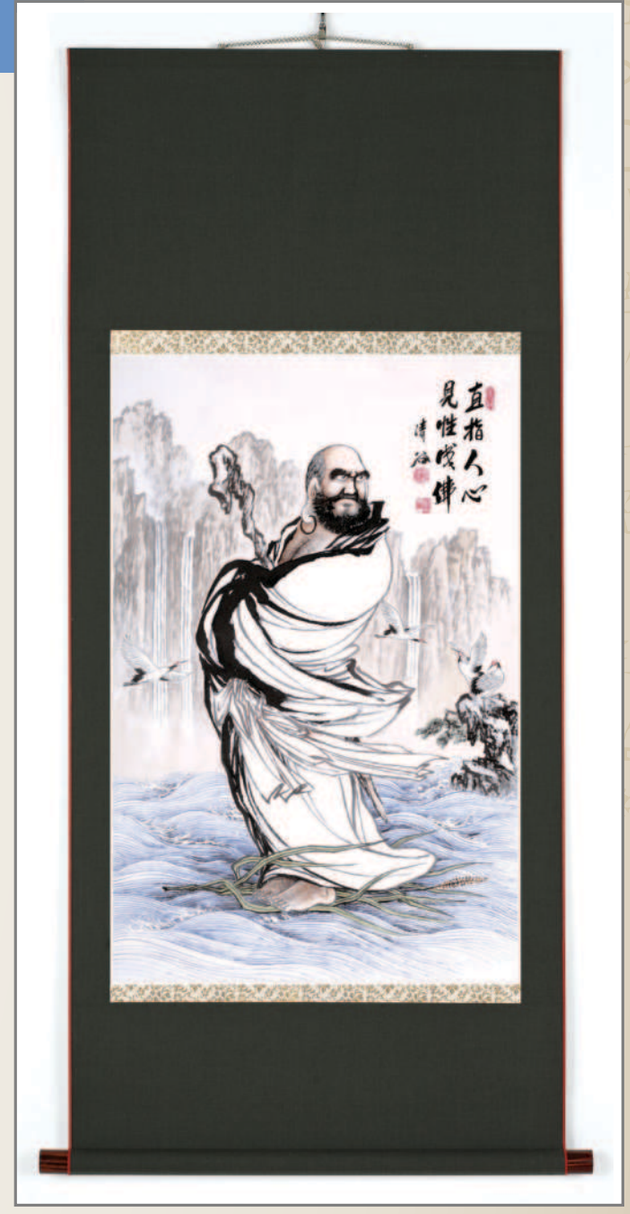
포대화상



커다란 포대자루을 메고 다닌다고 하여 포대화상이라고 하며 포대자루 속에는 모든게 다 들어있어서 중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꺼내어 준다고 합니다. 천하을 다 포용할 수 있을것 같은 커다란 배와 언제나 활짝웃는 모습의 포대화상은 미륵불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생에게 복을 나누어 준다고 하여 복달마라고 불리기도 하고 복을 상징하는 대표되는 모습입니다.

16나한도을 구입하시는 분에겐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보내 드립니다.

달마도



달마대사 께서는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깨달음의 징표이십니다. 유명한 소림사의 9년동안의 면벽 참선은 달마대사께서 부처님- 다음으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감히 법접을 할수 없을것 같은 강직한 모습의 달마대사의 모습은 발산하는 강력한 기로 인해 잡귀가 물러나고 삼재가 소멸되어 가정이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의 성법成法시대

이 땅에 오시어 새로운 정법시대를 여실 미래불인 미륵불이 누구일까?

그 분은 바로 멸법滅法시대의 종말終末을 고하는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의 성법成法(참된 眞理)인 것이다.
성법成法(참된 眞理)은 원래부터 계셨던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니르바나: Nirvana-열반涅槃-하나님)의 본체本體다.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대상은 원래부터 계셨던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 즉 법法(진리)이다.

정가 25,000원

비로자나경/세계비로자나불교/크라운판/436면

도솔천 불타께서 내려준 지혜경

정가 60,000원 다보장경/청봉 대종사/4×6배판/양장(케이스)/600면

삼계도사 불타의 참 진리인 불법을 총망라하여 십승관법으로 완성한 10계의 총서(叢書)

불교 2600년사를 길이 빛낼 십승관법의 다보장경은 삼계도사 석가모니와 원효성사, 대사, 선사, 그리고 명관청봉 십선대사께서 지혜를 총동원하여 완성시킨 책이다!

학술출판의 명가 백산출판사 www.ibaeksan.kr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